

석사학위논문

#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미국 사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전진우

2010年 2月

# 美國 例外主意에 대한 批判的 考察

- 美國 社會主義 運動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張元碩

田 晋 宇

이 論文을 政治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함

2010年 2月

田晋宇의 政治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金 振昊 印

委 員 姜 京希 印

委 員 張 元碩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2月

# A Critical Study on American Exceptionalism

- Focusing on the socialism in America -

Jin-Woo Jeon

(Supervised by professor Won-Seok J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olitical Science

201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signature

Thesis Committee, signature

Thesis Committee, signature

2010. 2.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Diplomac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국문초록 .....	ii
Abstract .....	iv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	5
제2장 미국 예외주의 고전적 이론 .....	7
제1절 쯔바르트의 이론 .....	9
제2절 헌팅턴의 이론 .....	16
제3장 고전적 이론에 대한 반론 .....	22
제1절 고전적 이론 비판 .....	23
제2절 고전적 이론의 재해석 .....	31
제4장 미국 사회주의 운동 분석 .....	40
제1절 정당운동 .....	41
제2절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	53
제5장 미국 예외주의 이론의 재구성 .....	68
제1절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성과 .....	69
제2절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제약요인 .....	75
제6장 결론 .....	98
참고문헌 .....	104

- 표 목 차 -

<표 4-1> 미국 사회주의 정당운동의 시대적 변천사 ..... 51  
<표 4-2> 미국 노동운동의 시대적 변천사 ..... 60  
<표 5-1> 미국 예외주의의 구성요인 ..... 76



## 《국문초록》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는가?”하는 물음은 19세기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이었다.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표현한 “발전된 국가는 덜 발전된 국가에 그 미래상을 보여준다.”라는 명제에 의하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한 계급의식을 가졌던 미국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맨 선두에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미국은 정반대의 사회발전 경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같은 유럽적 정치전통과 정치문화를 지니고 출발했던 미국에서 유럽과는 달리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을까? 토크빌, 쏘바르트, 헌팅턴 등의 고전적 해석을 대표하는 학자들은 미국 예외주의가 존재하며 그 기저(基底)에는 합의이론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공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설명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합의론에 파기를 주장하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비판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종래에 지적되지 않았던 설명 변수들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해석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기 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미국의 사회주의 세력은 미국정치에서 단 한번도 주도세력이 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미국정치 가장자리에서 기성보수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미국 사회의 퇴화를 예방하는 ‘긴요한 소수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주기적으로 쇠퇴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요인이다. 봉건제의 부재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수주의에 해게모니 장악은 양당제의 고착과 특이한 선거제도를 통해서 정치체제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제약하였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이다. 미국 ‘노동자들의 다양성’과 ‘경제적 풍요’는 미국적 예외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다. 미국이 다인종 국가라는 점은 노동자들이 단결을 약화시켰으며 경제적 풍요와 신분상승의 기회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계급으로 인식할 여지를 차단했다.

마지막은 사회적 요인으로 지도자의 능력부족, 사회주의 세력의 내부분열, 정치적 탄압 등을 들 수 있다. 지도자의 능력부족으로 노동운동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부분열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우파로부터의 탄

압이 강화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침체일로를 걸어 온 것은 봉건제의 부재와 자유주의적 전통이라는 역사적 유산 외에도 대통령제와 연방헌법, 선거제도와 양당제 고착 등의 정치체제적 요인과 사회주의 진영의 내부 분열, 좌파에 대한 우파의 정책적 공략과 정치적 탄압 등 사회주의 내부적 요인 및 정치권력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 《Abstract》

The socialist movement in the U. S. A. originated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as a political, economic movement based on American egalitarianism. In the 19th century it was developed with the labor movement, as the central figure.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when the Socialist Party of America was created, both the political movement and the labor movement of the socialist movement has shaped a considerable power in every crisis of the American Establishment in the course of mutual complementation and conflict.

The leading ideological type of that movement has changed from the utopian socialist type to the Marxist-Leninist type, and then from the Marxist-Leninist to the democratic socialist type.

We can analyze the restrictive factors in the U. S. A. though dividing the socialist movement into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focusing on the parties and groups that were leading that movement in the U. S. A.

### 1. Political Factors

- (1) Factors in the political ideas: eroded location of radicalism by the tradition of liberalism and populism.
- (2) Factors in the political system: handicaps caused by the presidential government, political party system, election, etc. against minorities.

### 2. Economic Factors

- (1) Factors in the economic system: welfarism introduced through revised capitalism.
- (2) Factors in business fluctuations: undeveloped territory with abundant resources; continuance of prosperity.
- (3) Factors in the social class system: weakening of class consciousness resulting from the problems of immigration and colored people; growth of the middle class and trends of class collaboration.



(4) Limitations on the labor movement: improvement of the laborer's political position; pragmatization of the labor movement.

### 3. Sociocultural Factors

(1) Leaders: ideological immaturity and imitation of the established lines of the socialists in Europe and Russia; leaders' struggles for hegemony of the movement.

(2) Anti-left movement of the right: disturbance against the trade union organization, strike-breaking, and suppression of the socialists by the right.

(3) Factional struggles between the Socialist and Communist Party, and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within the Socialist and Communist Party.

(4) Weak foundation on public support for election campaigns, and the Two-Party system's absorption of platforms from the socialistic party planks.

(5) Disturbance against the concentration of the socialists by the 3rd party Movement.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의 제기

2009년 4월 프랑스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 기자로부터 "특별한 자격을 갖춘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는 '미국의 예외주의<sup>1)</sup>'에 동의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인이 영국의 예외주의를 믿고 그리스인이 그리스의 예외주의를 믿는 것처럼, 나도 미국의 예외주의를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파로부터 꽤 강한 정치적인 공세를 받아야 했다.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각국이 스스로 갖는 '우월성'을 인정해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와는 분명히 다른, 그것을 뛰어넘는 특이한 예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sup>2)</sup>

어느 사회나 그 사회만이 독특한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점에서 모두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정치에 있어서 미국정치는 그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 같은 수준의 예외성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sup>3)</sup>. 구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혁명을 통해 태어나기 위해, 그리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기 위해 예외주의적 신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미국이 타자와 다르고 우월하다고 믿는 하나의 신조, 혹은 정신적 전통으로 미국 예외주의를 만들었으며<sup>4)</sup> 미국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타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sup>5)</sup>

1) 이는 미국의 선진국 중에서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국가적인 신념, 역사적인 발전과정, 정치, 사회, 경제적인 체제의 차이점을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1830년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에 의해서 처음 제창되었으며, 이후 립셋(S. M. Lipset)에 의해서 중요한 정치적 용어로 부각되었다.

2) Monica Crowley, 2009, "American exceptionalism."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90729003787&subctg1=&subctg2=>  
(검색일 2009, 7, 29).

3) 이러한 미국의 예외적인 특성은 미국의 정치인들에게는 국가적 자긍심이 소산으로, 연구자들에게는 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발전 경로를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 타당성 있는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곤혹스런 문제로 남게 되었다. Robin Archer, *Why is there no labor party in the United Stat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p. 241-246 참조.

4) 최근에는 미국의 강경보수주의적 정책을 배경으로 미국 국민들 대다수가 자신들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용어로 생각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아우딘 사다르, 메릴 윈 데이비스 저, 장석봉 역, 『중요 바이러스, 미국의 나르시시즘』 (서울: 이제이북스, 2003), pp. 187- 200 참조.

5) 미국 예외주의는 미국의 외교정책에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ichard J. Payne, *The Clash with Distant Cultures: Values, Interests, and For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이러한 시각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사학과 정치학 주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이론”의 관점과 유사하다. 미국은 이념적 갈등의 정치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질적 이념에 근거한 사회이며, 정치투쟁도 동질적 이념의 실현방법을 둘러싸고 일어난다고 보는 ‘합의 패러다임’은 미국사의 전개과정을 일관되게 지배해 왔으며, 미국사와 미국 지성사 연구들에 있어서 이념적 기초가 되어왔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로크적 자유주의에서 배태된 미국적 가치와 상충하는 가치, 문화, 사고와 이념은 ‘비미국적인 것’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고전적 연구들은 미국을 구성원들 간에 합의된 이념에 의해 결속되어 있는 정치체로 봄으로써 ‘통일된 미국’을 강조하는 합의이론의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결국 하나의 정치적 문명으로서의 미국이 가지는 ‘예외성’을 일목요연하게 납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치학의 합의사학 내지는 합의이론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기 않고는 불가능하다.<sup>6)</sup>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된 미국의 특이성에 관한 논의는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어 왔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정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종교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주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sup>7)</sup> 하지만 본래 ‘미국 예외주의’는 급진주의가 미국 노동 계급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일종의 정치·사회적인 개념이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미국이 사회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전통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운동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가설이 되어왔다.<sup>8)</sup>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는가?”하는 물음은 19세기 수많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이었다.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표현한 “발전된 국가는 덜 발전된 국가에 그 미래상을 보여준다(Marx 1958, 6).”는 명제에 의하면,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참조.

6) 미국 합의가설과 보수적인 미국의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권용립, 『미국: 보수적 정치문명의 사상과 역사』(서울: 역사비평사, 1991) 참조.

7)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Vol 2* (New York, Alfred Knopf, 1948), pp 36-37. 미국적 예외주의는 노동문제뿐 아니라 미국이 정체성과 미국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적 예외주의를 가장 처음 지적했던 토크빌에 의하면, 미국의 국가구조,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그리고 종교 제도에 주목하여 미국이 지닌 특별함이 미국적 민주주의의 성공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적 예외주의는 초기 뉴잉글랜드 식민지부터 청교도들이 소중하게 지켜온 청사진인 ‘언덕위의 도성’과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해 미국의 사명감을 부각시킬 때나, 변방이론을 통하여 미국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설명할 때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미국의 예외적인 성향에 대한 전반적 설명은 김봉중, 『미국은 과연 특별한가?』(서울: 소나무, 2000) 참조.

8) 백창재, “미국 외교 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9월 1호, pp. 127-129.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각(사회주의 운동에 국한된 협의적인 시각)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한 계급의식을 가졌던 미국이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맨 선두에 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였으나, 미국은 정반대의 사회발전 경로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회주의자이자 사회학자인 쾰바르트는 1906년 독일어로 출간된 그의 주요 저서인 『왜 미국에는 사회주의가 없는가?』에서 그러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었으며, 또한 당시 페이비언주의자 웰즈 역시 같은 해에 『미국의 미래』라는 저서에서 동일한 문제를 다루었다. 레닌과 트로츠키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주의자들도 이러한 미국의 특이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고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같은 유럽적 정치전통과 정치문화를 지니고 출발했던 미국에서 유럽과는 달리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을까? 그것을 처음 발견한 토크빌은 이러한 현상의 근원을 미국의 고유한 평등주의 전통에서 찾는다. 토크빌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균등’을 중요시 하였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기회의 균등이 주어진다면 그 이후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미국 특유의 평등주의 전통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토크빌의 이러한 분석은 여전히 왜 발전된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빈부격차로 인한 계급갈등구조가 표출되지 않고, 표출된다 하더라도 사회변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쾰바르트는 이러한 토크빌의 가설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쾰바르트는 미국예외주의가 토크빌의 주장하는 미국 국민들의 관습(미국 특유의 평등주의)외에도 봉건제의 부재, 노동자들의 보수성, 생활수준의 상향평준화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이후 헌팅턴은 이러한 쾰바르트의 분석시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서 접근하였다. 헌팅턴은 미국 예외주의가 미국의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미국적 신조’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 분석한다. 이러한 신조는 미국의 건국이념과 프로테스탄트적인 세계관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그 전통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그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켜온 것이 미국을 가장 미국답게 만들며 미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었다.

토크빌, 쾰바르트, 헌팅턴 등은 미국예외주의에 대해 각자 다른 논리구성을 하였다.<sup>9)</sup> 그러나 그들은 미국 예외주의가 존재하며,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모두

9) 토크빌과 쾰바르트 등의 초기 연구자들이 주로 미국예외주의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헌팅턴과 도로

동의한다. 또한 그 기저(基底)에는 합의이론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공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 모두는 이민 등을 통한 다민족 국가로의 변화를 겪으면서 미국정치는 합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점, 결국 그러한 합의안에서의 변화가 미국의 예외주의 담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동의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설명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합의론에 파기를 주장하면서 미국 예외주의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비판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존의 지적되지 않았던 설명 변수들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해석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제기 하는 학자들도 있었다.<sup>10)</sup>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이데올로기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언’을 이야기 하면서 자본주의의 승리와 더불어 사회주의의 쇠망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운동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여전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여타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증명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발달은 사회주의의 보완적 역할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 세력은 미국정치 가장자리에서 기성보수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미국 사회의 퇴화를 예방하는 ‘긴요한 소수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했으나, 미국정치에서 단 한번도 주도세력이 된 적은 없었다(김동근 1991, 2). 그리고 사회주의의 보완적 역할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도 그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산업국가들 중에서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사회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원인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가설들은 제시해왔지만, 그것들 또한 여전히 일면적이고 불완전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미국 예외주의의 고전적 연구와 그것에 대한 반론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를 가진 미국예외주의 이론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

시 로스 등과 같은 최근의 연구자들은 그 접근방법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10) 미국예외주의에 대한 비평은 Sean Wilentz, *Against Exceptionalism: Class Consciousness and the American Labor Movement, 1790-1940*.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26 (Fall 1984) pp. 1-24와 Kim Voss, *The Making of American Exceptionalism*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그리고 Richard Oestreicher, "Urban Working Class Political Behavior and Theories of American Electoral Politics,"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4 (March 1988), pp. 1257-1286; Aristide R. Zolberg, eds., *Working-Class Formation. Nineteenth Century Pattern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397-455를 참조.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본 연구는 미국 사회주의운동의 제약요인을 다면적으로 분석하여 미국의 예외주의를 고찰하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미국 예외주의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의 가설을 대표하는 쯔바르트와 헌팅턴의 예외주의 가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을 두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시각은 미국적 예외주의는 미국에서 실재했던 계급정치와 계급의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학자인 포너는 쯔바르트식 질문이 제기되었던 20세기 초를 예로 들어 사회주의가 한 때 미국에서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했음을 지적했다. 포너는 20세기 초반 약 10여 년 동안 미국 사회당이 대중적 지지와 성장 가능성의 측면에서 유럽 각국에 필적했다는 점을 들어, 고전적 해석의 수정을 요구했다. 포너와 유사한 논지에서 월렌츠는 미국 노동자들이 지녔던 급진주의적 유산을 강조한다. 특히 월렌츠는 아메리카 혁명기와 그 직후 대두한 ‘숙련공 공화주의(artisan republicanism)’에 주목하는데, 그는 쯔바르트, 하츠를 필두로 한 학자들이 부정했던 ‘계급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를 증명하는 사례로서 숙련공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그는 미국적 가치를 ‘단일한 부르주아 자유주의’로 규정했던 과거의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나아가 월렌츠는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수용한 방식에 대해 주목하면서, 흔히 단일한 성격으로 이해되었던 미국적 가치는 다각적 특성과 가능성을 지녔고,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의 원천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시각은 기존의 고전적 해석의 여전히 설명력을 지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정확한 예외주의 설명의 불가능하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존의 예외주의를 재해석하려는 시각이다.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새너를 들 수 있다. 새너는 사회주의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제 3당의 발전은 무엇이든 방해하는 여러 형태의 미국 정치체제를 그 첫 번째로 꼽았다. 립셋 또한 이와 상당히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립셋은 기존의 고전적 해석과 더불어 예외주의를 방해했던 정치적 요인으로 다음 과 같이 지적한다. 행정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만 부여되고 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연합적인 양당 구도로 전개되도록 만든 헌정 및 선거체계, 대중운동 그

리고 제3의 정당 형태로 명백하게 표출되는 불만을 사전에 흡수하거나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적인 야당체계의 유연성, 마지막으로 급진적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등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논리구성에 대해서 변화를 하고 있는 미국 예외주의 이론들의 타당성과 적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 사회주의운동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고찰하면서 위의 이론들과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분석의 시기는 미국 사회주의 운동이 발생했던 19세기 후반부터 그것이 약화되고 변질되는 20세기 후반까지로 한정하기로 한다. 미국의 역사 전반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 시기에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이 주체세력이었던 정당, 노동자, 학생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세력들이 사회주의 운동의 추이를 살펴 볼 것이다. 미국 사회주의운동의 부재에 대한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치·경제·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거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그러한 환경적 요인 속에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간 주체인 정당 및 단체들에 내재하는 정치노선 및 운영상의 문제들을 검토 하는 미시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운동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인이나 내부적 요인들은 모두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운동을 제약해 왔으므로 이들의 작용영역을 명백히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운동도 다른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이론으로서 출발하여 현실 속에서 자신을 구현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사상으로서 이념적 기초, 운동으로서 상황적 배경, 그리고 체제로서는 기능이라는 세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 이에 따라 본연구의 구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미국 예외주의’의 기존 가설들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 사회주의 문제를 가장 먼저 고민하였던 쯔바르트의 이론과 새로운 미국을 외치며 미국의 예외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한 헌팅턴의 이론을 중심으로 미국예외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설을 검토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보았던 고전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을 검토할 것이다. 사회주의의 부재에 대한 고전적 해석을 비판한 포너와 월렌츠의 주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비판과 달리 미

국예외주의를 또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하려고 했던 새넌과 립셋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제 2, 3장의 가설들이 타당성과 적실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 사회주의운동의 전개과정을 고찰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정당운동과 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적으로 여타 형태의 사회운동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성과와 잠재력을 살펴보고 제4장의 분석을 토대로 미국사회주의 제약요인을 재평가함으로써 미국예외주의 이론에 대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논의를 정리하고 평가한다.

본 논문은 문헌자료를 미국의 정치적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역사적·상황적 접근법을 주로 사용한다. 또한 양적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는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접근방법을 병행한다. 정치사상 및 이념에 대한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기존의 연구서적과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현실적인 사료의 접근을 위하여 미국 국무부와 미국 통계청 그리고 국회사무처와 한국통계청 등의 경제 및 노동 통계자료를 아울러 참고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체제, 경제체제, 각종 정책, 국제공산주의운동, 사회계급 및 노동운동의 특성, 경기변동, 우파의 방해활동, 그리고 이 운동 자체의 내적 활동상황의 연구를 위해서는 위의 1차 자료와 더불어 신문 및 잡지의 기사, 인터넷에서 제공받은 공개자료 들도 참고하고자 한다.

## 제2장 미국예외주의 고전적 이론

세계적인 사회주의의 흐름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비교적 간단한 흥망성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노동운동과 혁신주의운동에 연원을 두고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19세기에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다가, 20세기 초에 미국사회당이 결성되면서 정치운동으로 전이 되었다. 이후 미국의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은 상호보완과 투쟁을 하면서 미국 사회체제의 분기 때마다 중요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어빙하우에 따르면,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기회의 균등, 독점에 대한 반대, 박해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들과 연결되어 발생한 덤스식 사회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다(Howe 1983, 12). 그리고 이후 30년대 대공황기의



노먼 토머스를 지도자로 한 사회당 운동, 그리고 60년대의 뉴-레프트운동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맥을 잇고 있는 운동이다.<sup>1)</sup>

그 중 노동운동은 혁명적 사회주의노선을 지키려는 쪽과 노동자들의 현실적 당면 과제 해결에 주력하는 쪽으로 나누어져서 전개되었고(Dolbearg 1976, 15), 이러한 오랜 진보를 통하여 마침내 후자의 입장을 견지한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AFL-CIO)가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당운동은 19세기에는 그 활동이 미미한 상태로 전개되어 오다가, 1901년 결성된 사회당은 사회주의운동 전체의 중심점이 되어서 마침내 미국 사회주의운동사상 최대의 제 3당으로 성장하였다(김동근 1991, 162). 그러나 사회당도 당내 외적인 요인에 의해 약화되고, 1910년에 가서는 공산당이 분당해 나가면서 쇠약해졌다. 미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좌파들을 규합하여 사회당과 경쟁적 관계를 유지해 오다 이후 사회당이 우경화되자 그와 완전히 결별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다(김성찬 1995, 7).

이들은 미국정치에서 단 한 번도 주도세력의 된 적은 없으나, 미국정치의 가장자리에서 보수주의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미국사회의 반동화를 예방하는 ‘긴요한 소수자’의 역할을 해왔다(김동근 1993, 2). 즉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은 민중운동 같은 사회변혁 운동을 주도한 이념적·실천적 중심점이며, 사회주의 정당의 정강정책은 보수양당체제가 소홀하게 다루는 제(諸)분야에서 사회적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한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Payne 1995, 23). 하지만 그러한 평가는 결국, 미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성공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19세기 많은 학자들은 미국의 사회주의운동에 대해서 이러한 결과와는 다른 평가를 했었다. 특히 마르크스나 그의 추종자들은 만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제2차 산업화의 선두를 걷고 있는 미국에서 일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베른슈타인은 “우리는 곧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시작되어 뿌리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했고, 카우츠키 역시 “미국은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으며, 영국 마르크스주의자 힌드만은 “미국은 최초의 사회주의국가

1) 때로는 이후 1890년대에 부흥했던 인민주의가 1970년대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주의를 대체했다고 보고, 이 또한 사회주의의 연속이라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으나, 이는 두 이데올로기 사이의 차이 점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인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또한 실사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영향력면에서 지금의 평가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Kenneth M. Dolbearg, Patricia Dolbeare, *America Ideologies : The Competing Political Beliefs of the 1970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76), p. 114. 그에 의하면 인민주의는 국가의 부가 부자와 빈자 사이에 보다 공정하게 분배될 것을 요구하면서 개인주의, 평등주의, 물질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미국인의 저항 이데올로기라고 하였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인민주의는 현재 미국의 인민주의 중 좌파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단지 사회주의의 분배적 부분과의 한정적 동질성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될 것”이라 확신했다. 독일 사민주의 지도자 베벨 역시 “미국은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도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 단언했고, 1912년에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으며, 마르크스의 사위이자 프랑스 대표적 사회주의자였던 라파르그 역시 가장 선진적 산업발전 수준을 가진 미국이 역사발전의 사다리를 맨 먼저 오를 것이라 말했다. 당시 내놓으라 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서 미국에서의 사회주의 발전에 대한 확신에 찬 언급을 찾기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Lipset 2000, 17).

그러한 판단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그리 어긋나는 일은 아니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대대적인 산업화로 인해 빈부격차는 심화되었고, 노동항쟁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격렬한 양상을 띠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론에 의하면 당시의 미국은 분명히 곧 혁명이 일어나야 맞는 나라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곧 수많은 학자들의 자신들의 예상이 틀린 원인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였다. 그들에게 미국의 이런 특이한 현상은 그들의 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이후 러시아 중심의 사회주의학자들은 미국의 제3국을 통한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면서 혁명의 시기를 맞는 것을 늦출 수 있었다는 제국주의론을 주장하였고<sup>2)</sup>, 그 외 유럽이나 서구의 학자들은, 민중주의와 혁신주의의 개혁적 조류는 거침없고 비정하던 고전자본주의를 결국 큰 혁명을 거치지 않고 미국적 풍토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물꼬를 터 주었고, 뉴딜정책을 거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는 복지국가로 지향하며 대폭 개선되면서 폭동의 위기를 넘겼다는, 지금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미국 예외주의론을 주장하였다.<sup>3)</sup>

그렇다면 이러한 일종의 고전적인 미국예외주의,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사회주의 부재를 처음으로 설명했던 쯔바르트의 미국예외주의 이론과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해 본격적인 해석을 시도한 헌팅턴의 미국예외주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자.

## 제1절 쯔바르트의 이론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1906년 쯔바르트는 “왜 미국에 사회주의는 없는가?”라

2)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레닌 저, 남상일 역, 『제국주의론』(서울: 백산서당, 1998) 참조.

3) Wall Street Journal, *They Said They Didn't Want a Revolution*, (July 20, 2000) 그러한 마르크스주의자들에는 카우츠키(Karl J. Kautsky)나 베벨(August Bebel), 막심 고리키(Maksim Gor'kii) 같은 이들이 포함된다. 김형인, “미국 사회주의의 좌절: 미국의 토착적 평등주의와 개인주의”, 『미국사 연구』 14집, 2001, p. 127 재인용.

는 도발적 질문을 제기했다(Sombart 1976, 16). 쾰바르트가 이 질문을 제기했던 1906년 당시에 미국은 신생국가임에도 이미 자본주의 종주국으로 발전했으며 전 지구적 헤게모니를 장악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김진희 2004, 96). ‘미국의 꿈(American Dream)’에 경도되었던 동시대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했을지 모르나 이 질문은 그러나 쾰바르트의 문제제기만은 아니었다. 『자본론』 서문에서 마르크스는 “발전된 산업국가는 저발전된 산업국가에 미래의 상을 제시한다(Marx, 1959, 11).”고 했고,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선진적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 주목했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공유했던 미국에 대한 기대와 그로 인한 실망감은 쾰바르트의 질문과 분석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필연적 반응으로 나온다면,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사회주의의 고전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노동계급은 사회주의운동의 열성적 지지자가 될 것이다(Sombart 1976, 18).” 그러나 실상 미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차치하고 견실한 사회당이나 노동당조차 정착하지 못했다(Tocqueville 1948 36-37).

그렇다면 같은 유럽적 정치전통 정치문화를 지니고 출발했던 미국에서 유럽과는 달리 사회주의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sup>4)</sup> 이 문제에 대해서 쾰바르트는 20세기 초에 그의 저서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는가?』에서 선도적인 고찰을 시도했다. 쾰바르트의 이러한 고찰은 다른 학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거론되었으며, 이후의 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쾰바르트의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제약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첫째, 미국 노동자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이다. 19세기말 미국으로 이민을 온 노동자들이 대부분은 미국의 자본주의체제 자체에 매력을 느껴서 찾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결국 그들에게 미국의 자본주의는 전망의 대상이자 기회의 원천이었다.

쾰바르트는 미국이 도시화와 자본주의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Sombart 1976, 12). 그는 인민의 전체적인 생활양식은 점점 더 자본주의에 적응해 가고 있다는 마르크스적 입장을 수용하였다. 미국의 도시는 유럽의 자연발생적인

4) 이미 주지하고 있다시피,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또는 공산당으로 불리는 정당이 이들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경로를 보여 왔다.

5) Werner Sombart, *Why Is There No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International Arts & Science Press, 1976). pp. x i x- x x iii. 참고.

성장과는 다르며, 순전히 합리적인 토대에 의해 인위적으로 건설한 도시(산업화과정에서 집중화된 중심체)로, 튀니스가 말한 공동체(Gemeinschaft)의 모든 자취는 사라져 버렸고 이익결사체(Gesellschaft)의 형태로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미국은 자본주의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구조의 뚜렷한 모습인 빈부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쾰바르트의 이러한 관찰에 따르면 미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이 일어나야 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혁명의 기운조차 느낄 수 없었다. 그는 그 해답으로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미국의 경제성장을 지목했다. 미국 국민의 특수성을 엄밀하게 고찰한 학자들은 그것이 경제생활의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요구들의 집합체이며 다양한 갈등을 가진 조직체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적 틀에서 모두 완충되며 이러한 시스템에 적용된 미국인들은 자본주의에 순응하는 국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의 역할로 인하여 미국인들은 자본주의에 순응하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회주의가 부르짖는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탁월하고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제도적·조건적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국가는 경제적 불안정 요인이 감소되어, 보다 쉽게 질서와 안정을 만들어냄으로서 경제성장이 촉진될 가능성이 크다.

쾰바르트의 이러한 주장은 사회주의당이 1912년 대통령선거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도 그들의 부적절한 윤리적 절대주의 때문에 실패한 것을 설명하는 벨의 시도에서도 그 반향을 찾을 수 있다.<sup>7)</sup> 또 슈뎀페터는 미국의 사회주의의 실패를 노동자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독특한 태도를 통해 설명했다. “유능하고 존경할만한 평균적인 노동자들은 실업가였고 그들은 자신의 고용주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대개는 공유했다(Schumpeter 1956, 64).” 포터도 미국의 국가적 특성에 입각한 부(wealth)의 효과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Potter 1954, 118-119).

둘째 노동자들의 미국정부체제에 대한 호의적 태도와 자신의 공민적 통합에 대한

6) 이러한 주장을 잘 정리한 연구로는 Kim Voss, *The Making of American Exceptionalism: The Knights of Labor and Class Form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가 있다.

7) 벨은 미국인들과 괴리감을 주는 사회주의의 가혹한 윤리적 기준 잣대가 사회주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Daniel Bell, 'The Failure of American Socialism: The Tension of Ethics and Politics', *The End of Ideology: On the Exhaustion of Political Ideas in the Fifties*, new revised ed.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p. 275-298 참조.



열의이다. 노동자들은 미국의 정부체제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넘어서,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다. 더불어 그 속에 자신들의 참여하고 속하기를 바라고 갈망하였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시민으로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미국정부체제에 대한 무한한 호의와 맹신을 보내는 자기합리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노동자단체들의 존재 이유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기성 노동자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현상의 유지에 최선을 다했다. 미국인들은 이미 기존의 사회적 시스템에 익숙해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이 창출을 반기지 않았다. 미국의 정치문화는 극단적인 분열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그리 관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념적으로 순수한 두 개의 세력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大)정당들의 일관된 특성은 결정적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쾰바르트는 이것을 그들의 ‘군거성(群居性 : gregariousness)’이라고 불렀다(Sombart 1976, 40).

이와 유사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 립셋은 건국초기로부터 보장된 헌법적 남성 참정권이 미국정체의 안정된 발전에 핵심적인 것이 되었다고 주장한다(Lipset 1964, 170). 마샬과 벤딕스는 지배 엘리트들이 노동계급을 정치적 권역 속으로 합일시키려는 시도가 성공함으로써, 노동계급이 급진주의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김동근 1993, 3).

셋째, 특이한 선거제도와 양당제로 인하여 새로운 정당 창당이 어렵게 되는 미국의 정치체제를 지적 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그들의 정치문화와 함께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독특한 면이 있다. 국가를 불신하면서도 정치제도와 헌법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옹호적이다. 즉 헌법과 정치제도는 국가의 운영수단이 아니라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영국과는 다른 정치체제를 채택하였다. 영국과 서구의 정치체제 대부분이 의원내각제와 다당제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그것은 연방제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특징을 보인다. 다른 유수의 국가들과는 달리 ‘선거인단’이란 특이한 제도를 도입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중적 선거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그들 나름의 정치체제를 채택·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신뢰의 정도도 상당히 높다. 립셋은 미국의 선거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국의 특이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와 승자독식제도)는 익히 알려진 것과 같이 상당히 복잡하며, 이 선거제도를 언

듯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선거방법인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다수가 모든 표를 가져가는 거대한 양당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라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Lipset 2000, 43).” 이러한 선거제도로 인해 제 3당은 정치적인 이슈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또한 노먼 토머스가 주장한 사회당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호프스태터의 인민당의 실패에 관한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sup>8)</sup>, 미국의 보다 더 보수적인 정당들은 보다 더 개혁지향적인 제 3당들의 정책을 그들 자신의 부분으로서 흡수함으로써 제 3당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힐퀴트는 『미국 사회주의의 문제와 전망』에서 미국 사회주의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의 하나로 미국의 정치체제를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설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가 사회주의의 즉각적인 성공을 방해 왔다...개혁운동의 어려움은 미국정치에 있어서 소위 “양당제”에 의해서 여전히 더욱 악화되어 있다. 공화국 건설 이래로 정권 경쟁은 두 개의, 단지 두 개의 지배적 정당 사이에 수행되어 있다. 새로운 정당, 소위 “제3당”은 때때로 그 영역 내에 나타났으나, 그 중 하나도 평가할 만한 힘과 안정성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대체로 그것들은...구(舊)정당 중 하나에 의해 흡수되어 왔다.<sup>9)</sup>

한편, 토크빌은 미국의 정당제도의 특징으로서, 미국에는 유럽식의 추상적 원리의 이데올로기적 강령을 가진 세계관(世界觀)적 ‘대(大)정당’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Tocqueville 1948, 175-176). 유럽의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의회가 행정수반을 선출한다. 또 이러한 제도를 택한 일부 국가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여 그 경우 유권자가 투표한 한 표는 보다 평등하게 반영된다. 따라서 노동계 소수정당들은 의회 내에서 때로는 제휴하기도 하고 또 소수당을 목표로 정치력을 길러 내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출이고, 승자독점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회주의 정당들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원은 상대적으로 소수임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선거에서 민주·공화 양당을 맞설 수가 없다.

8) 호프스태터는 인민주의의 실패가 미국 양당의 인민주의적 정책을 필요시에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인민주의가 미국인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양당제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Hofstadter, Richard. *The America political Tradition, 25Th ed.* (New York, Alfred Knopf, 1973) 참조.

9) M. Hillquit, "Problem and Prospects of American Socialism", *History of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5th ed. (New York, Funk & Wagnalls Co. 1910), pp. 358-365.

쾨바르트는 미국의 사회민주주의적 태도의 발전이 제한된 것이 튼튼한 양당제의 작용 탓이라고 보았다. 그는 일찍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양대 정당이 제3당의 정강(政綱)들의 부분들을 잠식해 버림으로써 제3당에 대한 지지자들을 흡수할 수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해 냈다. 실제로 미국의 양당제에 있어서는 투표자들의 투표행태의 변화가 적게 일어난다. 그것은 지금까지 정착되어 온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 즉 정당충성도를 변화시키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 자본주의가 제공할 수 있었던 물질적 보상에 의해서 미국 노동계급에 대한 잠재적 급진주의의 발전 가능성이 퇴보되었다는 것이다. 쾨바르트는 미국 노동자의 우월한 물질적인 상황이 미국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발전을 방해했다고 가정한다. 미국 노동자들은 유럽 노동자들보다 경제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즉 유럽 노동자들이 최소생활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파업을 하고 혁명을 하여야 하였던 반면, 미국 노동자들은 이미 최소 수준의 생계는 보장되었기에 그럴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쾨바르트는 최저생활수준 보다 더 높은 자기소득은 노동계급 내에다 유사중간 계급적 태도와 정향들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별적 노동자와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최저생활비보다 더 많은 소득은 비록 사회의 부의 전체적 분포가 보다 더 불공평하게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고를 무감각케 하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삶에 대한 만족을 주게 되어 사회주의적 태도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김동근 1993, 4-5).

그는 미국의 노동자가 유럽의 노동자보다 훨씬 유리한 것은 물질적 생활에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지위에서도 한층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Sombart 1976, 9). 유럽의 노동자는 봉건제도를 거쳐 시민사회로 들어오면서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억압적인 봉건제도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도적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것만으로도 유럽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개인보다는 계급집단으로서의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단결과 계급의식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유럽의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할만한 경제적·정치적 기회를 부여받았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개인주의적 자유경쟁이라는 바탕 위에서 개척정신이 발달하게 되었고 노동자간에는 계급의식이라는 연대감이 절실하지 못하여 유럽과 같은 '노동자계급'이라는 특정계층을 생각할 수 없었다.

다섯째, 미국 노동자들에게 계층 상승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회적으로 보장하여 준다는 것이다. 쯔바르트는 노동자들이 유럽에서보다 빠더 부르주아적 기업가가 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중심의 정상부까지 혹은 거의 그 근처까지 갈수 있다고 말한다.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언젠가 그들도 부르주아계급에 진입 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회를 제공한 것은 노동자계급의 부르주아계급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켰다. 립셋과 벤딕스는 『산업사회의 사회추동』에서 미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유럽사회보다 개방적이었다는 주장으로 쯔바르트 이론의 타당성을 옹호한다.(김동근 1993, 4). 1852년, 마르크스는 미국 계급구조의 유동성에 대해, “계급은 이미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속에서 그들이 성분을 계속 변화시켜 왔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sup>10)</sup>

여섯째, 미국 노동자의 투쟁성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개방된 환경의 효과를 들고 있다. 쯔바르트는 미국의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들은 동부로부터 온 많은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농부로서 서구의 자유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급진주의의 발전을 방해하는 안전판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은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기회에 대해서 노동자들은 보다 많은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자본주의하의 노동자에 대한 제약이 압제적이었다 해도 이러한 환경의 존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자유로의 탈출(escape into freedom)’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간주한다(김동근 1993, 6-7).

즉 사회주의 운동을 제약한 요인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환경에서 발전한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와 상당기간 계속된 경제호황에서 연유하였다. 래드 2세는 “미국경제는 다른 어떤 경쟁 경제체제보다 생산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출발해서 1세기 이상이나 꾸준히 인상적인 성과를 기록했다...1840년 이후 미국의 경제는 실제로 연 약 1.6%의 비율로 성장해 왔는데 이것은 물가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1인당소득이 그만큼 성장했음을 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Ladd Jr. 1972, 49). 미국의 노동자들은 유럽의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경우 높은 소득을 보

10) Karl Max and Frederick Engels,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in *Selected Works in two volumes*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69), p. 255. 이미 마르크스는 미국에 계급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그의 문제의식의 시작은 결국 ‘미국에 왜 사회주의가 없느냐?’가 아니고 ‘발전하지 못하느냐?’였다.



장반야 왔다.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중간계층이 국민의 다수를 구성한다면 그들은 현상유지를 원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안정은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쾰바르트를 비롯하여 미국의 사회주의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사회주의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쾰바르트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서유럽국가가 미국이 성취했던 생산성에 도달할 경우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가 쇠퇴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sup>11)</sup> 그러한 이유로 쾰바르트는 미국의 예외주의를 하나의 특이성을 넘어서는 이데올로기의 변혁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쾰바르트의 질문 이후 미국 노동운동과 노동정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편화 된 미국적 예외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의 하나, 혹은 모든 현상을 지칭했다. 첫째,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했다. 둘째, 대중정당으로서의 사회당이나 노동당이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미국 노조운동이 '경제적 조합주의'로 알려진 매우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기구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했다. 이러한 쾰바르트의 미국적 예외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비교사적 관점에서 계급정치와 계급형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질문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나, 그 질문 자체의 '비역사적' 접근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김진희 2004, 96). 그러한 이유로 최근에 와서 쾰바르트식 질문은 미국 노동의 진보적 전통이 실재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이유와, 노동과 정치의 구체적 관계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여지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쾰바르트식 질문은 '정상성'을 상정하는 질문인데, 미국과 대비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유럽의 노동사에서 '정상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 제2절 헌팅턴의 이론

반면 헌팅턴의 경우 이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미국 예외주의에 접근하였다. 두 학자간의 학문적 연구 시대가 거의 한 세기가 차이 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헌팅턴의 경우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을 논

11) Werner Sombart, *Why Is There No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International Arts & Science Press, 1976) 참조. 쾰바르트는 미국을 예로 유럽의 사회주의가 쇠퇴할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미국에서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기 보다는 이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미국적 예외주의에 접근하고 있다.<sup>12)</sup> 헌팅턴은 미국의 예외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미국적 신조'라는 용어로서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예외성, 우월성, 특수성을 의미하는 정치사상이자 국가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헌팅턴은 미국의 신조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론과 사상에 집합체라고 설명하였다(헌팅턴 2000, 94).

19세기 미국 애국주의 역사학의 대부 벤크로프는 미국을 전 세계 문명이 융합된 결정판으로 인식했다(Bancroft 2008, 25). 즉, 이탈리아의 콜럼버스와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가 합작한 신대륙 탐험과 발견, 프랑스가 지원하여 영국과 치른 독립 전쟁, 인도에 기원을 둔 영어, 팔레스타인에 그 뿌리를 둔 기독교, 그리스 문명에서 기원한 문화, 로마에서 기원으로 한 헌법, 영국으로부터 전수받은 대의제도, 네덜란드 연방으로부터 받아들인 연방제 원리와 사상적 관용(tolerance)의 정신을 모두 모아서 하나로 녹여 인류의 보편적 정치체제로 태어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녹아 있는 용광로 같은 미국에서는 독특한 생활양식이 나타난다. 헌팅턴에 의하면 전통과 역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국에 있어서 정치사상의 빈곤은 부정할 수 없고, 유럽과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하지만,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정치적 이상이 유럽보다 미국에서 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라고 했다(헌팅턴 1999, 22). 미국의 경우, 정치적 이상이 이론적으로는 덜 발전되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영향력은 어느 사회보다도 더 막대하고, 국민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가치와 신념에 대한 관심은 유럽을 능가한다. 특히 미국은 짧은 역사로 인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론과 사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미국의 신조 즉, 미국의 정치사상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예외주의에서 말하는 국민성이 아닌, 그 보다 더 구체적이며 식별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그 무엇, 즉 국민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가치와 신념이 있다고 주장한다. 헌팅턴에 따르면 미국은 신념체계를 지칭하는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이념은 가치간의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교한 방식의 계획이라기보다는 목적과 가치의 복잡하고 부정형적인 혼합물이다(헌팅턴 1999, 24). 그것은 여타의

12) 새뮤얼 헌팅턴 저, 장원석 역, 『미국정치론- 부조화의 패러다임』 (서울: 오름 1999). 헌팅턴은 미국예외주의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인식론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접근하였다.

정치적 이념체계와 구별되는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특징 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런 이유로 결국 그것은 미국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을 다원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포착하여 ‘미국의 신조’라고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헌팅턴은 이러한 미국적 신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국사회의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미국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sup>13)</sup>

이러한 미국적 신조는 크게 두 가지에서 기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근본법의 중세적 이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입헌주의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만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인간은 법률을 발견하였지만 그것을 창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법률은 그것이 신법, 자연법, 관습법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인간의 행동을 위한 규범을 제공하였다. 17세기 유럽은 이러한 전통적 법의 이념이 절대주권과 인간권력 - 그것은 절대군주일 수도 있고 최고의외의 구성원일 수도 있는데 - 의 새로운 이념에 의해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세기에,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근본법의 오래된 이념은 미국대륙으로 수출되어 이곳에서 뿌리를 내렸다.

두 번째는, 미국인의 정치적 세계관에 도덕주의, 천년왕국주의, 개인주의를 부여했던 17세기의 프로테스탄티즘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은 특히 개인적인 양심의 우위, 자유의 정신과 종교의 정신의 밀접한 관계, 자발적 결사로서 집회의 역할, 교회 내부적 민주주의 중요성과 그것의 정치에 대한 합의(“주교가 없으면 군주도 없다”), 종교적 기성권의 포기 등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인구의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파에 속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프로테스탄트의 가치는 18세기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경향을 재강화시켰으며 정치와 사회에 대한 미국적 이념의 윤리적, 도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에 덧붙여, 18세기는 자연권, 자유, 사회계약, 제한정부, 정부의 사회 의존 등 로크주의와 계몽주의의 이념을 첨가시켰다. 최종적으로, 평등의 이념 - 독립선언에서 사회조직을 위한 기초로서 대담하게 표출된 - 은 신분과 지위, 세습적 특권에 근거한 차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존의 관념에 도전하였다. 만약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면 누구나 정치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공직자를 선출할 동등한 권리를 소유해야 한다. 미국의 신조에 있어서 -

13) 미국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삼성, 『세계와 미국』(경기: 한길사 2001) 참조.

프로테스탄티즘적 요소의 한 측면이라 말할 수 있는 - 이러한 평등의 이상은 18세기 말에 민주적이며 혁명적인 조류에 의해서 강화되었다.<sup>14)</sup>

입헌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평등사상 등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타 사회에서도 국민의 다수 혹은 일부가 이들 이념의 다수 혹은 일부를 지지한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도 이들 이념 전부가 미국에서처럼 국민다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지는 못한다(헌팅턴 1999, 25).

이러한 미국의 신조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일례로 헌팅턴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든다(헌팅턴 1999, 26-27). 유럽의 경우 이 두 개의 가치는 대개 본래적으로 적대적이라고 생각되었다. 플라톤 이후 정치이론가들은 평등의 확대가 사회를 동질화, 수평화시키고 전제의 여건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자유의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다. 18세기에 자유는 부르주아적 가치가 되었고 평등은 프롤레타리아의 가치가 되었다. 따라서 18세기에는 평등의 확대가 토지, 신분, 조합의 권리, 자유, 특권을 억압하는 것이었지만, 19세기에는 계약권과 사적 재산권의 규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적 시각은 미국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미국인들 대부분은 평등의 확대가 자유의 종말을 예고할 것이라는 유럽학자들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인들은 “자유와 평등은 사회제도내에서의 주요한 두 개의 미덕이며, 양자는 상호 결합될 때 가장 빛을 발한다.”라는 마이클 왈저의 주장에 동감하였다(Walzer 1973, 408). 미국에서 자유와 평등은 조화 속에서 움직였다. 그것들은 적대적 사회계급의 정치적 가치라기보다는 동일한 중산계급의 정치적 가치로서 대립이 아닌 연합 속에서 발전하였다. 자유라는 18세기의 가치는 평등이라는 19세기의 가치와 신속히 결합되었다.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평등보다는 자유를 우선시 한다. 그러나 다양한 집단들이 양자에 대해서 상이한 무게를 부여하며, 사실상 모든 집단들은 양자 모두에 대해서 높은 지지를 보낸다.<sup>15)</sup> 미국의 정치담론의 지속적 주제는, 특히 경제적 영역에서, 양자를 결합시키려는 노력이었으며 평등 이념은 자유 이념과 공존한다. 어느 하나의 가치를 증진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개 또 다른 가치의 증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졌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 벨은 “유럽의 철학적 대논쟁을 규정하였던 자유와 평등의 긴장 문제는 미국에서 양자를 포괄하는

14) 이러한 미국적 신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새뮤얼 헌팅턴 저, 장원석 역, 『미국정치론- 부조화의 패러다임』 (서울: 오름 1999). 과 새뮤얼 헌팅턴 저, 형선호 역,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경기: 김영사, 2004) 참조.

15)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밀튼 로케치를 들 수 있다. Milton Rokeach,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Free Press, 1973), pp. 191-193 참고.

개인주의에 의해서 해소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Bell 1976, 209).

이러한 특이성은 미국의 사회주의 제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남북전쟁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를 통하여 만들어진 산업프롤레타리아는 유럽의 동시기와 비교될 수 있는 사회주의 운동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위에서 설명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에 압도되어 대중을 상대로한 어떠한 정치적 호소로도 발전하지 못한 채 사장되었다. 봉건주의의 부재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적 가치가 도전을 받기 않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대로 사회주의가 호소력을 갖는 것을 저지시켰다. 사실상, “봉건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헌팅턴 1999, 28).” 이에 덧붙여, 초기 정착자이 성격(특히 비국교도와 분리주의적 종파들), 풍부한 자유토지, 수평적 이동성 기회와 수직적 이동성 기회 등 모든 것이 중산계급의 지배를 촉진시켰다. 농업사회에서 부의 기본적인 형태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않는자, 혹은 많이 소유한자와 적게 소유한자로 영속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미국에는 그러한 구분이 지속되지 않았다. 토지소유의 기회는 매우 현실적이었다. 농업계급의 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고, “자유농민사회”가 일반화됨으로써 미국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극복하고 중산층이 가치와 기준을 광범위하게 보급시킨 상대적 풍요와 이동성의 양상을 목격하였다.

비록 1830년대에 근대세계 최초로 노동자계급 정당이 미국에서 조직되었지만, 산업화는 마르크스주의나 기타 사회주의에 연루된 계급의식적인 노동계급운동은 창출하는데 실패하였다. 이것은 백인 남성의 보통선거실시, 정치제도의 일반적 개방성, 수평적이며, 수직적인 이동성 기회, 인종적 다양성, 노동계급의 지리적 분산,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적 성향 등 복합적 요인의 초래한 결과였다. 평등과 이동성을 강조했다던 후자는 사실상 어느 정도 사회주의의 대체물 역할을 하였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을 위한 세 번째 사회적 기반의 가능성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남부와 동부유럽으로부터 유입된, 농민적 배경을 갖는 다수의 가난한 이민자들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이들 이민자들은, 호프스테터의 주장에 따르면, “토착민인 양키-프로테스탄트의 정치적 전통과 중산층의 생활에 입각한” 지배적 가치나 도덕주의적 열의와 크게 대조되는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독립적 정치행위에 대한 낯설음, 위계와 권위에 대한 친밀감이라는 이민자들의 유럽적 배



정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이주로부터 발생하는 긴급한 요구에 입각해 있었다, 그것은 개인의 정치적 생활이 가족적 필요성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당연시했으며, 정치적, 시민적 관계를 주로 개인적 의리의 관점에서 해석하였고, 추상적 법전과 도덕보다 개인적 충성을 상위가치로 간주하였다. 이민, 보스, 도시 정당조직의 정치생활은 이러한 가치체계에 주로 근거하였다.<sup>16)</sup>

이민자 윤리와 토착민 윤리의 상호작용은 20세기 전반의 미국의 정치 변화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을 제공한다. 이민자의 윤리는 특히 뉴딜시대 동안 미국의 정치 조직과 관행에 그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 도시정치의 가장 중요한 발전은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자신들의 전통적인 에토스를 미국의 전통으로 얼마나 교체했는가의 문제였다. “이민자의 하층계급은 빠른 속도로 중산층에 흡수되었고, 지금도 흡수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유권자의 세계관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중산층은 앵글로색슨의 프로테스탄트적 정치적 이상을 주장해왔고, 중산층에 합류한 사람들은 다른 이상들과 함께 이러한 이상을 수용했기 때문이다(손호철 2002, 117). 점차 ‘새로운 이민자’들은 후보의 출신에 관계없이 프로테스탄트 엘리트들과 오랫동안 결합되었던 지역사회 봉사의 에토스와 공적 미덕을 소유한 후보를 원하게 되었다. 뒤이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정치적 사태는 이러한 분석의 통찰력을 확인해 주었다. 미국정치에 있어서 인종집단의 힘의 증대는 인종윤리의 퇴조와 병행되었다.

정리하여 보면, 헌팅턴의 주장에 따르면, 18세기 말 혹은 19세기 초 이후 미국에는 어떤 근본적인 정치적 가치와 이념이 존재해 왔고, 그것들은 “미국의 신조”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조는 미국사회의 대부분 구성원들에 의해서 폭넓게 지지되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조는 다수 수정되었지만 그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200년 동안 상대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유럽사회의 상황과는 대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신조는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수행중이다. 즉 헌팅턴은 이러한 신조가 미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헌팅턴 1999, 38).

헌팅턴의 주장하는 이러한 신조는 여러 가지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결국 정

16) Richard Hofstadter, *The America political Tradition, 25Th ed.* (New York, Alfred Knopf, 1973), p. 9.

치적 가치는 자유, 평등, 개인주의, 민주주의, 입헌주의와 법의 지배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미국인의 정신 속에서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발전해 왔다(헌팅턴 2000, 107). 이러한 신조 중에서도 특히 인간행위를 규제하는 근본법의 중세적 이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입헌주의와 미국인의 정치적 세계관에 도덕주의, 천년왕국주의, 개인주의를 부여했던 프로테스탄티즘, 그리고 자연권, 자유, 사회계약, 제한정부, 정부의 사회 의존 등 로크주의와 계몽주의의 이념 등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물론 이러한 입헌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평등사상이 미국에서만 존재했던 전유물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이들 이념 전부가 미국에서처럼 국민다수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의 다른 국가들처럼 단순히 한쪽이 우세하면 다른 쪽이 쇠퇴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공존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구성하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미국만의 독특한 성격들을 나타내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상호공존으로 대표되는 미국적 신조는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 내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즉 미국적 신조는 미국에서 일종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했으며, 오랜 시간을 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적 신조는 미국인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이러한 지지로 인해 사회주의를 포함한 기타의 다른 이데올로기들은 그러한 미국적 신조의 영향으로 인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미국만의 예외주의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

### 제3장 고전적 이론에 대한 반론

2장에서 살펴본 미국적 예외주의에 대한 설명방식들이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고전적 해석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최근에는 미국의 노동과 계급정치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었다. 물론 고전적 설명방식들은 여전히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측면이 있다(손호철 2000, 1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

17) 헌팅턴은 이러한 미국적 신조가 분명히 미국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 이는 새뮤얼 헌팅턴(1999): 새뮤얼 헌팅턴(2004) 참조.

은 미국적 예외주의라고 하는 접근방식자체가 지닌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러한 설명방식을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사회주의 부재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에서 오는 비판으로서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부재한 것이 아니고 존재하였으며, 나름의 운동을 펼쳤지만 실패하였다는 주장이다. 즉 그렇기에 미국에서의 예외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것은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던 원인은 무엇인가?’가 아니고 ‘미국에서 한때 성장하던 사회주의가 왜 실패하였는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sup>1)</sup>

다른 하나의 시각은 이러한 미국의 사회주의 실패에 기존의 연구에서 거론되었던 많은 문제들과 더불어 다른 사회적 요인들을 거론하는 재해석적인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을 가하는 대부분이 학자들은 기존의 주장들이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부재의 원인이 설명이 되지 않으며, 그 외에도 정책적인 요인들과 기타 부수적인 사회적 요인들이 이러한 특이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비판과 재해석을 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미국예외주의의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1절 고전적 이론 비판

미국적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의 핵심적 주장은 사회주의 부재에 대한 시각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가 미국에서 실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부재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류라고 비판을 가하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로 포너를 들 수 있다. 포너는 미국에 사회주의가 부재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20세기 초를 예로 들어 사회주의가 한때 미국에서 광범위한 지지층을 확보했음을 지적했다(포너 2006, 167).

포너에 따르면 20세기 초의 미국은 분명히 사회주의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력 또한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는 그러한 증거로 20세기 초반 약 10여 년 동안 미국 사회당이 대중적 지지와 성장 가능성

1)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사회주의 부재를 둘러싼 실재론과 부재론이 대결 구도로 볼 수 있다.  
2) 김진희, “미국적 예외주의, 혹은 ‘쭌바르트식 질문’에 대한 재고찰”, 『미국학 논집』 36-2, 2004, pp. 108-110.



의 측면에서 유럽 각국에 필적했다는 점을 들었다. 포너에 따르면 1910년 미국의 사회당은 이미 주요한 세력으로 등장해 있었다. 1910년 사회당은 미국의 33개 도시에 사회당 출신 시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시, 뉴욕주의 스카네타티시,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시 등은 상당히 강한 사회주의적 성향의 사회당 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뉴욕주와 중서부를 비롯하여 몇몇 주의회에는 사회당 출신 의원이 있었고, 또 연방의회의 하원에도 사회당 출신이 진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1912년에는 데브스가 대통령에 출마하여 일반 투표의 6%를 획득하였다.<sup>3)</sup>

포너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강세를 보였고, 또 미국의 노동운동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즉 포너는 ‘사회주의의 부재’가 아니라, ‘왜 미국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지 못했는지’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포너 2006, 167).

포너는 기존의 미국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들은 유럽과의 관계에서 예외성을 찾아내는 고정된 틀 혹은 그러한 인식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고 비판한다(Foner 2003, 61).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미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변화를 하였기에 그러한 비교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나타났을 경향이나 현상을 근거로 미국의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합의’적인 요소만을 강조하여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일 수밖에 없다.

포너는 미국인들의 국민성 자체가 계급의식이나 사회주의는 물론 어떤 종류의 급진주의에도 적대적이었다는 이러한 ‘합의주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것이다(Foner 2003, 61). 포너는 하츠가 주장하는 미국인들이 ‘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나 사회적 평등을 이루려고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었으며<sup>4)</sup>, 이에 따라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로크식의 개인주의적 관점이 지배하게 되면서 왼쪽의 사회주의도 오른쪽의 보수주의 모두가 개인주의를 상대로는 어떤 성과도 거

3) 김성찬, “미국 노동운동 및 양대 정당과의 관계를 통해 본 인민당의 성쇠”,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 24.

4) 에릭포너, 『에릭포너의 역사란 무엇인가?』 (경기도, 알마, 2006), p. 173. 즉 봉건주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이유로 미국인들이 계급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는 주장, 즉 미국은 사회적 유동성, 개인적 성취, 물질적 소유 따위를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가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매력적인 유토피아를 만들어 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계급 없는 사회를 부르짖었지만 미국인들은 이미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둘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포너에 따르면 하츠의 주장은 미국이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좁은 틀 안에 갇히는 바람에 당대의 사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포너 2006, 173). 즉 하츠는 사회주의나 사회주의의 실패보다는 미국사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적 요소들을 확인하고, 미국 사회의 성격형성을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보았던 기존 해석들을 바로 잡는 데 관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츠가 주장했던 자유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원칙적 동의는 미국사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하츠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사회세력 - 노동자, 흑인, 여성을 포함한 여타 집단 - 의 역사적 경험을 새삼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도태되었다.

합의주의에 입각한 미국 예외주의 이론은 단순히 사회주의가 없다는 '사회주의 부재론'의 시각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미국의 신조'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했다는 고정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시각에서는 계급을 뛰어넘어 전개됐던 운동이며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는 도덕적 의무감에서 시작됐던 미국의 강력한 급진주의 전통을 이해하기가 힘들다.<sup>5)</sup> 결국 합의주의 이론으로는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광범위한 지지층을 끌어 모았던 시기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쯔바르트가 질문을 던졌던 당시의 미국 사회주의에 대해서 학자들은 단순히 운동이 존재한다는 정도만 언급했지만, 사실상 1910년경에만 해도 미국 사회당은 영국 노동당보다 많은 공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쯔바르트의 질문은 제1차 세계대전 전의 미국보다는 영국을 대상으로 던져졌어야 마땅했을 것이다. 결국 왜 지금의 미국 정치에서 사회주의를 찾아 볼 수 없느냐가 아니라 왜 사회주의가 한때 세력을 얻었다가 퇴장 했느냐를 설명해야만 하는 것이다.<sup>6)</sup>

즉 포너는 미국의 사회주의의 문제를 '역사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Foner 2003, 64). 미국의 예외적 상황은 항상 불변이라고 전제하지 말고 미국의 상황이 유럽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띠며 전개되기 시작했던 주요 시기들을 검토하면서 보다 적실성 있는 예외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포너와 유사한 논지에서 윌렌츠는 미국 노동자들이 지녔던 급진주의적 유산을 강조한다(Wilentz 1984, 2). 특히 윌렌츠는 아메리카 혁명기와 그 직후 대두한 '숙련

5) 김진희 (2004), pp. 96-98.

6) 포너의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에릭포너, 『에릭포너의 역사란 무엇인가?』 (경기도, 알마, 2006), p. 167 참조.

공 공화주의’에 주목하는데 그는 쾰바르트, 하츠를 필두로 한 학자들이 부정했던 ‘계급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를 증명하는 사례로서 숙련공 공화주의를 제시한다. 그는 미국적 가치를 ‘단일한 부르주아 자유주의’로 규정했던 과거의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적 가치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나아가 윌렌츠는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수용한 방식에 대해 주목하면서, 흔히 단일한 성격으로 이해되었던 미국적 가치는 다각적 특성과 가능성을 지녔고,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의 원천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윌렌츠는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나타나는 격렬한 전투성을 지적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를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용한다는 가정을 비판했다(김진희 2004, 108-109).

윌렌츠는 이에 더하여 미국의 노동자들과 비교하여 계급의식을 지닌 것으로 상정되었던 유럽 노동자들의 정치성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적 예외주의론을 비판한다(Wilentz 1984, 11-12). 예외주의의 주장자들은 유럽의 노동자들이 ‘이상적인’ 노동계급의식과 사회주의적 정치성향을 지녔다는 가정 하에 미국의 경우를 유럽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윌렌츠는 미국 노동자들이 마르크스주의적 정치운동에 실패했다면, 유럽국가에서도 역시 혁명주의적 프롤레타리아 사회운동은 현실적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Wilentz 1984, 12). 윌렌츠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유럽 노동운동과 정당의 관계를 언급하며, 예외는 미국보다도 쾰바르트의 독일이었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미흡하나마 노동계급 사회당과 유사한 사민당이 전국적 노동계급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윌렌츠는 독일 이외의 서유럽국가에서 대두했던 급진주의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독일 여성노동사를 전공한 놀란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적 예외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Nolan 1997, 769). 미국적 예외주의론은 ‘기업노조주의-노동당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과는 대조되는 이상적 모델을 상정하고, 그 모델은 사회주의 성향의 노조와 사회주의 정당을 통하여 통일적인 계급의식을 발전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놀란은 그 같은 계급형성 유형이나 단일하게 표현된 계급의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놀란은 노동자들의 경제·정치·문화적 요구가 조직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표출되는 유일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한 논지는 포너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서유럽 각국의 좌파 정당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일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형성할 만한 정치적 능력을 사용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포너는 서유럽 좌파 정

당의 “주 관심사는 정확히 말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물의 공평한 분배”라고 지적한다(Foner 2003, 64).

따라서, 윌렌츠는 비교사적 관점에서 미국적 예외주의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Wilentz 1984, 15-16). 윌렌츠의 이런 주장은 이후 졸버그에게서 보다 구체화되어서 나타난다. 졸버그는 “자본주의가 동질의 것이라면, 자본주의가 생명을 부여한 노동계급이 서로 다른 형태를 띠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Zolberg 1986, 425). 그리고 그 질문을 묻는 방식으로 각 국 노동계급이 형성되는 ‘차이의 논리’와 ‘유사성의 논리’를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졸버그는 미국 노동계급의 보수성을 과장하는 경향에 대해 지적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혁명 지향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외주의’로 칭하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의 노동계급이 과연 존재했는가를 반문하면서 졸버그는 미국적 예외주의 자체가 각국의 차이를 과장했다고 주장한다. 졸버그는 모든 국가는 그 자체로 “예외주의적”이며, 그런 점에서 수많은 “예외주의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뿐, 유일한 ‘미국적 예외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김진희 2004, 110-111).

윌렌츠와 포너는 미국적 예외주의를 설명하는 미국의 내적 요인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 미국노동자 내부의 민족적·인종적 다양성은 미국적 예외주의의 주요 설명 방식 중 하나였고, 또한 실제로 그 같은 다양성은 노동자들의 내적 단결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은 그 같은 다양성이 계급의식이나 정치적 사회주의 형성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포너는 민족적 요인을 강조하는 기존 접근방식이 “인종적·민족적 분화가 계급 단결을 방해하는 특정한 상황을 연구하기보다는 단지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노동계급이 경제적·정치적 행위의 단결을 방해했다고 단정”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포너 2006, 178).

미국 프롤레타리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출신 배경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계급을 기준으로 한 단결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함감이 있다. 물론 계급과 종족이 일치하는 노동운동에 힘을 더해주는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이 몇몇 특정 상황에서 흑인 노동자들과 백인 노동자들이 단결을 가져왔던 사례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세계산업노동조합은 20세기 초에 인종적 소



속감이 특정 상황에서는 독특한 형식을 띤 강력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해 전투적이면서 동시에 성공적이었던 일련의 파업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많은 파업이 인종적인 면을 무시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각 집단이 어떤 집단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었던 경우 인종적 유대 때문에 다른 종족집단과 협력하지 않았던 사례는 없었다.<sup>7)</sup>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온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매력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변혁의 대의를 여기서 추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민자들은 결국 부를 획득하게 되면 많은 수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일종의 거래로서 미국의 노동조합에 참가한 일종의 용병이었다. 즉 미국 예외주의 이론은 인종적 분열의 계급적 결속을 가로 막았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밝혀내기보다는 인종적 다양성이 노동계급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단결을 방해했다고 단정해 버린 것이다 (포너 2006, 185).

월렌츠는 종교, 인종, 민족에 의한 분화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나 전투성의 용해제(溶解劑)가 아니었고,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종교·인종·민족은 계급단결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Wilentz 1984, 4).

이는 월렌츠 뿐만 아니고 그를 포함한 신노동사가들 전체적인 시각이었다. 신노동사가들은 인종과 민족이 계급의식과 계급단결의 장애물이었다는 구노동사가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을 하였다. 몽고메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민족 집단에 대한 충성심은 노동자들을 결속시켰고, 개혁과 혁명 이데올로기의 원천을 제공”하기도 했다(Montgomery 1980, 485). 듀보프스키 역시 미국적 예외주의를 야기했다고 거론되었던 구체적 요인들을 유럽과 비교했을 때에 그 차이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9세기와 20세기 유럽사는 노동계급의 공간이동과 직종간 이동 (혹은 계급이동)으로 가득하다(Duofsky 2000, 152).”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은 소위 미국의 임금과 생활상의 월등함의 그리 명백하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단일하고 단결된 노동계급이 형성된 유럽 국가는 거의 없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노동자들은 민족성, 종교, 언어, 그리고 정치에 의해 분절되었다.

신노동사가들은 이같이 ‘쾰바르트식 질문’이 지닌 편견을 넘어 새로운 시각에서 미국 노동사에 접근했다.<sup>8)</sup> 그 결과로 그들은 ‘미국 노동자’에 대한 전형적 시각을

7) Eric Foner, "Why Is There No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History Workshop Journal*, pp. 61-67 참조.

8) 신노동사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elvyn Dubofsky, *The State and Labor in Modern America* (London:

수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미국 노동자들의 경제적 풍요와 미국적 예외주의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가설이다. 먼저, 신노동사가들은 미국 노동자의 전반적 생활수준이 유럽보다 월등히 높다는 가설을 반박했다. 물론, 토박이 백인 남성 숙련 노동자들만을 고려대상으로 할 경우에, 그들이 평균적인 유럽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수준을 영위했던 것은 사실이나, 노동자의 범위를 이민자와 비숙련/반숙련 노동자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경제적 풍요의 가설은 상당히 수정되어야 했다. 나아가, 신노동사가들은 물질적 풍요 자체가 미국적 예외주의를 가져왔다는 가설을 다른 측면에서도 반박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숙련노동자들 역시 노조 조직화와 진보정치의 선두에 있었고, 따라서 경제적 풍요를 누렸던 노동자가 존재했다고 해도 그러한 상황이 미국적 예외주의를 야기한 주요 요인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김진희 2004, 112).

또한, 듀밥스키, 몽고메리, 핑크 등을 비롯한 신노동사가들은 지역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노동자들이 활발한 정치활동을 전개했다는 점을 규명했고, 이로서 그들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유럽 노동자들에 비해서 계급의식이 결여되었거나 비정치적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반박했다. 먼저, 핑크는 19세기 후반에 대두했던 노동계급 급진주의가 미국에 존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핑크에 의하면, 1880년대 중반의 미국 노동운동을 목격했던 동시대인들은 미국의 노동계급이 “조직적 측면이나 노동운동의 격렬함, 그리고 계급의식의 측면에서 유럽의 노동운동보다 앞섰다”고 생각했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커크는 19세기 후반에 미국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격렬한 투쟁의 정도는 “정적(靜的)이며 절대적 개념으로 표현되었던 미국적 예외주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김진희 2004, 112).

이와 같이,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자본주의와 산업화에 대응하는 미국 노동자들의 방식이 실제로 그리 예외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재조명했던 신노동사가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공동체적 저항의 전통을 강조했다. 그들은 1830년대의 노동자당과 숙련공 공화주의, 1877년 대파업,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사회주의자들의 약진, 그리고 1930년대의 대파업의 물결과 연좌농성의 경험을 다루면서 노동자들의 공동체적 경험을 ‘계급’의 이름으로 묘사했

---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4); Montgomery, *Fall of the House of Labor*, Leon Fink, *Workingmen's Democracy: The Knights of Labor and American Politics* (Illinois,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1); Kim Voss, *The Making of American Exceptionalism: The Knights of Labor and Class Form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다. 신노동사가들은 미국 노동자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거나 공동체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가설을 반박하면서, 미국 작업장의 역사는 지속적 투쟁과 계급형성의 역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진희 1999, 29).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미국 노동자들의 단체행위와 파업 참여는 같은 기간의 유럽노동자들보다 더욱 빈번했다는 사실도 신노동사가들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었다. 신노동사가들은 투쟁성과 계급갈동의 구도를 강조했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이 미국 노동자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했다는 하츠의 가설을 거부했다.<sup>9)</sup>

나아가, 신노동사가들은 미국 노동운동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했다. 윌렌츠는 소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서 보수 노조로 알려진 미국노동연맹을 단순히 “경제적 조합주의, 계급 협조, 자본주의적 임금관계의 신성불가침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기주의”로 파악하는 경향을 비판했다(Wilentz 1984, 17). 윌렌츠는 20세기 초반의 미국노동연맹의 투쟁은 자신의 노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노동자들의 요구는 노동을 스스로 규제하는 노동자들의 독점권을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쾨바르트나 펄먼은 노동자들의 이 같은 선언과 행위를 ‘빵과 버터’에 대한 관심밖에 없는 ‘직무의식(job-consciousness)’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미국 전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재산, 독립을 둘러싼 오랜 투쟁의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의 투쟁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들의 요구는 모든 것이 변해도 변치 않는 근본적인 요구였다. 그것은 미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이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노동을 개인 재산으로써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이었다.<sup>10)</sup>

그 같은 시각에서 신노동사가들은 미국노동연맹의 정치 행위를 재해석했다. 비정치성이 부각되었던 미국노동연맹이 미국의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19세기 후반이후에도 실은 미국의 노동운동이 탈정치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핑크와 포너의 연구는 미국노동연맹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지역 차원에서 미국노동연맹의 지부가 정치적 활동에 주력했고, 그런 의미에서 비정치적인 노동운동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Fink 1973, 129).

9) 신노동사가들이 이러한 주장을 잘 설명해 놓은 책으로 하워드 진 레베카 스테포프 공저, 김영진 역, 『하워드 진 살아 있는 미국역사』 (서울: 주수발, 2008) 참조.

10) Sean Wilentz, "Against Exceptionalism: Class Consciousness and the American Labor Movement, 1790-1920,"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26 (Fall 1984). p. 18.

포너와 윌렌츠는 마지막으로 미국적 예외주의가 무엇보다도 ‘부재의 인식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했다. 포너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소머스에 의하면 ‘부재의 인식론’은 이론이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정상적 기준에 맞추어 그에 도달하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비정상성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인식체계이다(Somers 1989, 167). 소머스는 쯔바르트식 질문 자체가 애초부터 미국에 강력한 노동계급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기대로부터 출발하여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설명하려는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부재의 인식론’이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쯔바르트식 질문은 실제 상황이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궤도로부터 이탈된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또한, 쯔바르트식 질문을 제기한 좌파학자들은 문제만 해결한다면 궤도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그 방해원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것인데, 소머스는 이와 같은 비역사적 질문은 왜곡된 역사이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김진희 2004, 113).

윌렌츠 역시 유사한 논지를 전개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 연구를 지양하고 이제는 실제 일어났던 순간들과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Wilentz 1984, 3-4). 윌렌츠는 예외주의적 접근을 고수할 경우, 계급과 노동자들의 의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적 예외주의의 질문이 역사적 맥락과는 상관없이 특정한 계급관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특정 사상을 정상적인 것으로 상정함으로써 비역사적 편견을 갖고 있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윌렌츠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미국노동에 대한 포괄적인 비교사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Wilentz 1984, 4-5).

## 제2절 고전적 이론의 재해석

미국적 예외주의의 비판론자들은 이상적인 노동계급의식을 상정하는 비역사적 접근방식을 탈피하여 노동자들의 구체적 삶의 방식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노동사와 노동자들의 정치성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신노동사가들은 미국 노동자들을 ‘직무의식’에 사로잡힌 비정치적 개인들로 간주했던 전통적 해석을 비판했다.<sup>11)</sup> 그러나 카츠넬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적 예외주의를 부정하는 신노동

11) 구노동사와 신노동사, 그리고 이들의 업적과 한계에 대해서는 김진희, "미국 노동사의 위기와 해결의 모색",



사가들은 예외주의 담론이 지닌 문제점을 답습한 경향이 있다.<sup>12)</sup> 신노동사가들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계급투쟁을 확인하고, 계급을 통하여 미국 노동사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정상성을 상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미국 노동계급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조건하에서 생성된 여타의 프롤레타리아와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망스러운 추상적 이론과 낭만화 된 경험적 행위주의의 슬픈 이중주”였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김진희 2004, 112).

물질적 풍요와 자유로운 계층 이동, 혹은 영속적인 이데올로기로 존재하는 자유주의의 지배로 인한 계급 부재론이 설득력을 잃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계급이 존재함에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했던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형적인 ‘쾨바르트식 질문’이 지닌 문제점을 뛰어 넘어, 단순히 노동계급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노동자들의 구체적 정치적 선택과 삶의 유형을 재조명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조직적 힘은 그 사회의 공공정책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노동계급의 조직적 취약성은 미국적 특이성을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미국 사회와 정책의 특성을 성격지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적 예외주의에 대한 이해는 단지 미국 노동운동을 이해하는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국가 정책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문제가 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적 이해를 표출시켜 왔던 독특한 방식은 지난 시대의 역사적 특성이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남아있다. 미국적 예외주의 논의가 지닌 근본주의적 접근을 탈피하면서도 미국의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13)</sup>

본 장에서도 19세기 후반 이후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꾸준히 정치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요인들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통하여, 미국적 예외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재해석에 대한 시각을

『미국사연구』 10집, 1999, pp. 29-54; David Brody, "The Old Labor History and the New; In Search of an American Working Class," *Labor History* 20 (Winter, 1979), pp. 111-126 참조.

12) 카츠넬슨의 자세한 주장은 Ira Katznelson, "Working-Class Formation and American Exceptionalism, Yet Again," *American Exceptionalism: US Working-Class Formatio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New York: McMillan, 1997), edited by Rick Halpern and Jonathan Morris, pp. 36-55 참조.

13) 김진희 (2004), pp. 113-115.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이후부터 기존의 비판과는 다른 시각에서 미국예외주의에 대한 원인을 새로이 수정 보완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고전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시대적인 변화와 더불어 예외성을 넘어서는 예외성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고전적 연구는 미국의 전통적 이데올로기 혹은 역사적인 성향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기존의 논거를 가지고 미국의 예외적인 현상을 적실성 있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판들도 그러한 문제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60년대 이후의 학자들은 기존의 해석의 타당성을 갖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기타 다른 복합적 원인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며 그러한 부분들을 첨부하여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표출한 대표적인 학자로 미국 사회주의노동사의 대표적인 연구자인 새넌을 들 수 있다. 새넌은 사회주의운동의 제약요인에 대한 질문을 취급하는데 고려해야 할 두 가지 범주를 들고 있다(Shannon 1955, 258). 하나는 사회주의운동권 쪽에서 찾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주의 운동의 임무에 대한 의지부족, 방향 설정의 부적절성, 전략의 실패, 계획의 오류와 행동의 태만 등에 문제를 지적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내적 요인들 외에도 미국사회에는 사회주의자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반사회주의적인 외적 요인들이 있다고 보았다.

먼저, 내적 요인으로서 사회주의운동의 가장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는 그것이 정당으로서 형태를 분명히 하는 것에 실패를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정당들은 그것이 정당인지, 정치적 압력단체인지, 혁명분파인지, 정치모임회인지 그 형태를 정확하게 대중들에게 인식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단지 그 외형이 정당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하였을 뿐, 정당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형태의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실패하였다. 미국정치의 제 1의 법칙 중 하나는 지방과 주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조직을 건설하는 것인데,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들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사회당마저도 밀워키와 오클라호마 등의 몇몇 지방 외에는 정치적 조직을 아예 구성하지 못했다.

기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회주의 정당들은 그 정당의 기본적인 전략인 선거공약에서도 효과적인 형태로 대중들에게 접근 할 수 없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지역문제에는 그들 스스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전국적·국제적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방문제에 대한 이러한 관심의 결여는 미국정치의 근본적 특성의 하나를 무시한 것이었다. 지역 및 지방문제에 관한 양대정당의 입장은 전국문제에 관한 그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충성을 얻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 중요성도 결코 전국적 정책들에 비하여 떨어지지 않았다(우드워드 1981, 268-269).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지방문제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으며, 그것을 알려는 관심조차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주의 정당이 지방 및 주의 입후보자명단을 완전하게 내놓은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특성을 배제하는 사회주의 정당이 무모한 도전은 실패를 기정사실화 했다.

또한 사회주의 정당들은 하나의 당론으로 모든 당원들을 교육하고, 동질화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미국정당의 기본원칙인 상호타협의 묘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미국의 양대정당은 결코 서로 동질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정책은 정당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협상하고 흥정한 타협의 결과이다. 사회주의자들의 동질적인 정당은 선거 이후에도 타협이 가능한 몇 개의 정당이 있는 내각제 하의 유럽 정당체제에서는 가동될 수 있어도, 미국적 상황에서는 맞지 않았다.

새넨은 사회주의 정당들의 또 다른 취약성은 조직노동자들을 자신의 노선 안으로 포용하지 못했고, 그들이 충분히 대중과 의사교류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hannon 1955, 258-259). 미국인들의 다수는 마르크스주의적 전문용어를 이해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하여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을 이끄는 사람들 또한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또한 무능한 사람들이 당요직에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중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넨은 이러한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정당들의 실패는 원칙적으로 그 자신의 결점 때문은 아니었다고 보았다(Shannon 1955, 129). 그들의 실패는 거의 변화할 수 없거나 변화한 것이 없었던 미국사회의 기본적인 전통과 상황에 보다 더 기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외적 결과로서 첫째, 사회주의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제 3당의 발전은 무엇이든 방해하는 여러 형태의 미국 정치체제를 들었다. 미국의 양당제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제 3당은 노선과 관계없이 주요 정당의 하나가 되는 데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에서는 그 외의 서방국가들보다 계급의식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에게 계급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지만, 이런 계급의 성원들은 그들의 계급적 신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혼동하였고, 일원적인 소비에트 국가체제 때문에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러시아 혁명과 그 후의 미·소간의 대립관계는 사회주의자들의 대부분을 반공산주의자로 만들었고, 그것은 사회주의운동을 쇠퇴시키는 한 요인이 되는데 충분했다.

넷째, 미국인들이 보여주는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이상론은 많은 부분 매력적일 수가 없었다.<sup>14)</sup>

새년의 이러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학자는 립셋이다. 립셋은 미국의 예외주의 즉 사회주의 부재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한다(립셋 2006, 114-115). 1851년 엥겔스가 강조하고 그 이후 40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조건, 즉 노동운동의 등장을 방해하는 미국의 특수한 조건은, “부르주아적 조건을 마치 자신의 멋진 이상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이 나라의 필연적으로 급속한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번영”이며, “미국적 신조로서의 성취와 기회 균등 및 능력주의에 대한 강조”등이 그 배경에 작동해 왔다는 것이다. 즉 상대적 풍요로움의 효과가 부르주아 계급의 자산 증대를 넘어 노동자들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립셋은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의 실패에 대한 기존 설명들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이를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두 범주, 즉 사회적인 변수와 관련된 것과 정치체제의 내재적인 변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가 지적하는 사회적 요인은 다음 여덟 가지이다.<sup>15)</sup>

첫째, 새로운 사회로서의 미국, 즉 계급 구분에 따라 정치를 구조화하는 봉건적 전통의 계급 관계 부재이다. 미국은 새로운 국가이자 사회로서 이전의 많은 봉건적 제도와 전통을 결여하고 있고, 그 결과 가장 ‘근대적’이고 순수한 부르주아적 문화를 보유하고 되었다. 결국 이러한 봉건제의 부재로 인하여 엄격한 신분질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계급간의 대립이 없는 가장 민주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주의의 대용물로서 미국주의 그리고 지배적인 공공철학으로서의 자유

14) 이러한 새년이 주장에 대한 자세한 근거는 D. A. Shannon, *The Socialist Party of America*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5), pp. 263-268 참조.

15) S. Martin. Lipset,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pp. 78-82 참조.

주의 전통이다. 미국인들은 이미 미국 사회를 평등주의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셋째, 미국 프로테스탄트의 종파주의적 과거와 혁명적 가치로부터 파생된 개인주의와 반국가주의 가치에 대한 강조이다. 이는 강력한 집단주의적 국가나 복지 국가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미국인들이 생활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토크빌의 견해를 따라 그 역시 미국에서 종교가 활력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세속적인 정치 제도와 확립된 국교의 부재 및 “끊임없는 파편화”의 결과로 파악했다. 그 결과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분파주의 역시 만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성공적인 미국의 급진운동세력이었던 1차 대전 이전의 사회주의 정당은 민주 국가들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른 사회주의 정당들보다 훨씬 더 교조적이었다. 그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수하고 독특한 사회주의 정당의 미덕을 고집하면서 노동자 정당 내의 노동조합들과 연합하거나 주요 정당들 내의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다. 결국 그러한 결정은 미국인들에게 사회주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넷째, 생활수준, 특히 노동자 계층이 영위하는 생활수준의 꾸준한 향상이 미친 영향 - 쾨바르트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는 구운 쇠고기와 애플파이 앞에서 수포로 돌아갔다(Sombart 1976, 17).” - 미국은 적어도 남북전쟁 이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미국에는 다양한 소비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그러한 결과로 저소득 노동계급층 조차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미 만족을 하고 있는 노동계급에게 혁명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다섯째, 주변화 된 집단의 정치적 고립화와 낮은 투표율이다. 갈브레이스가 지적하듯이, 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상대적 소득 수준 저하가 편모가정, 불법 이민자, 일부 소수 민족 집단 등 주변화 된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투표율도 낮다(Galbraith 1996, 17).

여섯째, 생산성이 증가하고 교육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 상승의 기회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기회는 감소하지 않았다. 사회적·경제적 상승의 잠재력은 아마도 미국 역사의 어느 때보다 2차 대전 이후에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은 소수인종으로서의 흑인을 제외하면 엄격한 세습적 계급이라는 관념을 수용한



적이 결코 없으며, 나아가 최근 수십 년 동안에서는 흑인들조차 이러한 관념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근면, 야망, 교육 및 능력이 사회적 배경보다 성공을 위해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최근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3/4에 달하는 미국인들의 자신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킬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유럽인들은 2/5만이 그와 같은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성향에서는 미국인이 유럽인보다 더 강하다. 성취와 기회 균등 및 능력주의에 대한 강조는 미국 역사에서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학교를 지지하는 배경이 된다. 결국 유럽의 엘리트 고등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레 계급분화가 이루어진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미국국민들이 양질의 공립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계급분화의 과정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미국적 신조는 기회 균등과 능력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그 신조는 모든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성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가정한다. 결국 미국인들은 기회의 균등이 전제 되어 있다면 자신들의 결과적 불평등은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일곱째, 계급의식 형성의 방해 요인으로서 지리적 이동 성향과 안정된 공동체적 기반의 결여 되었다는 점이다. 지리적 이동성에 대한 역사학자와 사회과학자의 최근 연구는 “미국 노동 계급의 두드러진 변동성”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으며, 지리적 이동 성향과 안정된 공동체적 기반의 결여를 계급의식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재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민족·다인종·다문화적 이주민 사회 형성에 따른 결과이다.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이 미국 태생 백인의 지위 상승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구 통계 자료는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민자들이 하위 계층으로 미숙련·저임금 노동자를 채웠고, 그 덕택으로 이민자들의 자녀와 3세대 이상의 미국 태생 후손들이 더 특권적인 지위를 차지 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흑인, 멕시코인, 푸에토리코인, 나아가 다양한 제3세계로부터 온 새로운 이민자들이 과거 유럽 이주민들이 떠맡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태생 백인들은 생산성 증대 이상의 혜택(즉,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게 된다.

또한 민족적·종교적·인종적 차원의 분화는 노동 계급의 파편화를 유도하고 계급의식에 기반을 둔 정치의 성장을 지체시켰다. 18세기 말 이래 상당 비율의 노동 계급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1차 대전 이전에 교회가 노동자와 노조 운동가들 사이

에서 사회주의의 호소력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sup>16)</sup>

립셋은 이러한 고전적 설명들이 분명히 예외주의를 설명하는 주요한 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립셋 2006, 116-117).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인 해석들만으로 예외주의의 본질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미국 내의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외주의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립셋이 주장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17)</sup>

첫째, 거저 얻은 선물로서의 투표권이다. 레닌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강조한 바 있는 거저 얻은 ‘선물로서의 투표권’, 필만이 지적하듯이, 미국의 대중들은 스스로 계급정당을 조직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투표권을 얻었다. 반면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주의 정당들은 선거권이 보편화되기 전에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레닌은 사회주의가 선거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통해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참정권은 사회주의 운동 이전에 부여되었다.

둘째, 행정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만 부여되고 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연합적인 양당 구도로 전개되도록 만든 헌정 및 선거체제이다. 행정권력이 대통령 단 한사람에게만 부여되고 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연합적인 양당구도로 전개되도록 만든 헌정 및 선거 체계는 제 3당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점진적인 노력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런 결과는 연합적인 양당 체계 속에서 헌법에 의해 거의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후보 지명을 위한 예비 선거제도의 확산이 이러한 요인들 강화했다.

셋째, 대체로 대중운동 그리고 제3의 정당 형태로 명백하게 표출되는 만연된 불만을 흡수하거나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적인 야당체제의 유연성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주요 정당이 이의를 제기하는 세력들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그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양당은 거의 변함없이 그러한 식으로 사회 운동에 대응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긴장과 급진 정당이 제도화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기반을 약화시켰다. 예비선거 제도는 정치 집단들이 양당 체제에 맞서기보다는 그 틀 속에서 활동하도록 고무한다.

마지막은 급진적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급진적인 저항이 지속되는 것을

16) 립셋의 주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근거는 세이무어 마틴 립셋 저, 문지영 외 역, 『미국 예외주의』(서울: 후마니타스, 2006), pp. 106-110 참조.

17) S. Martin. Lipset,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pp. 84-86 참조.

분쇄하기 위해 무정부주의적 노동조합 운동 및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 그러나 그러한 급진적 운동에 대한 탄압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훨씬 더 강력했는데, 유럽에서는 그러한 탄압이 거대한 좌파 정당 가운데 일부는 독일 사민당이나 차르 체제에서의 러시아 혁명가들처럼 불법화된 상황에서도 곳곳이 성장했던 것이다.<sup>18)</sup>

19세기 말 이래로 사회주의자들을 괴롭혔던 이 수수께끼,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회의와 곤혹스러움은 ‘미국의 특이성’과 그 차이의 속성이라는 문제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한다. 이 영역은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이른바 ‘예외주의 미국’의 실체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 예외주의’는 그동안 두 가지 코드로 읽혀왔다. 앞서 본 사회주의 운동의 부재와 관련된 것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미국이 그 독특한 기원과 국가적 신조, 역사 발전과정, 정치 및 종교 제도로 인해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관념으로서의 미국 예외주의이다.<sup>19)</sup>

립셋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도 이 후자의 영역이며,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운동의 부재를 설명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립셋은 미국 예외주의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덜 복지 지향적이고, 덜 국가주의적이며, 더 방임주의적이고, 더 권리지향적이고 더 애국적이며, 더 도덕주의적이고 종교적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그는 이러한 특성이 ‘미국적 신조’라고 불리는 미국인의 가치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미국적 신조란 자유, 평등주의, 개인주의, 포폴리즘, 자유방임주의 등 다섯 개념으로 압축되며, 이러한 미국인의 가치체계는 미국의 독특한 기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립셋 2006, 115).

즉 미국은 무엇보다 “혁명적 사건으로 출발한, 그리하여 독립에 성공한 최초의 식민지, 최초의 신생국가”라는 점에서 ‘예외적’인 나라이며, 결국 미국 예외주의는 새로운 사회로서 미국이 봉건적 구조, 군주제 및 귀족주의 문화, 사회적 위계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않았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이다(립셋 2006, 114).

한편 미국 예외주의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미국적 가치는 매우 복합적

18) 립셋의 주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근거는 세이무어 마틴 립셋, (Lipset 2006) pp. 111-114. 참조.

19) 립셋은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인식을 이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 또한 고전적 학자들과의 상당히 차이를 나타낸다. S. Martin. Lipset,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참조.

이라는 진단과 함께 립셋이 그것을 ‘양날의 칼’과 같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예외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낫다거나 우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다른 나라들과 질적으로 다르게 발전해왔음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Lipset 1997, 198).

그에 따르면 미국 예외주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전의 양면처럼 모두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특성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미국은 최선이 되기도 하고 최악이 되기도 한다.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바로 이 다양한 가치관들, 최선과 최악의 공존과 갈등을 통해 오늘의 미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립셋은 미국적 가치의 다양하고 이중적인 측면을 부정하고 오히려 국민적·국가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갈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가령 소득불평등, 높은 범죄율, 낮은 수준의 선거참여, 모든 것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려는 강력한 경향들, 그리하여 때로 정치적·윤리적 소수자들에게 거의 관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경향과 같이 오늘날 미국사회를 특징짓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개방적인 민주사회의 규범 및 행태와 내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정치적 분위기와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기반한 경제적 풍요는 미국적 신조를 기반으로 성취된 미국적 예외주의의 가장 밝은 면모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예외주의는 높은 수준의 개인적 책임감, 독립적인 진취성, 자원봉사 문화를 함양하는 반면에, 이기적인 행동과 원자론적 분열, 공동선에 대한 경시와 전통적인 형식의 공동체적 도덕에 대한 위협 역시 조장한다는 것이다(립셋 2006, 118-119).

#### 제4장 미국 사회주의운동의 분석<sup>1)</sup>

사회주의 운동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노동자 운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마르크스 전(前)시대에도 분명 노동운동이 존재했지만, 마르크스가 노동운동의 목표<sup>2)</sup>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이유로 이후 사회주의운동이라 함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노동

1) 김동근, “미국 사회주의운동의 제약요인”,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1993, III장과 김동근,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대구: 정림사, 2005), 제 1장을 참고하였음.

2)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저, 송병헌 역,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서울: 책세상, 2002), pp. 132-135 참조. 마르크스가 노동운동에 선사한 ‘과학적 사회주의’는 노동운동의 목표가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며, 권력 장악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었다.

운동을 지칭하게 되었다(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1990, 167).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정당은 노동자의 요구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적 수단이라는 동일성을 갖지만, 정치투쟁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갖는다. 그러한 이유로 노동운동은 일정한 조건<sup>3)</sup> 하에서는 정치영역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 미국 사회주의운동 또한 이러한 주장과 같이 노동운동에서 시작하여 정당운동으로 전이되었다(박창규 1996, 10). 그러나 유럽의 노동운동의 정당운동으로 전이하여 순조롭게 성장하여 나아가면, 미국의 노동운동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이과정 이후의 노동운동 형태 또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제약 원인을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미 2, 3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이론들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장에서는 미국사회주의 운동의 전개과정을 정당운동과 노조운동 및 사회운동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제1절 정당운동

마르크스주의가 최초로 미국에 들어 온 것은 유럽의 이민자들 가운데 독일계를 통해서였다. 그것은 특히 유럽에서 1848년 혁명이 실패한 뒤에 이주한 숙련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조직적 운동으로서 미국에서는 사회주의를 처음 시작한 셈이었다(Draper 1966, 11). 이들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은 1851년에 미국으로 온 마르크스의 친구 위드마이어였는데, 맥릴런은 그가 바로 미국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보고 있다(McLellan 1986, 423). 1853년, 그는 뉴욕시에다가 미국노동자동맹(American Worker's League)을 조직하였다. 정당과 노동조합의 절충형태였던 이 조직의 목적은 사회주의의 기반 위에서 노동조건을 직접 개선하는 데 있었고, 그 강령은 비교적 온건한 내용들이었다(Forster 1968, 32). 그 후 1857년의 경제위기를 맞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1858년 10월, 뉴욕에서 공산주의자 클럽(Communist Club)을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미국 사회주의 정당이 모체가 되었다(포스터 1988, 61).

당시 미국의 사회주의운동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실천방안에 따라 세 가지 유파로 나뉘어 전개되었다(Lens 1982, 162). 그 하나는 독일의 라살레의 추종자들이

3) 도서출판 인간편집실, 『간추린 한국노동운동사』(서울: 인간, 1985), pp. 33-38. 민주주의하에서 노동자들의 보다 강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투쟁을 지속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정치운동으로 변모를 할 필요가 있다.



었다.<sup>4)</sup>

1874년, 그간 활동해 오던 제 1 인터내셔널이 분열하여 시카고에서 일리노이 노동당과 뉴욕에서 북미사회민주노동자당(Social Democratic Workingmen's Party of North America)을 창설하였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규모로는 최초의 사회주의정당이였다. 1876년 7월에는 이러한 미국 내 여러 파의 사회주의자들이 라살레파를 중심으로 모여서 미국노동자당으로 통합 재편성되었다가<sup>5)</sup>, 이듬해인 1877년, 그것은 북미사회주의노동당(Socialist Labor Party of North America: 사회주의노동당)으로 개칭하였다. 이러한 통합의 분위기를 한층 촉진 시킨 것은 1875년 5월 독일 고타 대회에서 마르크스파와 라살레파가 통합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sup>6)</sup> 이들은 통합 후 강력한 독일사회주의민중당의 선거운동을 모방하였으며, 시카고와 세인트 루이스의 지방자치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내기도 했다. 사회주의노동당은 1879년 이후의 번영의 물결과 함께 쇠퇴하였지만, 1876년의 제 1 인터내셔널의 해체로부터 1901년의 사회당 창설 때까지 미국 사회주의정당운동의 중심점이였다(이경원 2005, 127).

또 다른 한 파는 국가란 어떤 종류든 간에 적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의 바쿠닌의 추종자들이였다. 1883년 10월, 그들은 무정부주의자와 좌파 사회주의자의 연합체로 국제노동인민협회(International Working People's Association)를 창설하였는데, 이 조직의 강력한 활동으로 인하여 사회주의노동당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바쿠닌 파는 그 후 1886년의 헤이마켓 사건을 주도하였다가 지도부가 극형을 받는 등의 탄압 끝에 시들어졌다.

4) 양호민(외), 『공산주의비판』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1), p. 252: 윌리엄 Z. 포스터 저, 동녘 역, 『세계사회주의운동사 I』 (서울: 동녘, 1988), pp. 54-126 참조. 라살레는 역사관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와 일치하였지만, 그의 '임금철칙설'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반대하고 노동계급을 해방시키는 길로서 정부의 보조를 받는 생산자협동조합을 무수히 만들어서 자본주의체제와 대체시키려는 정부활동을 증시하는 개량주의자였다.

5) 김동근, 1993, p. 26. 사회주의노동당의 기풍과 전략의 기본 윤곽을 개발한 공로자는 1890년부터 1914년에 이르기까지 지도자의 지위를 누린 드 레온이였다. 그는 당의 기관지 『인민』의 편집인으로서, 당의 마르크스주의를 농민적인 인민주의운동이나 중산계급적인 유토피아주의와 타협시키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격했다. 그는 초기에는 비정치적 노동조합주의를 반대하고 노조와 선거운동의 현명한 결합을 주장하였으나, 후에는 자본주의와는 어떤 타협도 배제한 사회혁명을 주장했는데, 그것은 미국 사회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믿는 그의 낙관적 견해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었다. 드 레온에게는 자본주의의 전복을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정당은 그의 적이였다. 1892년에 결성된 인민당의 인민주의운동도 당시의 탁월한 개혁운동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 운동은 단지 "중간계급의 부패"에 불과했다. 당세의 절정은 1892년의 대통령후보자 결정 선거에서 21,512표를 얻었을 때였으나, 그 현실적인 영향력은 훗날의 사회당이나 공산당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셈이였다.

D. Herreshof, *The Origins of American Marxism* (New York, 1967), p.136. 드 레온은 1904년 제 2 인터내셔널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어느 나라도 이 나라(미국)만큼 마르크스적 혁명전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무르익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6) 윌리엄 Z. 포스터 저, 동녘 역, 『세계사회주의운동사 I』 (서울: 동녘, 1988), p. 128. 당시의 사회주의노동당의 지지세력은 대체로 독일계 노동자들이였는데, 주요 토대로는 조르게와 위드마이어가 이끄는 국제노동자협회의 세력과 스트래서, 맥파이어, 파슨즈 등이 지도하는 라살레파 세력의 조직적 통일이었다.

나머지 한 파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다. 당시의 제 1 인터내셔널은 1872년 9월에  
 엥겔스의 제안에 따라 그 본부를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기고 조르게를 사무총장으로  
 하여 그 부흥을 도모했지만<sup>7)</sup>, 미국 내의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주변적 위치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sup>8)</sup>

1897년 미국철도조합은 테브즈의 사회주의노선을 따라 발전적 해체를 하여 미국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of America)을 창설하였다. 신당의 강령은 사  
 회주의노동당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매우 적게 받았다. 그것은 경제제도  
 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개혁을 중시하였고, 특히 독점의 폐지와 재산의 공유, 공공  
 사업의 실시, 노동일수의 단축 등을 주장하였다. 이렇게 구체화된 테브즈의 노선은  
 상당한지지 세력을 얻었다. 그 해 8월에는 우파 사회주의자인 버거와 밀워키의 독  
 립파가 합세하고, 이듬해에는 사회주의노동당에서 개량주의적, 혹은 실용주의적노선  
 의 힐퀴트 일파와 ‘유태인 직인단체연합’이 드 레온의 과격노선에 불만을 품고 탈퇴  
 하여 사회민주당에 가입해 왔다.

드디어, 1901년 여름에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사회민주당과 그 연합세력들이 미  
 국사회당을 창설하였다. 그들은 나아가서 서부의 광원들과 인민당 및 기독교사회주  
 의자협회의 분파들을 포용하였고, 최초로 흑인을 정당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광범한  
 계층의 연합으로 미국정치사상 좌익정당으로서는 최고의 성장을 하였다.<sup>9)</sup>

그들은 노조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저명한 지식인들을 포섭하였다. 지

7) 김동근 (1993), p. 26. 엥겔스가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 명확히 했듯이 인터내셔널을 뉴욕으로 옮기는 것은  
 절실한 당면 요구에서 나온 것이었다. 인터내셔널을 뉴욕으로 옮기는 의안의 제안 이유에서 명확히 했듯이 인  
 터내셔널의 상태는 안팎의 모든 사정으로 이제 유럽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데까지 와 있었던 것이  
 다.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위험은 그 조직의 바쿠닌파나 블랑키파에게 탈취되어 그들의  
 분파적인 사업에 이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 아래서는 본부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 이외에는 실제  
 로 다른 길이 없었다. 미국이라면 젊음에 넘친 미국 노동운동 속에서 인터내셔널이 강력한 근거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8) 윌리엄 Z. 포스터 저, 동녘 역, 『세계사회주의운동사 II』 (서울: 동녘, 1987), pp. 121-122 참고. 미국공산당  
 당수를 지낸 W. Z. Foster는 Foner의 *History of the labor movement*, vol 1, p.413을 인용하여, 이 조직  
 이 “상당수의 지방조직을 갖추고 약 30개의 지부를 두어 회원이 5000여명에 달했으며... 그중 미국지부는 제  
 1 인터내셔널의 조직 중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였지만, 당시 미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본다면 그 규모  
 는 보잘 것 없었다.

9) 김동근,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대구: 정림사, 2005), p. 18. 당시 사회당은 실현 가능한 개혁을  
 내걸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크게 성장한 것이었다. 그 최고 지도자인 테브즈는 그 후 연속 출마하나 대통령선  
 거에 1900년의 사회민주당 때는 불과 95,000표이던 것이, 1904년에는 40만표, 1908년에는 42만표, 1912년  
 에는 90만표(총투표율의 6%)를 획득하는 경이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 당원 수는 10여년 만에 118,000명으로  
 늘어났으며 연방 및 지방정부에다 약 1,200명의 공직자를 당선시켰다. 1910년, 밀워키에서는 시델(Emil  
 Seidel)을 시장에 당선시켰고 버거를 연방하원의원으로 보냈으며, 또 1920년에는 뉴욕시에서도 런던을 연방  
 하원의원으로 보내는 등, 그 때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는 연방의회에는 한두명의 사회당의원이 계속 활동하  
 고 있었다. 1916년에는, 사회당계 잡지가 42개종에 달하였으며, 그 중 『이성의 호소』는 50만부, 『전  
 진』은 20만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었고, 사회당 자체의 교육기관과 출판사도 소유하고 있었다.

식인들은 당시의 사회적인 부조리·부패, 노동자·농민들의 착취와 빈곤상을 고발하고 풍자한 폭로작품 및 보고서를 만들어 내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사회당은 노조운동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노총에 대한 ‘내부와해공작’을 통하여 상당수의 직능별노조 및 지역노조들을 포섭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른 정향의 노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워드와 로젠버쉬는 기독교사회주의자협회(Christian Socialist Fellowship)를 창설하였고, 1905년에는 싱클레어의 주도로 최초의 전국적인 사회주의 학생조직인 대학사회주의자협회가 조직되었다. 대학사회주의자협회는 행동단체라기 보다는 사회주의교육을 위한 단체였으나, 이후 전국적 정치권의 지도적인 많은 인물들이 이 단체에서 나왔다.

같은 해, 흑인민권운동 지도자인 듀보아가 주도하여 전국유색인지위향상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를 결성하였다. 또 1913년에는 대학사회주의자 협회와 협력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사회주의청년동맹(Young People's Socialist League)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나자, ‘세계 산업노동자 동맹’은 전쟁을 반대하는 단호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전쟁을 저주하며, 그러한 전쟁을 막기 위해 평화시에는 반군사적인 선전을 벌려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을 촉진하고, 전시에는 모든 산업에서 총파업을 단행한다.”

‘미국노동총동맹’ 산하 노동자들도 치솟는 물가에 비해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자 전쟁에 대한 불만이 커져 갔다. 1917년에 4450건의 파업이 있었는데, 이에 관련된 노동자는 230만 명이 넘었다. 파업은 반역이라고 신문과 고용주들이 연일 떠들었지만, 그들 대부분은 견뎌냈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주의운동단체들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입장으로 각기 분열되기 시작했다. 당시 감퍼즈는 열렬한 평화 지지 연설을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다가, 1917년 6월에 와서는 그 입장을 뒤집어서, 반전단체인 미국민주평화인민평의회(People's Council of America for Democracy and peace)에 대한 견제세력인 미국노동민주동맹(American Alliance for Labor and Democracy)을 창설하여 노총의 적극적인 참전지지를 맹세하였다.<sup>10)</sup> 그러나 ‘광산 노동자연합’, ‘인쇄노조’, ‘여성 의류노조’ ‘이발사 노조’ 등은 1917년 6

10) D. A. Shannon, *The Socialist Party of America: A Histor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5), pp. 117-118. Gompers 일파는 그의 세력을 이용하여 People's Council을 계속 방해하였는데, Morris Hillquit 등은 그가 이러한 활동의 이면에서 Wilson 대통령의 “비밀자금”을 제공받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월 12일 감퍼즈가 소집한 전쟁지지 노동조합 회의의 참석을 거부했다. 또한 여전히 다수의 노조 지부, 시 노조협의회, 주 노조연합회에도 강력한 반전 기운이 차있었다. 참전이 선포된 다음날인 4월 7일 10만명의 당원을 가진 사회당은 세인트루이스에서 긴급 전당대회를 개최해 전쟁을 저주한다고 알렸다. 또한 사회당은 상원의원 노리스와 라 플레트와 같은 노선을 취해 참전은 약탈적인 자본가들이 선동했다고 선언했다. 즉 그것은 미국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끝까지 반전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사회당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사회당은 1914년 사회당 집행위원회에서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를 재확인하면서 전쟁지지자의 축출을 당헌에 부가 규정하였고, 세인트 루이스 선언(Saint Louis Manifesto of the Socialist Party)을 통하여 “ 전 세계의 국제주의와 노동계급 연대의 원리에 전심전력 할 것이며…… 미국정부가 방금 선언한 전쟁에 대한 불변의 반대를 주장한다.”고 보다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곧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에 부닥쳤다. 연이은 검거와 체포 선봉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1917년 9월 5일 전국의 ‘세계산업노동조자 동맹, 사무실은 법무성과 지방 자경당원의 습격을 받았다. 며칠 후 사회당 중앙당사가 습격당했고, 수십 개의 신문이 탄압을 받았다(보이어 1996, 237). 이후 미국이 참전하고,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미국인들의 애국심과 좌파에 대한 공포심이 전국을 덮어버렸다. 1917년 6월에 통과된 방첩법(Espionage Act)은 신문 검열, 우편물내용 간섭, 징집 및 병무방해자의 기소(여기에는 반전연설도 포함시켰다) 등의 규정을 만들었고, 많은 주들이 사회소란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당의 대부분의 간부들은 방첩법을 적용하여 갖가지 죄목으로 체포되었으며, 특히 헤이우드는 그로인해 복역한 뒤에는 소련으로 망명해 버렸다.

그러한 탄압 국면의 전환기를 제공한 것은 1917년의 러시아 공산혁명이었다. 소련의 혁명은 지리멸렬상태로 빠져 들어가던 사회주의자들에게 재규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주었다. 대전후의 사회주의 운동의 전망은 매우 밝게 느껴졌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또 다시 좌경화의 길을 걷어가는 것 같았다.<sup>11)</sup> 볼셰비키 혁명이 공공연하게 찬양되었고, 힐퀴트 같은 사회당의 중도파 지도자까지도

11) 김동근 (1993), p. 31. 좌파는 1918년 11월 공산주의선전동맹을 창설하였다. 그들은 대변자로 『혁명시대』를 발행했고, 그 편집자로는 혁명사회주의자인 프레이너(Louis Fraina)를 선정하였다. 이 기간동안 『미국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활동하는 소비에트들』,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 등의 레닌의 서간문이나 저작들이 미국에서 출판되면서 좌파의 이념 형성에 한층 더 도움을 주었다.



신생 소비에트 공화국을 “민주주의와 사회진보의 전위”라고 극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움직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회당은 제 3인터내셔널 가입에 대한 당내의 입장차이로 인하여<sup>12)</sup>, 곧 사분오열되었고 결국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양분되고 만다.<sup>13)</sup>

1919년 9월 1일, 드디어 좌파는 사회당을 떠나 미국공산당을 창설하였다.<sup>14)</sup> 그 지도자는 프레이너와 러던버그였다. 공산당은 이후 미국의 사회주의운동에 있어서 극좌세력의 결집체<sup>15)</sup>로서 그 모체였던 사회당과의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sup>16)</sup>

좌파들은 그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별도의 노력을 계속하여 1921년 5월에는 노동자평의회(Worker's Council)를, 7월에는 미국노동동맹(American labor Alliance)을 결성했다. 또한 그 해 12월, 미국노동자당(Worker's Party of America)을 창설하고 러던버그를 총서기로 선출 하였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폐지, 노동자공화국의 건설,

12) 김동근 (1993), p. 32. 인류역사상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정부를 수립한 소련은 제 3 인터내셔널이라는 외곽 단체를 통하여 미국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의 소비에트 체제 구축문제, 제 3 인터내셔널 가입문제, 선거 계속참여문제 등은 사회당의 기본노선을 좌우할 큰 문제였고, 이러한 쟁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 끝에 1919년 봄에 당은 사분오열이 되어 버렸다. 제 3 인터내셔널은 1920년의 제 2차 총회에서 불세비키형의 공산당이 될 것을 요구하는 유명한 ‘21개조의 가입조건’을 제시했다. 이 때 좌파는 그 가입을 주장하였는데, 사회당의 가입신청은 코민테른의 지도자 지노비예프에 의해 미국사회당이 “미국 부르주아 계급의 보조기구”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에 당을 주도하고 있던 힐퀴트 등의 중도파는 1922년 클리브랜드 총회에서 제 2 인터내셔널의 잔여단체인 비엔나 그룹에 가입하기로 .

13) 김동근 (1993). 1919년 2월, 『혁명시대』는 ‘좌익선언 및 강령’(Left Wing manifesto and Program)의 발표를 통하여 사회당의 오류를 맹렬히 비난하였는데, 이것은 사회당에서 공산당이 분열해 나간 이유를 살펴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 선언서는 사회당이 세계대전을 “내전-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전환시키는 데 실패하였다고 비난하는 한편,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대중적 행동”에 의한 자본주의 국가의 전복과 “소비에트 연합(Federated Soviet)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그들의 강령은 자신들이 사회당의 본연의 과업으로 여기는 것, 즉 노동자의 산업 통제, 모든 국가적 부채의 지불 거부, 모든 은행과 철도의 몰수와 해외무역의 사회화, 산업별 조합주의의 지지, 감퍼즈 노선과의 투쟁, 러시아 혁명의 지지, 그리고 코민테른에의 가입 등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사회당이 자신의 ‘당면요구’들을 폐기하고 오직 자본주의의 전복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의 수립을 위해서만 선포해야 하며, 나아가서 불세비키와 독일 스파르타쿠스탄(German Spartacans)과 합병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여기서 우리는 좌파노선이 전쟁 전에는 생디칼리즘 성격을 강하게 유지해 왔지만, 이 강령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성격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김동근 (1993), p. 33 그 전날 공산당보다는 소규모인 공산주의노동당(Communist Labor Party)이 별도로 조직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토착 미국인들로 구성되었고, 리이드와 기틀로우가 지도자였다.이 두 당은 그 강령이 유사하고 둘 다 그 뒤 코민테른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개인적인 원한과 상호불신 때문에 분리 창당된 것이다.

15) 김동근 (1993), p.34 공산당의 창설로 그 때까지의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은 이 조직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었는데, 세계산업노동자연맹(Young Communist League, 1922년 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분리 창설), 그리고 노동조합교육동맹(Trade Union Educational League) 등이 공산당 안으로 들어왔다.

16) 이때 채택한 그들의 선언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미국공산당은 노동계급의 당이다. 공산당은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노동자의 산업공화국을 조직화 할 것은 목표로 한다...공산당만이 혁명적 대중투쟁으로 하여금 국가 권력을 정복할 수 있도록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동원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은 본질적으로 정치 투쟁이다.”



소련정부의 승인, 사회주의 선동을 위한 의회정치에의 참여 등을 강령으로 하였다. 1923년 4월, 공산당은 노동자당과의 완전한 합병을 선언하였고, 1925년 대회에서 당명을 노동자공산당으로 바꾸었다가, 1930년 마침내 미국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United States)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사회당은 극좌파의 탈당과 보수파들의 억압적 행동들 때문에 당원 수는 심하게 감소되었고 일부 주에서는 거의 절멸상태에 빠진 곳도 나왔다. 1918-1919년間に 소비에트 혁명의 와중에서 중동부 유럽으로 건너 온 이민들이 대거 입당한 덕분에 당원수를 108,504명으로 불린 적도 있었지만, 공산당의 창당과 함께 많은 당원들이 탈당한 나머지 1920년에는 당비 납부 당원 수는 26,766명으로 격감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회당은 진보주의세력들과의 연합을 모색하게 되었고, 1922년 2월 시카고에서 인민주의, 진보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적 유사조직들을 포용하여 진보정치활동협의회(Conference for Progressive Action)을 창설하였다. 1923년 7월, 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정치세력들은 노동자·농민의 연대세력인 농노연합당(Federated Farmer-Labor Party)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권익옹호와, 모든 공공시설과 사회적 수단의 국유화, 노동자·농민에 의한 경제운영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24년의 진보정치활동협의회 총회는 라펠레트 연방 상원의원을 대통령후보에, 민주당 출신의 윌러 상원의원을 부통령후보에 각각 지명하였고, 사회당의 우경화는 더욱 뚜렷해졌다.<sup>17)</sup>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사회당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여 1932년 이후에는 1908년의 당세에 비교할 만한 상태로 재건되었다. 30년대 미국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 노먼 토머스는 미국 자본주의 구조의 실질적인 개혁을 주창하며 193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다. 선거운동에서 토머스는 루즈벨트의 뉴딜을 맹렬히 비판하였지만, 그들의 비판은 오히려 민주당에 의해 대부분이 수렴되어져, 정부정책으로 거듭났다. 루즈벨트의 취임 이후에는 이러한 원인들도 인해 탈당자의 수가 늘어났다. 위스콘신주 상원의원인 던컨, 대학사회주의자협회 지도자였던 싱클레어, 후에 민주당의 연방하원의원이 된 부어히스 등 상당수의 지도급 인사들이 민주당 등으로 이적하였

17) 이후 사회당은 1924년의 대통령 선거운동과 함께 더욱 약화되었고, 해외태생 당원들은 공산당 그룹에 합병하였다. 이 때 사회당의 와해에 공헌한 요인들은 세계대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데브즈가 미국 참전 반대 때문에 근 3년간 어틀랜타 형무소에 수감된 것 등이었다. 1919년에는 근 12만 명의 당비납부 당원들이 있었는데, 1923년 5월의 뉴욕 총회의 당원 수는 12,474명으로 떨어졌다. 또 대통령선거에서는 1912년의 데브즈가 근 90만 표를 얻었는데 대해서, 1916년의 벤슨(Allan Benson)은 단지 585,113표만 모을 수가 있었으며, 1912년에는 1백 명의 사회당 출신 공직자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1923년에는 5명으로 줄었다.

다. 또, 노동운동지원법인 1935년의 와그너법(Wagner Act)의 통과와 함께 전통적으로 사회당계였던 노조들 중 일부가 그들의 지지를 루즈벨트를 옮기기 시작했다. 결국 토머스는 1936년 대통령선거에서 187,342표를 얻어 사회당 창당 이래 최저 득표를 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당의 실천적인 입법계획은 토머스의 민주사회주의적 유토피아와도 맞지 않았다. 게다가 미국의 노동계급은 유토피아에는 관심도 없었고 즉각적이고도 실천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려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양성한 젊은 노동운동가들의 진보적인 주장까지도 외면하였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진보적인 입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뉴딜과 정치적으로 제휴할 것을 요구 했을 때, 사회당은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위하기보다는 차라리 노동자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강변하였고, 이것은 사회당이 대부분의 노조 기반을 상실하는 원인이 되었다.

2차 대전은 마침내 사회당을 암초에 부딪치게 만들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고서는 국가사회주의와 대적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사회당은 자체 분열을 막기 위해 평화주의자들, 전쟁 반대자들, 전쟁 지지자들 간에 모두에게 유연하고 애매한 노선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분파도 그런 타협에 만족 할 수 없었고, 따라서 내분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마침내 당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되고 토머스의 대통령선거에서의 득표도 크게 감소되면서, 사회당은 더욱 더 쇠퇴일로로 가게 되었다.<sup>18)</sup>

1930년대의 대공황이란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마르크스주의나 기성 사회주의사상이 미국의 반체제운동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실제로 사회당의 재건기이자 공산당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는 미국사상 최악의 불황기인 1932년 대통령선거에서 사회당후보 노먼 토머스는 90만 표 정도를, 공산당의 포스터와 포드는 103,000표를 얻었을 뿐이었다.<sup>19)</sup> 특히 공산당이 참패한 이유는 당의 지도자인 포스터의 교조주의의 강요와, 소련의 외곽단체로 전략한 코민테른에 대한 이들의 맹종 및 자체 분열, 그리고 뉴딜의 개혁정치 등이 그들의 영향력을 한층 더 상쇄시켰기 때문이었다.<sup>20)</sup>

18) 이 시기의 사회당의 당원 수는 1934년에 최고를 기록하고는 그 이후에 점차 감소되었고, 당은 진보주의시대의 전성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다.

19) Philip J. Jaffe, *The Rise and Fall of American Communism* (New York, Horizon Press, 1975), p. 33 여기서 두 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제 3당의 지위로서 차지한 일반 투표득표율을 보면, 사회당은 1904년 3.0%, 1908년 2.8% 1912년 6.0%, 1916년 3.2%, 1920년 3.4%, 1932년 2.2%인에 대하여, 공산당은 한번도 제 3당의 지위를 차지한 것이 없었다.

20) Robert A. Diamond(ed), *Presidential Elections Since 1789* (Washington,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40년, 소련이 미국의 연합국이 되자 공산당의 세력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듯 하였지만, 그 해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브라우더와 제임스 포드 후보는 46,251표의 극히 낮은 득표에 그쳤다. 전시가 되자 소련과의 대외적인 연합관계와는 반대로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오히려 가중되었다. 그해 6월 스미스법(Smith Act)이 통과되었다. 1941년 나치스의 소련 침공 직후, 이법에 의해 기소된 사회주의 노동자당 지도자 23명의 피고 중 18명이 반전활동을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고, 1948년에는,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당대회장 포스터, 총서기 데니스 등 공산당의 지도자 11명의 역시 이 법에 의해 “미국정부의 폭력적 전복과 파괴를 가르치고 주창하는 사람들의 모임, 단체, 집회인 미국공산당을 조직한” 혐의로 장기징역형을 받았다. 1950년에는 매캐런법(McCarran Act)이 제정되어 공산주의를 국제적 음모로, 공산주의자를 외국첩자로 간주하면서 그들에게 파괴활동통제위원회(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Board)에의 등록을 요구하였다.

한편, 2차 대전 중인 1943년에 와서 스탈린은 연합국의 보다 확실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 코민테른을 해체하였고, 그 해 12월에는 연합국 정상들의 ‘테헤란 선언’이 발표되었다. 1944년, 당시 공산당수인 브라우더는 이 선언을 적극 지지하는 연설문 『테헤란과 미국』의 출판을 통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은 세계에서 평화공존과 합병으로의 길을 찾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을 해체시키고 공산주의정치협회(Communist political Association)로 재조직하면서, 미국 내의 국민통합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sup>21)</sup>

그러나 브라우더는 모스크바의 일시적인 후퇴 의도를 몰랐다. 그 후 프랑스 공산당 지도자 뒤플로가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고 브라우더 비판논문을 발표하자, 미국 공산당은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1945년, 브라우더는 자신의 지금까지 취해 온 타협 정책을 사회민주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 당한 끝에 축출되었다. 결국, 공산당은 포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분파만 남아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당노선을 재정립

1975), pp. 65-99 참고. 당시 공산당은 루즈벨트의 진보적인 뉴딜을 파시스트 정책이라고 하고, 기성 사회주의인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파시즘(Social Fascism)의 동의어라고 혹평하면서 당의 독자성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썼다. 그러나 1935년 제 7차 코민테른 총회에서 통일전선노선이 채택되자 이들은 다시 루즈벨트를 지지하고 사회당과의 연합을 피하면서, 나아가서 진보적 자유주의계열도 포함하는 광범한 통일정선을 형성하는 변덕을 부렸다.

21) 이 단체는 그들의 헌장 전문에서 그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공산주의정치협회는 노동계급에 기반을 두고 ... 미국 민주주의의 업적을 지지한다. 그것은 전시의 국민적 필요에 의해 결성된다 ... 민주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들의 대동맹으로 이끌고 가서, 세계평화의 시대를 열며 ... 과학적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의 원칙을 고수한다. ...” 이것은 전시의 국민통합을 위한 타협적 정치교육조직이었으며 그들의 노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달리 초기 마르크스주의를 고수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1944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도 내지 않고 루즈벨트를 지지하기까지 했다.

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5년 모스크바의 공작에 따라 브라우더를 축출한 미국공산당은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고 제 3당 후보인 왈러스를 지지했는데, 이것은 공산당 계열의 많은 지지단체들의 불평을 가져 왔다. 게다가 제 2차 대전 후 냉전의 시작과 뒤이어 찾아 온 경제호황에다, 1953년의 스탈린의 죽음, 1956년 2월의 흐루시초프의 반스탈린 연설, 그리고 매카시 선풍 등의 일련의 사태는 미국의 공산주의운동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 이미 당지도부는 수감된 채로 있었고, 당은 노동계의 대부분의 세력을 잃었으며, 당원은 3분의 1이상이 탈당하였다. 더욱이 1956년에는 당은 포스터의 보수파 친위집단, 포스터를 반대하는 『일용 노동자』의 편집인 게이츠 중심의 수정주의집단, 그리고 당시의 당총서기 테니스가 주도하는 동요집단의 3개 분파로 분열되었다. 1957년에는 게이츠의 주도하에 수천 명의 당원들이 탈당하였으며, 포스터 영도하의 공산당은 점차 미국적 현실과는 유리되어 갔다. 공산당은 1989년에는 그 당원이 2만 명으로까지 약화되어 버렸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여전히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다.

60년대 초에 공산당의 청년조직인 듀보아 클럽(DuBois Club)이 재등장하였다. 그들은 특히 청년운동으로 새롭게 성장한 마르크스주의의 트로츠키 및 모택동주의적 해석을 기본노선으로 하였으며, 1968년 4월 15일의 춘계 반전동원의 계획과 조직에 참여하였다. 구트로츠키주의자들인 사회주의노동자당은 청년사회주의자동맹(Young Socialist Alliance)을 조직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1970년대 초에는 가장 활발하고 규모가 큰 사회주의운동 조직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전에 점점 더 개입하면서 가장 덕을 본 것은 격렬한 반제국주의 활동에 중점을 둔 모택동주의 노선을 따르는 진보노동당이였다. 이들은 흑인민족주의자와 스스로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흑표단(black Panthers)과 제휴하여, 1969년의 민주사회학생동맹 대회에서 패권을 장악하여 학생들이 주도해 온 뉴-레프트운동을 정치적으로 가사상태에 빠트리 버렸다. 당시 학생들은 이미 국내·외적인 상황의 변화 속에서 여러 차례의 벽에 부딪치면서 온건화 되고 있었고, 극좌세력의 극렬한 정치활동을 겪으면서 대부분이 민주사회주의적인 방향전환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진보 노동당을 거부한 사람들은 극단주의로 치달아서 청년혁명운동(Revolutionary Youth Movement)과 웨더맨 그룹과 같은 단명한 폭력적 게릴라 단체를 만들었다.

60년대의 학생지도자들은 그들이 기성세대화한 80년대 이후에는 현실생활에 안주



하려는 사람들도<sup>22)</sup> 뉴-레프트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sup>23)</sup> 아직도 현존 미국사회 그 자체마저도 거부하는 폭력적인 강경파도 잔존하고 있다.<sup>24)</sup> 이 시기의 사회주의 정당운동은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현실 속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다. 또한 아직까지는 번영의 과실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경제적·사회적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열렬한 투쟁의식을 요구하는 과격한 선동은 거의 호소력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산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은 거의 상실되었고, 사회당의 사회민주주의노선도 정당으로서의 존재의의가 거의 없어졌다. 대통령책임제의 정치체제에서 이들 사회주의 정당들이 대통령후보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해 준다. 이러한 정당운동의 흐름을 시대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표 4-1 참고)와 같다.

<표 4-1> 미국 사회주의 정당운동의 시대적 변천사

연도	단체명	특징 및 내용
1853~ 1859년	미국노동자총동맹 --> 공산주의 클럽	정당과 노동조합의 절충 형태, 비교적 온건한 강령 - 공산주의 클럽의 사회주의 정당이 모태
1874~ 1901년	북미사회민주노동자당 --> 북미사회주의노동당	전국적인 규모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 최초의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
1883~ 1886년	국제노동 인민협회	좌파급진세력 - 헤이마켓 사건으로 급격히 쇠퇴
1897~ 1910년대	미국사회민주당	마르크스 영향을 적게 받음 -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 미국사회주의 정당으로 전성기
1차 세계대전	미국사회민주당	반전운동 - 이에 대한 탄압으로 지도자들 대부분의 감금 - 이후 사회당과 공산당으로 분열
1차 대전 직후	사회당과 공산당	사회당은 지속적으로 축소 - 공산당은 노동당을 흡수하면서 강세 - 이후 사회당은 우경화
대공황기 (뉴딜)	사회당 공산당	사회당 세력을 회복 - 그러나 곧 민주당으로

22) William T. Bluhm, *Ideologies and Attitudes: Modern Political Cultur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4), p.192 참조 Black power의 Stokely Carmichael은 “과학적· 체계적 계획을 통한 ...과괴가 아닌 건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SDS 의장이었던 Carl Oglesby는 MIT에서 작곡과 강의를 하고 있다. Sncc의 공동창시자인 John Lewis는 남부에서 선거교육운동에 종사하며, Berkeley 사태의 지도자요 Hippies의 대표격이었던 Jerry Rubin은 “1960년대는 지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생활에 출몰해야 할 시기”인 지금, “조용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23) SDS의 지도자였던 Tom Hayden의 ‘경제적 민주주의운동’(Capaign for Economic Democracy)과 Michael Harrington의 ‘민주사회주의자조직위원회’(Democratic Socialist Organizing Committe) 등은 이제는 반체제 연합전선 구축에 힘쓰고 있다.

24) Theodore Draper, "The Rediscovery of Black Nationalism", William Mcpherson, *Ideology and Change : Radicalism and Fundamentalism in America* (California, National Press Books, 1973), pp.100-109. 참조. Bobby Seale과 Huey P. Newton의 Black Panthers 등의 과격파가 소수나마 끊임없이 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층계급, 노동계급’이 자신들의 ‘가족’이라고 주장한다.



기)		많은 인사 및 정책 흡수당함 - 공산당 최고의 전성기
2차 세계대전	사회당 공산당	반전운동에 대한 좌파 탄압 강화 - 사회당의 우경화 경향 강해짐 - 공산당 쇠퇴
60년대	사회당 공산당	사회당을 거의 지리멸렬 - 공산당의 경우 뉴-레프트 운동을 방해 - 이후 좌파 세력은 사회 운동으로 전이

자료: 김동근,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대구: 정림사, 2005)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한 것임.

이와 같은 정당운동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면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동운동을 통한 정당으로 전이된 사회주의 운동이 존재했었다. 둘째,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은 1900년대, 1930년대, 1960년대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흥망성쇠를 반복하였다. 셋째, 미국 사회주의 정당은 리더의 이론적 부재와 당의 내부적 시스템 부재로 인한 사회당과 공산당의 분열이 있었다. 넷째, 미국의 좌파에 대한 우파의 정치적 탄압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정당이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 내 정치체제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사회주의 정당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미국 예외주의 이론을 검증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고전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비판가들이 주장처럼 미국의 사회운동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나 기존의 고전적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양당체제의 문제점과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믿음 등이 사회주의 정당이 제약에 일부분의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부분들만으로 제약요인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외에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주의 정당의 제약요인으로 새롭게 거론되는 대표적인 특성은 양당제의 고착으로 인한 문제점들과 우파의 좌파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이다. 즉 재해석 이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의 이론처럼 양당제로 인하여 미국 사회주의 정당운동은 제3당으로서의 존립자체가 불가능했으며, 자신들의 정책적 기반마저 내분과 시스템적 부재로 인하여 양당에게 흡수당했다. 또한 양차대전과 경제적인 호황에 즈음하여 사회주의 정당은 우파에 의하여 끊임없이 탄압을 받았으며, 그로인하여 국민들에게서 자연스레 멀어졌다. 미국 사회주의 정당의 운동과정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예외주의를 만들어낸 요인은 비단 한두 가지 특성이 아닌 다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 제2절 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 1) 노조운동

미국의 노동조합운동은 1789년에는 필라델피아의 인쇄공들이 조직적인 파업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1820년대 말, 대대적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수많은 파업이 있었으며, 1827년에는 필라델피아 기술공노동조합 협회가 결성되었다. 1834년에는 노동자들의 전국적 조직운동의 최초의 시도로서 전국노동조합(National Trade Union)이 조직되어 3년간 지속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근대적 의미의 노동운동은 남북전쟁 이후에 전개되었다 할 수 있다. 미국 노동운동은 남북전쟁 이후 산업의 폭발적 증대와 교통·통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자본주의체제에 일대 도약이 계기를 제공하였다.<sup>25)</sup> 남북전쟁은 남북경제를 통합하여 시장을 넓혔으며 그로부터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으나, 전쟁비용 충당을 위한 지폐 남발로 물가는 급상승하여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노동자의 생활은 극도로 악화되었다.<sup>26)</sup> 이 기간 동안 광공업 노동자의 수는 130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어났고 노동조합원은 1864년 20만명을 넘게 되었다.

1863년 이후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최초의 세계공황인 1857년 대공황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어,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1860-62년간의 강력한 파업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1866년 8월, 전국노동조합의 연합체로 전국노동연합(National Labor Union)이 결성되었다. 전국노동연합은 중앙평의회, 단위노조, 사회주의단체, 개혁단체 등까지 합쳐 결속은 느슨했지만, 생산협동조합과 지폐본위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독립당을 결성하고,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제 1 인터내셔널의 가입을 결의하기까지 했다. 전국노동연합은 그것이 존속한 6년 동안 1일 8시간 노동제, 실업자보호, 세계 최초의 남녀평등 임금제 등의 요구, 그리고 아동노동 반대 등 많은 기본적 노동정책을 개발했다. 그

25) 김동근 (1993), p. 141 미국은 남북전쟁 당시만 해도 세계 산업국가 서열에서 4위를 차지하였으나, 1984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공산품 생산물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단연 1위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호조기에 힘입어 1890년대의 10년 간에 무려 550만의 주민의 몰려들었고, 제조업의 노동자수는 300만 이하이던 것이 6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철도의 길이는 두 배로 연장되었고, 식유·철강 등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26) 김동근 (1993), p. 22 이러한 성장의 시기는 사회정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시대의 많은 산업자본가들은 '위대한 산업적 업적'을 위해서는 어떤 낭비도, 어떤 부정도 허용될 수 있다고 믿는 천민자본가로 전락하였다. 또한 남북전쟁 이후의 정당들은 원칙이 아니라 이익에 기초를 두고,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이권을 둘러싸고 분열을 거듭하였다. 전쟁후의 공화당은 대산업가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유리한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대 자본가들은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선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러나 그것은 1868년에는 한 때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조합원을 확보해 놓고도, 조합원의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사회개혁이라는 정치투쟁의 장기목표에 매달린 나머지, 1873년 공황 때에는 대부분 붕괴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1869년에 창설되어 파우덜리가 주도해 온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이 노동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 라살레주의, 순수단순 노동조합주의(pure and simple trade unionism)의 경향을 모두 포함하였지만, 사회변혁을 위한 행동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노동기사단은 당시 수많은 파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그 간부들은 노조의 경제투쟁을 무익하다고 보는 라살레적 관념에 젖어 파업에 조차 찬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단장인 파우덜리는 1886년 8시간 노동제 관철 대파업에서 시작한 헤이마켓 사건<sup>27)</sup> 때는 이를 반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기사단은 1890년에는 약 2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주변적 조직으로 밀려났다. 노동기사단의 창설과 같은 해에 흑인 노동자들도 마이어즈를 의장으로 하는 전국유색노동자연합(National Colored Labor Union)을 조직하여 흑인노동운동을 본격화 시켰다.

한편, 1870년대의 불경기 동안 노동운동은 위축되어 체제내적인 성격의 노동조합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1881년에는 맥과이어, 스트래서 등의 사회주의노동당원과 그 동조자인 감퍼즈는 ‘직인단체 및 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Organized Trade and Labor Union)’을 창설하게 되었다. 또 그들은 1886년 사회주의 노동당의 드레온 등을 받아들이고 이 조직을 확장 발전시켜서 미국사에 있어서 가장 안정된 노조운동단체인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노총)을 만들었다. 노총은 숙련공 중심의 직능별 조직형태, 분권형, 가입자격의 노동자 국한, 실용주의적인 파업 참여 등의 정책을 채택하여 노동현장에서는 노동기사단보단 훨씬 호소력이 있었으며, 그것은 이후 이 조직의 위상을 확보해줄 확실한 정책적 바탕이 되었다.

1893년에는 전국이 또 다시 불황에 휩싸였는데,<sup>28)</sup> 그 해 6월 20일에는 강력한 행

27) 1886년 미국 시카고, 노예 같은 생활에 억눌리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5월 1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 자본가들은 당시 2000달러를 들여 일리노이 주 방위군에게 기관총을 공급하였다. 어떻게든 폭력 사태를 빌미 삼아 시위를 진압하려던 경찰은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5월 3일 파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을 죽이고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다음날 무정부주의자들의 주도 아래 헤이마켓 광장에서 평화 집회를 했고 어떤 음모에 의해 폭발물이 터지게 되었다. 경찰은 이것을 빌미로 평화 집회를 폭력 사태로 규정한 뒤 시위를 폭력 진압하고 충분한 증거 없이 노동 운동 지도자 8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헤이마켓 사건(Haymarket Affair)이다. 권오준, 2003, “주의를 돌아보니 그들이 있었다.” [http://cafe.naver.com/antieduhop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23](http://cafe.naver.com/antieduhop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323) (검색일 2009년 11월 23일).

28) 프랭크 프레이델 저, 박무성 역, 『미국현대사:1900-1981』(서울: 대학문화사, 1985), p. 21. 참고. 이 시기의 공업과 산업 산출량은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경제의 다른 분야는 그에 보조를 맞추지

동단체인 미국철도조합(American Railway Union)이 창설되었다. 이전의 직능조합과는 달리 그것은 단일작업장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서 전체 백인 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조직으로서, 모든 가입희망자에게 개방적이었다. 그들이 내건 목적은 임금 및 노동시간의 보호, 일간지 및 월간지의 발간, 수익법안 입법 로비활동, 저임금 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그들 자신과 직결되는 문제들이었다. 미국철도조합은 1년 내에 당시의 노총보다 별로 작지 않은 15만 명의 회원으로 성장하였는데, 최초의 임원들은 강력한 사회주의적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그 때 이후 1920년대에 이르도록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최고지도자가 된 테브즈가 있었다. 테브즈는 1894년의 풀먼 파업을 지도하여 사회주의 운동의 전국적인 지도자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여기서 결집되었던 전국의 노동운동은 통일된 하나의 힘으로 구체화 되어, 결국 20세기 초두에 미국 사회주의운동을 주도하게 될 미국사회당이 창설되는 한편 본격적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단결을 호소하는 단일대조합운동(One Big Movement)으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1893년부터 1897년까지의 공황은 지금까지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공황이었다. 과대한 투자, 낭비, 부패가 급속히 발전하는 실업계에 침투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공황은 실업계에 대한 불안과 비판의 소리를 크게 만들었다. 특히 홈스테드 파업<sup>29)</sup>에 대해 카네기가 취한 대담한 탄압정책은 사회불안의 의식을 조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홈스테드 파업을 계기로 조합들은 괴멸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는 쇠약해져 농민당과 연결을 맺고 있던 노동기사단을 대신하여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고 산업별 조직을 원리로 하는 여러 종류의 노동자조직이 등장하였다. 미국철도조합,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미국노동조합 등이 그것이다. 풀먼 파업으로 파멸할 때까지의 미국철도조합을 제외하고는 이들 조직은 거의 소멸되었으나 노

---

못하였다. 전국의 은행이나 각종 금융제도는 국가적 보조정책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능률적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자유방임적 경제체제에서 상품 시장이 공급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지 못했다. 19세기의 경제는 경기호황과 과산의 불규칙적인 변화로 1837년, 1857년, 1873년, 1893년의 계속적으로 증대와 하락 반복하는 공황을 겪었다. 그 결과 1893년 체제 자체의 전면 붕괴로까지 보이는 대공황을 맞이하였다.

29) 미국 노조연합에 가입했던 철강노조연합은 가장 강력한 직종별 노조연합이었다. 이 노조의 조합원들은 고용주들로부터 수요가 많은 숙련노동자들이었으므로 오랫동안 작업장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1880년대 중반 새로운 생산방법과 거대 규모의 주식회사 조직이 철강 생산과정을 능률적으로 단축시키게 되자,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다. 철강산업을 지배하게 된 카네기 체제에서 노조는 이 회사 소유한 세 군데 주요공장 중에 하나인 피츠버그 근교의 홈스테드제철소에서만 유일하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카네기는 임금삭감 등 홈스테드의 노조연합을 분쇄하려 하였고 이에 반발한 노조연합이 총 파업에 들어갔다. 엘런브링클린 저, 황혜성 역, 『미국인의 역사』(서울: 비봉출판사, 1998), p. 77.



동조합 운동에 미친 영향을 매우 큰 것이다(이영범, 1992, 87).

1897년에 공황을 극복한 미국은 독점자본에 의한 업계 제패가 결정적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자본의 확립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미서(美西)전쟁과 하와이 합병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은 고립주의를 내세운 먼로주의를 버리고 점차로 세계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서 전쟁에 뒤이어 불어 온 호경기를 타고 온건한 미국노동총연맹은 계속 팽창하면서, 지금까지의 단순조합주의(simple unionism) 대신에 현실적이고 때로는 부패한 방법도 쓰는 경제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란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숙련노동자들만의 노동시장 독점전략으로 전환하여 제도권 내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노선과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것은 지방분권적인 바탕에서 영국형태의 노동조합주의가 가장 타당하다고 확신하고 이후의 운동방침을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정하였다. 그것은 과거의 노동운동(전국노동연합이나 노동기사단)이 주로 정치적·사회적 개혁에 중점을 두고 노동자 개개인의 구체적 요구와 현실적 문제는 외면한 채 중앙집권적인 획일주의 방법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것을 교훈 삼았기 때문이다. 노총은 이러한 변신과 더불어 감퍼즈 등의 노총 간부들이 산업거물들과의 계급합병적 단체인 전국시민연맹(National Civic Federation)에 가입하는 사태로까지 나아갔다. 기업가와 노조대표의 협의체로 출발한 이 단체는 표면상의 분쟁조정이란 명분과는 달리 기업가의 이익보호의 도구로 빈번히 이용되었다.

1905년에는 미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가장 과격한 단체였던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이 창설되었다. 노총의 친자본주의노선에 반발하여 일어난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강력한 토대를 둔 단일대노동조합, 단일대파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세계산업노동자연맹의 모태는 크리플 크리크파업의 지도자인 헤이우드가 이끌고 있던 서부 광원연맹(Western Federation of miners)이었다. 헤이우드의 노선은 상당한 부분이 데브즈와 일치하였다. 여기에는 혁명적 노조를 주장하는 드 레온도 가담하였다. 원래 광원연맹은 헤이우드와 데브즈가 주도하여 노총에 가입하였는데 후에 노총의 노선이 온건화하자 이를 탈퇴하였다. 데브즈는 광원연맹과의 연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1902년에는 서부지역의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미국노동연합(American labor Union)으로 개칭하여 사회주의노선을 포용하는 전국적인 산업별 노동운동을 주도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다(하워드 진 2008, 165-170). 그러나 산업노동자연맹은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많은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 중 펜실베이니아주 메키즈 록스의 철강노동자들의 파업, 서부지역의 자유언론투쟁, 로렌스 방직공장 파업, 농업노동자 및 벌목노동자들의 봉기 등은 산업노동자연맹의 전형적인 활동의 결과였다.

20세기 초 노동조합은 그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에 직면했지만, 1918년까지는 점차 온건노선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들은 특히 1차 대전 중에 비역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때 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단체의 전쟁협력을 얻은 연방정부는 조합의 기업주와의 단체교섭활동을 더 많이 지원해 주었고, 전국전시노동위원회(National War Labor Board)는 군수산업에 쟁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시 중에는 노사 모두에게 파업과 공장폐쇄에 대한 전면정지를 권고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해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하도록 호소하였다. 따라서 1917년부터 1920년에 걸쳐 노총의 조합원수는 300만에서 510만으로 급증하였다(김동근 1993, 27).

한편, 1920년 11월에는 공산당의 포스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교육동맹(Trade Union Educational League)결성되었다. 그들의 강령은 반동적 관료제를 공격하고 계급합병 대신에 투쟁정책, 직능별조합의 산업별조합으로의 합병, 미조직자들의 조직, 적색노조 인터내셔널에의 가입, 소련의 승인, 그리고 자본주의의 폐지와 노동자 공화국의 수립들이었다. 이 조직은 노총과는 적대적인 좌익 노동단체로 그 후 노동조합통일동맹(Trade Union Unity League)으로 재조직되었다. 통일동맹의 강령은 교육동맹의 것을 거의 그대로 따랐는데, 거기에다 1일 7시간 주 5일 노동제, 흑인민중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평등, 세계노동조합의 통합, 파시즘 및 제국주의전쟁 반대투쟁, 그리고 소련 및 사회주의의 방어 등이 덧붙여졌다.

이 기간의 노동운동은, 노총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전반적으로 조합원수가 증가하고 직능별조합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련노동자에게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였기 때문에 1920년대에는 호황기였음에도 조합성장은 오히려 뒷걸음을 쳤다(이영범 1992, 126). 숙련공 주임의 직능별, 조합에 대한 미숙련노동자들의 냉대와 고용주들의 노조 탄압, 파업파괴자 이용, 어느 정도의 복지조치 등의 방법들이 도입됨으로써 노동대중들 속에는 반조합적인 감정이 강하게 나타났고, 심지어 고용주에 의해 지배되는 노조가 등장하기도 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은 미국 노동자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자연발생적인 대중집회, 시위행진, 청원, 투쟁적 단체의 등장, 폭등 등이 끊이지 않았고 집단적

불안감이 팽배해 있었다. 이 시기의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심각한 갈등은 미국사회의 계급투쟁의 가능성을 점증시켰고, 또한 그것은 강력한 반자본주의, 반재벌의 인민주의운동을 재발시켰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휴이 롱의원의 재산재분배운동, 타운센드의 노령연금운동, 커플린 신부의 사회정의십자군운동 등이 있었다. 미국의 인민주의운동은 농민들을 주축으로 하여 노동자, 빈민, 소수민족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괄하는 운동으로서 사회주의에서 주장하는 계급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어쨌든,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급진운동은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으로 연결되었다. 1920년대에 감소현상을 보이던 조직노동자의 수는 1930년대 동안 1,500만 명이 넘도록 증가하여 전국적인 임금노동자 및 급여소득자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였다(김동근 2005, 15). 당시의 조직노동자의 대다수는 노총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1935년에는 좌파계열의 노동조합통일동맹이 노총에 통합되었다. 이렇게 증가일로에 있던 노총이 노조 조직문제를 잘못 처리함으로써 조합원이 대거 탈퇴하는 사태가 생겼다. 대량생산공업 노동자에게 접근하려던 노총의 방식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1935년 10월의 어틀랜틱시 대회에서의 열띤 토론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노총의 지도노선에 불만을 품어 온 루이스와 그의 일파는 대회가 폐막된 다음 날 산업별노동조합위원회(Committee of Industrial Organization)를 결성하였다. 그들은 노총 산하의 조합 가운데 공격적이고 격렬한 10개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출발하였고, 산하의 조합들은 백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흑인노동자들을 가입시키기 시작하였다. 이 조직은 노총에 대한 지도부의 개인적인 불화와, 미숙련노동자의 조직화 문제에 대한 노선 차이 때문에, 1938년에는 노총에서 완전히 축출된 후 독자적인 조직을 갖추어 그 명칭도 산업별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로 바꾸었다.

한편, 뉴딜 관계법 중의 하나로 노동운동과 깊이 관련되었던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이 1935년에 위헌판결을 받게 되자, 그에 대신하여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Wagner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미국 노동운동사상 가장 혁명적인 법률로서 노동단체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의 원조를 해 준다는 것이었다. 1937년에 가서는 대법원도 지금까지의 반(反) 뉴딜 입장을 바꾸어 정부의 노동운동 옹호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자, 이것은 산업별노동조합회의의 조직 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

노총은 성립 당시부터 정당 자체의 성패에서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비당파적인 정책을 취했는데 반해서, 산업별노조회의는 처음부터 정치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채택했다(이영범 1992, 130). 1936년 선거에서는 산업별노조회의 산하의 노조들이 노총이 일부 조합들과 합세하여 ‘노동자 비당파연맹’을 설립하고 루즈벨트의 재선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대체로 민주당에 투표해 왔지만, 노동운동의 대조직들은 이 때 처음으로 정치적 지향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히 민주당계임을 공언하였다. 노동운동은 결국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의 긍정적 상승작용으로 큰 효과를 얻었다. 노총과 산업별노조회의의 경쟁적 노동운동은 결국 상충적 관계가 되어 1937년에서 1940년 사이에 노총은 그 조합원수가 290만 명에서 420만 명으로 늘어난 반면에, 산업별노조회의의 숫자는 400만 명에서 360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2차 대전은 조합의 양적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대전 중 민수, 군수 양면에 있어서 노동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된 결과, 고용은 증대되고 그 위에 연방정부의 호의적인 시책이 계속됨에 따라서 조합원의 수는 전시 중 매년 100만 명씩 증대된 나머지, 1948년의 노총, 산업별노조회의, 그리고 독자적인 조합 모두의 총 노조원 수는 1,600만 명이나 되었다. 1940년 당시 감퍼즈의 뒤를 이어 노총의 위원장이 된 그린은 “노총은 노조주의와 단체조직·교섭권을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본주의체제와 자유기업을 힘차게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Greene 1991, 69). 이제 노동운동의 주류는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운동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은 셈이었다.

노총과 산업별노조회의는 병존해 오면서 직능별 조합과 산업별 조합을 나누는 뚜렷한 경계가 흐려졌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노총도 산업노동자들을 옹호해 왔고 산업별노조회의도 숙련노동자들을 조직해 왔다. 그러자 이 시기가 되어 양 조직 모두가 분열의 기본적 원인이 되었던 근거를 잃고 직능별 조합과 산업별 조합의 복합적 양상을 띠게 되었다. 게다가 노총 위원장 그린과 산업별노조회의 위원장 머레이가 불과 11일을 두고 잇달아 세상을 떠나자 양 조합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보이어 1996, 365).

1955년 12월 5일, 양대 조직은 뉴욕시에서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조회의(AFL-CIO)로의 통합협정에 조인함으로써 미국노동운동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935년부터 경쟁해 오던 두 조직이 합병함으로써 미국 전노조의 85-95%의 조합원

을 포함하는 약 1,600만의 단일 노조가 된 것이다. 노총-산업별노조회의의 규약은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기타 전체주의자”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하였으며, 그들에 의해 지령 받거나 지배되는 어떤 노조의 가입도 반대했다. 노총-산업별노조회의는 산하의 부패한 노조를 축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았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구 노총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었지만 산하조합에 대한 권한은 강화되었다. 쾰바르트의 부르주아화론(embourgeoisement)의 명쾌한 지적처럼, 미국의 노동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지향성은 자연히 자본주의와 공생하려는 노총-산업별노조회의로 하여금 노동운동의 주류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동운동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표 4-2 참고)와 같다.

<표 4-2> 미국 노동운동의 시대적 변천사

연도	단체명	특징 및 내용
1834 ~ 1837년	전국노동조합	최초의 전국적 노동자 조직운동
남북전쟁시기	전국노동조합	자본주의의 비약적인 발전 - 노동자와 조합원 수 급격히 증가
1866 ~ 1872년	전국노동연합	노동조합의 연합체 성격 - 조합원의 현실 문제를 외면한 채 사회개혁이라는 정치투쟁의 장기 목표에 매달린 나머지, 1873년 공황 때에는 대부분 붕괴
1869 ~ 1890년	노동기사단	사회변혁을 위한 행동계획은 갖고 있지 않음 - 헤이마켓 사건 반대로 노동자의 지지 잃음
1893 ~ 1897년	미국사회민주당	홈스테드 파업을 계기로 조합들 괴멸 - 사회주의를 목표로 하는 여러 종류의 노동자조직이 등장
1897 ~	미국노동총연맹	미국노동총연맹은 계속 팽창 - 단순조합주의 대신에 현실적이고 때로는 부패한 방법도 쓰는 실리적 조합주의정책을 채택 - 숙련노동자들만의 노동시장 독점전략으로 전환하여 제도권 내에 정착 - 사회주의노선과 점점 멀어짐
1905 ~ 1910년대	세계산업노동자연맹	미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가장 과격한 단체 - 실천적 투쟁을 통하여 많은 지지를 획득
1차 세계대전	전국전시노동위원회	국가의 암묵적인 동조 - 노조 조합원수의 급격한 증가
1920년대	노동조합교육동맹	노총과는 적대적인 좌익 노동단체 - 자본주의의 폐지와 노동자공화국의 수립 - 노동자 사이에 계급제 생김 - 노조에 대한 불신 - 노조인

		원 감소 - 친자본가 성향이 노조 탄생
1930년대 초반 (대공황기)	미국노동총연맹	대공황으로 인한 급진운동 증가 - 강력한 노조 운동 - 노총 인원 급격히 증가
1930년대 후반	산업별노동조합회의	좌파적 성향의 노조 - 정치문제에 적극 참여 - 민주당 루즈벨트 지지
2차 세계대전	AFL-CIO	전쟁을 위한 국가의 노조지지 - 노조원 급격히 증가 - 노총이 자본주의지지
1950년대	AFL-CIO	노총과 산업별노동조합회의의 합병 - 이후 급격히 노조는 자본주의에 편입 - 사회주의와 완전한 결별

자료: 김동근,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대구: 정림사, 2005)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한 것임.

노동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 번째 미국의 노동조합은 정당운동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은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갖게는 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노동운동은 정당운동과 다르게 비교적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조합원수를 늘렸으며 이는 상당히 가파른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우경화 되는 경향을 보였고 양대 노조의 합병을 기점으로 사회주의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잃었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으로 시작은 하였지만 결국에는 사회주의 운동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이미 예외주의 이론들에서 거론된 많은 제약요인들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신노동사가들로 대표되는 비판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의 계급운동으로 생명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쏘바르트와 헌팅턴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적 성향이 노조와 미국 고유의 역사적 요인 또한 분명히 영향력을 발휘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요인들 이외에도 실용주의적인 미국인들의 성향과 다문화·다인종의 영향에서 오는 이익갈등 구조의 영향 또한 상당히 많이 받았다. 이렇듯 미국의 노동운동 또한 정당운동과 유사하게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받았다.

## 2) 사회운동

### (1) 지식인층의 사회비판운동과 학생운동

1930년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으로서 지식인들의 사회비판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나치스 독일에서 망명해 온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다. 이들은 독일에서 간행했던 『사회연구지』라는 전문지를 속간하여 왕성한 그들의 비판이론을 전개하였다. 이 학파가 미국사회의 대중문화와 권위주의에 대해 가한 비판은 미국의 지적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독일 민족문화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그 논문들을 독일어판으로 발간했기 때문에 당시의 일반대중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때의 사회과학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가볍게 받았을 뿐이었지만, 순수사회이론에서 그것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증가되었다. 일부 지식인들은 실제로 사회당이나 공산당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지식층 공산주의자들의 교조적 편협성은 사회주의운동에 있어서 상호간의 이념투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었다. 1930년대의 지식인들이 행한 사회비판은 미국사회의 결함과 폐단에 대한 광범위한 해부와 처방을 내렸지만, 상당한 부분이 체제내의 개혁의 주장에 머물렀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었다(하워드 진 1986, 36-38).

이러한 지식인층의 사회비판운동은 당시의 학생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당시 학생운동은 이미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었다. 진보주의 운동기에 이미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한 학생운동조직은 사회주의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지도를 받거나 상호 협력하면서 반전운동, 반체제운동 등을 전개해 나갔다.

1930년대 대학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전쟁-평화문제였다. 실제로 모든 자유주의단체와 급진학생단체는 물론이고, 공산주의청년동맹에서 YMCA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강제적인 ROTC를 반대하였고, 심지어 대학의 모든 군사계획까지도 반대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정한 동기에 상관없이 열렬히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반전행동주의는 1935년부터 1945년까지에 해당되는 파시즘의 세력확장기에 절정에 달했다.

30년대의 학생반전운동은 공산계인 반전학생회의<sup>30)</sup>(Student Congress Against War)와 사회주의계인 미국학생연합<sup>31)</sup>(American Student Union)이 주도하였다. 그

30) 이들은 공산계인 전국학생동맹(National Student League)에 의해 조직되었다.

31) 이 시대의 핵심적인 반전운동의 또 다른 하나는 옥스퍼드 서약운동(Oxford Pledge movement)이었다. 이 운동은 즉각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미국 내 30개주의 약 90개 대학이 옥스퍼드 서약 논쟁에 참여했다. 사회주의 학생단체들은 이러한 기회에 편승하여 활발하게 움직였고, 그 중 산업민주학생동맹(Student League for Industrial Democracy)은 1934년의 '전국평화동맹휴학'을 주도하였다. 사회주의운동이 옥스퍼드 서약을 중심으로 동맹휴학을 반복함에 따라 많은 자유주의계 조직과 종교조직까지도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1936년에 이르자 동맹휴학은 가장 성공적으로 전개되었다. 약 50만 명의 학생들이 전국에 걸쳐 시위를 했다. 이들의 핵심은 당시의 통일전선조직이었던 미국학생연합(American Student Union)이었으며, 많은 단체의 지지를 받은 공식적 지원조직은 학생연합평화위원회(United Student peace Committee)였다.

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미국학생연합이 분열하고 이들의 평화운동이 분파적인 양상을 드러냄에 따라 크게 약화되었다.<sup>32)</sup>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이 터지자 평화운동은 결정적으로 쇠퇴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1939년에 이 운동을 포기하였고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루즈벨트의 군비계획을 찬성하였다. 1940년에서 41년 사이의 평화운동은 노먼 토머스와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의 일부 반공계 사회주의자들에게만 남게 되었다.

30년대 대학가의 두 번째 주요 운동은 반체제운동이었다. 진보주의운동기부터 학생운동을 주도해 온 대학사회주의자협회는 1920년대에 산업민주동맹(League for industrial Democracy)으로 개명하였는데, 1932년에는 그 중 청년층이 캠퍼스 조직의 강화를 위해 산업민주학생동맹을 조직하였다. 산업민주동맹은 1932년까지는 사회주의 학생들의 비호조직으로서 당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를 대변했으며 그들의 협력단체인 산업민주학생동맹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산업민주학생동맹은 그들의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보다 보수적인 단체와 보다 급진적인 단체를 동시에 접촉할 수 있었고 이는 30년대 중반의 학생운동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반진운동과 반체제 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미국학생연합의 정책은 1936년 시카고 대회를 기점으로 변화한다.<sup>33)</sup> 이후 1938년 베이스 대학에서 열린 대회를 기점으로 미국학생연합은 완벽한 정책변화에 나선다. 여기서 옥스퍼드 서약은 집단안전보장의 전폭적 지지를 위해 삭제되었으며, 결국 뉴딜의 대외정책과 대부분의 국내정책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1938년 이후 미국학생연합은 서서히 쇠퇴하였다. 1939년의 독·소 불가침협정으로 인한 극적인 정책변화에 따라 많은 미국학생연합 지부들이 탈퇴하거나 무력화되었다. 1940년에는 4년간 그 조직의 총서기를 맡아 오던 래쉬가 미국학생연합의 공산당에 대한 노예적 추종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탈퇴하였고,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도 뒤를 따랐다. 마침내 미국학생연합은 1938년의 2만 명이라는 맹원에서 1940년

32) 1937년에는, 사회당 계열은 옥스퍼드 서약을 지지했는데 반해서 공산당계열은 이를 반대함으로써 반진운동 전략 자체가 분열되었다. 1935년의 코민테른 제 7차 대회는 '반파쇼인민전선'의 조직을 전 세계의 노동계급 및 노동정당에게 호소하였는데, 미국의 공산당계열도 이에 호응하여 파시스트 세력에 항거하는 소련의 지원을 위해 소극적인 전쟁지지로 선회했던 것이다.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 기독교 반공학생들은 반진청년위원회(Youth Committee Against War)를 따로 결성하여 옥스퍼드 서약을 계속 지지하면서 미국의 완전 중립을 주장했는데 반해서, 미국학생연합과 학생연합평화위원회는 이번에는 집단안전보장정책을 지지하였다.

33) 이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보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반진 및 대외정책문제에서 온건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집단안보를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보다 급진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많은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에는 2천명으로 격감하였다.

2차 대전이 발발한 1940년대 이후에는 학생운동은 상당히 우경화되었다. 1941년 12월, 미국학생동맹(Student League of America)으로 모든 조직의 흡수 통합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보다 강해졌다. 이들의 이러한 활동은 30년대의 학생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반동이었다. 그들은 어떤 의미로는 반공적이고도 자유주의적인 정향을 계속 유지한 50년대의 전미국학생협회(United States National Student Association) 같은 단체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 (2) 뉴-레프트운동

미국의 뉴-레프트운동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전개된 지식인, 대학생들의 반체제운동을 말한다. 이 시기의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은 지금까지 보조세력으로 머물러 있었던 학생세력이 이 운동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기존 세력들인 정당이나 노동단체들은 극도로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김동근 1993, 51).

미국의 뉴-레프트운동은 1960년대 초의 핵무기금지운동과 흑인민권운동에서 시작되었지만,<sup>34)</sup> 월남전을 계기로 하여 젊은이들에 대한 징병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자 대학으로 옮겨가서 급격한 반체제운동으로 발전되었다.<sup>35)</sup>

미국의 뉴-레프트운동은 민권운동, 평화운동, 사회개혁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민권운동은 흑인들의 권리향상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1954년 연방대법원의 차별금지판결(School Desegregation Decision)을 발단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60년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적 정치활동을 지지하는 최초의 연좌 데모가 남부의 대학에서 일어나고,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가 결성되자 마침내 본격화되었다. 1963년 8월에는 20만 명이 참가하는 '워싱턴 대행진'이 강행되었고 마침내 킹 목사 등 흑인지도자와 케네디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흑인의 교육·경제·정치적 지위개선을 위한 제도

34) W. T. Bluhm, *Ideologies and Attitude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4), p. 173 참조. 1959년, 영국의 지식인들이 급진주의적인 두 개의 기존 잡지를 『New Left Review』로 통합 발간하였는데, 이것이 'New Left'란 명칭의 첫 사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잡지는 그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청년 마르크스주의의 소외 및 인본주의 등의 주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는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도 위스콘신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의 급진적 지식인들이 『Studies on the Left』, 『New University Thought』를 발간하였다.

35) 이 운동의 핵심단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사회학생동맹(Student for a Democracy Society)과 흑인 뉴-레프트운동의 주요조직체인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Student Nonviolent Coordinating Committee)를 중심으로 진보노동당(Progressive Labor Party), 여성해방운동(Women's Liberation Movement) 등이 조직되었다.

적 통로로써 1964년의 민권법, 그리고 1965년의 선거권법 등이 제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킹목사의 피살(1968. 4. 4.)을 분기점으로 민권운동은 카마이클(Stokely Carmichael)의 블랙 파워, 또 극단적 과격파 단체인 흑표단(black Panthers) 등에 의한 체제외적인 폭력투쟁으로의 변형을 보이게 되었다. 민권운동은 미국의 기성체제로 본다면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상 좌파에 분류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흑인들의 인권옹호와 더 나아가서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이 중심이었다.<sup>36)</sup> 따라서 그것은 계급해방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운동과는 밀착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진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뉴-레프트와 관련된 두 번째 큰 움직임은 평화운동이었다. 60년대의 평화운동은 1960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행진과 전국건전핵정책추진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a Sane Nuclear Policy)의 결성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의 활동의 초점은 핵무기 보유를 막으려는 체제내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1959년 이래 학생평화연합의 출현과 함께 이와 별도로 체제를 이탈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의 계획은 시민적 불복종과 방위시설 및 시민방위계획에 항거하는 시위였다(김동근 1993, 52).

1964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분교에서 일어난 월남전 반대 데모는 전국의 대학가를 반전시위로 물들게 하였다. 1965년 존슨 정부가 월맹에 대한 단계적 북폭 명령과 주월미군병력 증원조치를 취하자, 이 운동은 건전핵정책추진위원회, 민주사회학생동맹, 학생비폭력조정위원회 등이 주도하는 성토대회와 같은 대중운동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이들의 평화운동은, 중전 대부분의 평화운동과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운동의 평화운동이나 반제국주의운동과 상통하여 그 주도세력인 학생들의 참여 동기가 이데올로기적인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이기적 동기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뉴-레프트운동의 세 번째 초점은 1963년 8월부터 시작된 민주사회학생동맹의 '경제조사 및 행동계획'에 의해 예시된 빈민가 개혁계획이었다(김동근 1993, 53). 이 계획에는 다른 운동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개혁가들은 빈민굴 중심에서 위치한 민주사회학생동맹 공동체본부에 살면서, 자유주의자들과도 제휴하여 기본목표인 '보다 더 효율적인 복지국가'의 달성을 위해 활동하였다. 사회개혁운동은 초기 개척시대부터 문제시 되어 온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철폐와 아울러, 도시

34) Ron E. Roberts & Robert M. Kloss, *Social Movement: Between the Balcony and the Barricade*, (St Louis, The C. B. Mosby Co., 1974), p. 88 참조. 민권운동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Malcolm X는 1964년 6월에 아프리카-아메리카통합기구를 설립하고 미국 내 흑인의 권리향상, 나아가서 분립독립까지 모색하였다.



의 풍요 속에서 버림받은 빈민층의 빈곤타파를 위한 실천운동으로서 미국의 뉴-레프트운동 중 그 성격이 사회주의적 특징에 가장 근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뉴-레프트운동을 시종일관 주도했고 이 운동을 절정에 이르게 한 핵심세력으로 학생세력을 들 수 있다(김동근 1993, 54). 학생운동단체 중 가장 전통적·이론적이고 기반이 튼튼한 것은 뉴-레프트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민주사회학생동맹이었다. 이것은 산업민주학생동맹의 계승조직으로서 헤이든 등의 민주사회주의적인 학생들이 창설하였다. 이 조직은 한때는 전국 각 대학에 300개의 지회와 35,000명의 회원을 자랑하면서, 1969년의 분열 때까지 독자적인 조직으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1964년 9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분교에서 월남전 반대투쟁과 함께 일어난 자유언론운동(Free Speech movement)은 학생들이 뉴-레프트운동에 압도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관료화되고 비인간적 구조에 의해 조작된 ‘지식공장’으로 전락한 대학의 현실상황을 비판하고 “학교 행정당국은 학생들의 의사발표의 내용과 정치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버클리분쟁은 곧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연좌농성, 그리고 대학 측의 경찰 개입 요청, 이어 학생들의 대규모 대학본부 점거, 동맹휴학, 일부교수들의 동조적 수업 포기 등으로 점차 격화되었다가, 1965년 2월, 미군의 북폭 개시 후에는 ‘월남의 날 위원회’(Vietnam-Day\_Committee)가 결성되고, 자유언론운동은 이제는 학원운동이라기 보다는 반체제운동의 일환으로 그 성격적 변화를 보였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의 진보세력을 대표해 오던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이들의 통렬한 비판이 이 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이후 각지의 학생파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김동근 2005, 48).

뉴-레프트운동은 60년대 중반 이후 점차 폭력화되었다. 경찰이나 주방위군의 저지군과 학생들이 충돌하여 쌍방간에 많은 사상자가 나왔고, 드디어 미국 내의 저명인사, 여성들 그리고 민권운동단체들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1970년 봄, 미군의 캄보디아 침공이 보도되자 이 운동은 절정에 이르러, 범시민적 불복종운동, 대중적 규모의 난동, 대학 캠퍼스내의 폭력사태, 수많은 학교의 폐쇄조치 등으로 이어졌다.

세계를 휩쓸던 뉴-레프트운동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서서히 식어갔고, 마침내 1980년에는 보수파의 기수인 레이건이 대통령



에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 변화의 원인은 월남전의 종식, 경기후퇴와 노동수요의 감소, 일본·유럽의 경제적 발전과 소련의 군사적 위협의 증대 등이 미국인들의 의식을 우경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뉴-레프트들의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혼재성은 운동의 공동목표를 분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수세력이 주도단체들을 좌지우지 하였기 때문이다. 의해 쉽사리 좌지우지 되었다. 더욱이 그들의 모호한 인본주의적 저항은 제국주의 등과 같은 복잡한 현상들과 대결 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본격적인 급진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 이론과 실천형태로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점차 자각하게 되었던 것이다(김동근 2005, 49).

80년대의 이후의 뉴-레프트는 기성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사회적 제가치에 대한 회의가 여전히 존재 했으나, 성급한 혁명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이 현실적으로 더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 60년대 및 70년대의 뉴-레프트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국가적인 문제보다는 생활주변의 문제를 학생운동의 과제로 삼고, 학교내외의 환경문제 관여, 공직 입후보, 로비 활동 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전형적인 예로써 온건파들이 중심이 된 대학재건동맹(Students for a Resructured University)을 조직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상에 살펴본 미국의 사회운동의 특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미국의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은 지식인 중심의 학생들이었다. 두 번째 미국의 사회운동은 반전·반체제 운동으로 시작하여 평화·인권운동으로 변모하였다. 세 번째 사회운동은 비교적 온건하고 우경화된 형태를 띠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회운동 또한 결국은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것은 최근까지도 사회주의 운동의 중요한 하나의 형태로 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운동이 본격적인 사회주의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사회운동은 노조운동과 정당운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경화 경향이 강했는데, 특히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학생운동이 경우 정부의 압력 외에도 자체적인 현실인식이 큰 작용을 하였다. 이는 경제적 조합주의로 인한 노조운동의 우경화 경향과 유사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사회운동은 기존의 사회주의운동과는 달리 처음부터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이는 미국 예외주의에서 거론되었던 미국인들의 실용주의적인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정당운동, 노동운동, 사

회운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세 운동 모두 한계를 보였다. 물론 그 전개 과정과 흥망성쇠의 과정에서 상이성이 존재하지만 세운동 모두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 제5장 미국 예외주의 이론의 재구성

본문에서 이미 고찰한 것과 같이 쯔바르트식 질문으로 대표되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고전적 해석은 이제 폐기되어야 할지 모른다(Dawley 1988, 315). 쯔바르트식 질문이 상정했던 것과 달리, 미국의 노동자들은 자유주의적 합의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현상 유지만을 선호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계급 형성의 장애물로 간주되었던 경제적 풍요 및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실제로 그리 큰 장애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 뿐 아니라 서유럽 국가에서도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성공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는 더 이상 미국 예외주의가 될 수 없을 것이다(백창재 2003, 127).

그러나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고전적 해석이 폐기처분되어야 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적 예외주의는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노동운동과 노조의 영향력, 그리고 국가의 노동정책을 비교사적 관점에서 검토할 때, 규명되어야 할 특징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장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서구 각국과 비교하여 생활수준은 높지만 세금이 낮고 복지제도가 빈약하며 임금의 불평등이나 빈부격차가 크다는 특징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부의 분배의 방식은 시장 의존적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특징의 이면에는 노조의 지속적 쇠락과 사회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단일한 정치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의 부재라는 요인이 있다. 립셋과 마르크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민주의적 정치 참여와 강력한 노조의 결성이 광범위한 복지제도와 보다 평등한 경제정책의 수립이 선결조건이라고 한다면, 그 같은 선결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미국은 여전히 예외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따라서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성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Dawley 1988, 315).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대체적으로 지리멸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주의는 미국의 자유주의와 더불어

미국의 예외주의적 사상에 고무되어 있는 미국인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의문을 던지고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긴요한 소수자’로서 역할을 하였다(김동근 1993). 즉 미국의 사회주의는 분명한 저력을 가지고 여전히 실재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 사회주의가 하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적 예외주의는 폐기되어야 하는 과거의 질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현재적 질문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미국의 현실 속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왜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왜 미국노동자들은 정치 영역이나 정치과정에서 서구 선진국가의 노사관계와 비교했을 때에 제한된 정도의 영향력만을 행사했는가?”가 될 것이다.<sup>1)</sup> 법의 역할을 강조한 해턴과 포베스, 급진주의자들의 비현실주의적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한 립셋과 막스, 그리고 ‘규정적 조건’으로 작용하는 자유주의의 역할을 강조했던 카츠넬슨의 연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보다 정교한 답변을 시도한 사례이다(김진희 2004, 123-124). 또한,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미국 예외주의는 과거와 같은 근본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비교사적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일한 “예외주의”가 아니라 수많은 “예외주의” 중 하나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Zolberg 1986, 454-455).

이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미국예외주의에 대한 고전적 해석들과 새로운 해석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미국 사회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반으로 그것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보다 적실성 있는 미국 예외주의 요인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 제1절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성과

20세기는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환기였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형태가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형태도 변화를 겪었고, 20세기 자본주의의 기초가 정립되었으며, 사회주의적 정치세력이 제도화되었다.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정당이 결성되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의 제도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미국과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

1) Melvyn Dubofsky, "American Industrial Workers and Political Parties from Roosevelt to Reagan," *Hard Work: The Making of Labor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0), p. 151. 노동사가 듀밥스키에 의하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국 노동과 정치의 관계에 천착하는 학자들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 제기에서 탈피할 수 없다. 그것은 “첫째, 왜 미국에서 사회당, 민주당, 혹은 사민당이 대중적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가. 둘째, 왜 미국노동자들은 정치 영역이나 정치과정에서 서구 선진국가의 노사관계와 비교했을 때에 제한된 정도의 영향력만을 행사했는가?”이다.

가들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졌다. 선진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정권을 잡고 '제 3의길'을 추구했던 반면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여전히 충분한 사회적 지지기반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 대부분은 19세기 후반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변화를 겪었으며 이후 사회주의 세력이 국가의 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1900년대, 1930년대, 1960년대에 각각 절정에 달했지만 30년을 주기로 쇠퇴하였다. 특이한 것은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되어 자연스럽게 이론적인 발전을 겪으면서 진화되어 간 반면, 미국의 사회주의는 각각 다른 계기속에서 일정한 주기의 흥망성쇠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즉 1900년대의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여타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되었다면, 3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은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 무정부주의적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가 집합되면서 시작되었고, 6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것들과 더불어 미국의 고유한 사회적 전통과 관습이 접합되면서 미국만의 고유한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즉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주기적 흥망성쇠로 인하여 일정한 단절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자신의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운동의 특성은 그 주체들이 활동에 의해서도 명확히 구분된다. 19세기에 들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산만하게 전개되어 오던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19세기 후반에 미국노동총연맹과 사회주의노동당이 결성되면서 그 중심점을 찾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이후에 노동운동과 정당운동은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세기 초의 진보주의 노동기에는 새로 출범한 중도파 주도의 사회당, 좌파 주도의 세계공산노동자연맹, 그리고 우파 주도의 노동총연맹이 자신의 세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차 대전과 그 이후의 미국경제 활황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쇠퇴해졌으나, 30년대의 대공황을 맞이하여 다시 활성화 되었다. 뉴딜 정책기에는 전시말미에 창설된 공산당과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학생세력이 이 운동의 또 다른 주도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진보주의시기가 그랬던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쇠퇴하였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미국정치에 있어서 대중적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운동의 대체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60년대의 학

생 중심의 뉴-레프트였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의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이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면서 보다 종합적인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사회주의의 상대적 취약성은 미국 노동사에 대한 설명 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미국의 초기 사회주의 도입기인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에서 사회주의의 발전을 방해하는 몇몇 요인들만 없다면, 미국에서도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이 예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자본주의를 계속 발전시켰으며 다른 선진국들과는 상이한 예외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20세기 초 쏘바르트(Sombart)는 미국의 사회주의가 절정기에 이르렀던 20세기 전반기에서조차 대중적인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국 사회주의 정당의 취약성을 '사회주의 부재'로 결론내리면서 미국의 다양한 특수한 요인들, 봉건제의 부재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상대적으로 우월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그것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Sombart 1976, 15-24).

이후 30년대에 이르러서 미국 사회주의의 최고 절정기를 맞이하자, 곧 쏘바르트의 주장에 반박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이 당시 쏘바르트의 주장에 반박을 했던 월퀴트와 포너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은 '부재론'의 부당성과 더불어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다시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뉴딜정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황이 해소되자 다시금 사회주의가 쇠퇴하고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각광받게 되었다(김진희 2004, 116).

1940-60년대에 펄먼을 비롯한 위스콘신 학파들은 쏘바르트의 주장을 보다 보완하고 강화시켰다. 그들은 미국 노동운동을 주로 노동조합이라는 제도를 중심으로서 서술하였는데, 쏘바르트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미국 사회주의의 취약성에 대한 숙명론적 설명을 시도하였다(Perlman 1949, 17-24). 즉, 그것들은 대체로 미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요인 때문에 사회주의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웠으므로, 노동운동이 존재했다라도 비사회주의적, 친자본주의적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들의 의식도 계급의식이 아니라 직업의식으로 제한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설명경향은 미국 사회의 환경적, 역사적 조건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적 전통을 강조하거나, 미국 사회의 계급적 성격(특히 20세기 중엽이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논의들은 봉건제의 부재, 프런티어의 존재 등의 미국 사회의 환경적, 역사적 조건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적 전통을 강



조하면서 미국 사회의 계급적 성격을 부정하였다.

위스콘신 학파의 설명은 미국 노동사 해석의 주류의 경향으로 굳어졌으나, 뉴-레프트 운동의 확산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1960년대 시작된 뉴-레프트 운동은 미국 노동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는 ‘신좌파’들을 만들어 내었다. 신좌파는 ‘사회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문화에 주목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문화와 맹아적인 계급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았다. 신좌파는 주로 19세기의 노동계급 문화를 연구하여 미국의 노동자들도 작업장 경험에 기초하여 계급적 전통과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밝혀냈다. 예컨대, 데이비스에 의하면, 비록 미국에서 자코뱅주의적 전통이 미약했다고 하더라도, 작업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정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은 ‘직업의식’에 갇혀있지 않고 계급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Davis 1987, 12-17). 신좌파는 그들의 문화적 연구들에 기초하여 미국의 노동운동도 유럽의 노동운동에 비해 손색이 없었고,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더욱 투쟁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신좌파의 연구는 위스콘신 학파의 합 의사학적 가정을 부정하는 것이다.

신좌파는 새로운 설명틀을 모색하면서 ‘사회주의의 부재’에 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즉, 신좌파는 문화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제도’에 관한 연구를 조심스럽게 분석틀에 도입하였고, ‘사회주의 부재’와 관련하여 이전의 논의가 위스콘신학파의 숙명론적 설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새롭게 정의하였다(Brody 1993, 17-19). 신좌파는 ‘사회주의 부재’ 명제가 미국에 사회주의가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미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발생한 것’을 정당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Dawley 1989, 164). 이러한 제안과 시도는 ‘역사적 방법론’에 따라 ‘사회주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역사적 현실을 미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규명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sup>2)</sup>

그렇지만, 신좌파의 연구는 미국의 사회주의가 대중적 계급정당의 건설에 성공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즉, 미국의 노동자들도 유럽의 노동자들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투쟁적이었고 계급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혀내지 못했다(고병웅 2000, 275-278). 이러한

2) G. Mink, *Old Labor and New Immigrant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Union, Party and State, 1875-1920* (Ithaca, 1986), pp. 35-37. 이러한 신좌파의 관점에 대한 비판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나의 방향은 위스콘신 학파적 설명틀에 기초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네오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첫 번째 경향의 비판으로서, 민크는 실제 역사과정과 유럽과의 비교에 기초하여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이 계급기초적이었고, 국가의 탄압에 의해 질식되었다는 신좌파의 핵심적인 두 가정을 부정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중간계급적 제휴를 더 강화한 원인에 대해서 필면의 통찰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당시 미국노동연합의 보수주의가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신좌파가 노동운동의 사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과가 '사회의 역사'에 대한 서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신좌파의 연구방법론에 내재한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신좌파의 문화적 연구는 '사회관계'에 주목을 하여 시작하였음에도 문화라는 부분에만 매몰되어 문화와 제도의 관계나 그 사이의 구조적 요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미국 정당정치가 좌파정당의 부재를 특징으로 한다고 해서 계급정치나 경제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간의 연구들은 미국 정당정치가 시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계급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미국의 정당정치는 계급정치의 특수한 형태를 보여준다. 즉 정당정치의 구도가 유럽과 달리 자본과 노동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당 대 진보정당'의 구도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지배세력간의 경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사회주의 정당의 존재가치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현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역사적으로 그 존재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 본적이 없었다. 이는 유럽과 비교했을 경우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더욱이 오랫동안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마르크스주의 노선'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왔다는 점이 미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이 그 존재가치나 연구가치가 없다고 간주한다면 미국 역사의 한 단면만을 보는 오류, 즉 역사적 변화의 과정을 무시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의 궤적을 바라보는 것이다.

미국 정당정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역사적 변천은 지배세력(보수양당)간의 권력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그 변동의 동인은 계급정치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뉴딜연합시기가 그 실증적 사례가 될 것이다. 물론 그 역할의 한계성으로 사회변동의 주체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사회적 모순을 인식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주창하였던 사실만으로도 미국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소홀히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20세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그들이 지켜왔던 사회주의적 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수정하게 된다. '제3의 길', '신자유주의' 같은 사상적 조류가 도래함으로써 그들이 고수해왔던 사회주의는 더 이상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못하였다. 실제적으로 1996년 창당대회에서 미국 노동당은 그 강령이나 규약을 통해 당의 성격을 이념적으로 뚜렷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단지 미국 노동당이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영역 별로 또는 항목별로 정리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진 것

이 전부였다. 예컨대 노동자 계급정당임을 분명히 주장하지 않았고 더불어 사회주의 등의 정치적 이념도 천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노동, 복지, 경제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보적 사회정책을 항목별로 천명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다음은 미국 노동당 1차 전당 대회 채택 결의안 중 일부이다.

노동당은 그 대표들이 노동계급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위치에 당선될 수 있도록 공직 후보를 내세울 것이다. 우리는 노동당의 목표와 우선적 관심을 신장 시킬 수 있도록 각급 정부에 도전할 것이다.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노동당이 선출하는 공직자는 당원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당 대회에서 설정된 당의 입장을 따라야만 한다. 우리는 선거를 중요한 전술로 채택하지만 그것을 노동계급의 권력획득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른 정당들과 달리 노동당은 선거 전과 선거과정, 그리고 선거 후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와 작업장 그리고 노조들 속에서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노동당의 후보들은 우리의 기본적인 조직적 기준들에 부합하는 한에서만 출마가 가능하다. 노동당은 선거 캠페인과 그 전후의 시기에 노동계급의 정치적 동원화, 당조직의 발전과 당세의 신장, 지역사회와 노동연대 조직들과의 관계 강화에 목표를 둘 것이다.<sup>3)</sup>

위의 결의안을 통해서 추론해 보건대, 미국의 사회주의 정당들 역시 유럽의 좌파정권들이 그랬듯이 사회주의의 맹목적 추종만이 능사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자와 노동당원들도 자유주의자들처럼 국가를 보는 시각이 자유주의적 틀 안에서 다원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노동운동(사회주의 운동)은 자본과의 대립 및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타협 혹은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에서 사회주의의 실패를 단순히 자본주의의 승리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수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부분적 결합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과거처럼 선명하게 대립된 체제 사이의 선택이 아닌, 다양한 정책적 조합을 추구하게 되었다. 보수 양당은 사회주의 정당이 내세운 정책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사회를 분자화된 개인들의 조합으로 인식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존재하는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

3) 미국노동당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labornet.org>) 노동당 1차 전당대회 채택 결의안 중 선거전략 부분에서 인용.

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적 체제를 꿈꾸었던 사회주의의 기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운동의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세력이자 ‘긴요한 소수자’로서 활동하였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제2절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제약요인

서구 산업국가들 중에서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사회주의가 정치조직의 강령으로서 뿌리내리지 못하여,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사민당과 같은 사회주의적 정당으로 제 1급의 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미국 역사상 사회주의가 가장 강성하던 1차대전 직전, 사회당(Socialist Party)은 십만 명의 회원을 가졌었고 1912년에 유진 뎀스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5.99%의 투표율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사회주의자 후보로서는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린 사건으로 기록되는데, 이는 바로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국민들에게 강력한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2차대전 후 사회주의 정당 활동은 상당히 약화되었다. 1901년에 세워진 이래 사회주의 정당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해 오면서 현재에도 미국민주사회당(DSA), 미국사회민주당(SDU), 사회노동당(SWP), 노동당(LP), 미국공산당(CPU), 등의 이름으로 부지기수로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극소수의 회원으로 명맥을 유지할 뿐으로서 현재 가장 큰 사회주의 정당인 미국민주사회당의 회원 수는 11,000명에 불과하다. 결국 지금까지 이러한 정당들의 존재하고, 유지되는 것에 우리는 평등의 이상이 아주 사라지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김형인 1991, 128).

이렇듯 사회주의 운동이 미국이라는 땅에서만큼은 그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이유는 수없이 많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이를 크게 정치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세부 분류에는 우선 정치적 요인으로, 미국 기성체제의 정치사상, 정치체제, 개혁정책 및 사회주의운동 탄압정책,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들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체제 및 경기변화, 우파의 방해활동, 그리고 사회계급 및 노동운동의 성격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치노선의 문제와 노동문제 등이 또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 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정당 및 정치단체, 노동단체, 학생세력 등의 이념노선과 운영문제 등도 포함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김동근 1993, 137).

이러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위에서 고찰했던 기존의 이론들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여보자(표 5-1 참고).

<표 5-1> 미국 예외주의의 구성요인

학자/ 요인	합의설	정치사상적 요인	정치체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좀바르트	인정	-자유주의 -평등주의	-양당제의 요인	-자본주의의 성공 -풍족한 자원 - 사회적 기회 균등	-친자본주의 성향의 노조와 조합원들
헌팅턴	인정	-입헌주의 -자유주의 (미국적 신조)	-연방 헌법 -연방제도 -선거제도	-미국적 신조	-미국적 신조
포너 윌렌츠	부정	-자유주의적 영향 비판 -급진주의적 성향이 존재 하였음	-유럽에서도 사회주의 정당의 성공한 것은 아님	-경제적 풍요의 영향 없음 -사회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운동 존재	-부채론에 기반하고 있음 -노동운동은 탈정치화 하지 않음 - 다인종. 다문화 영향 거의 없음
새넌	인정	-실용주의	-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변화 실패 - 양당제의 고착화	-실용주의	-계급의식의 약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혼동
립셋	인정	-봉건제의 부재 -자유주의 -반국가주의	- 주어진 선거권 - 헌정 및 선거체계 -야당체계의 유연함 -급진적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	-생활수준의 상향평준화 - 계층 상승의 기회 확대	-주변화 된 집단의 정치적 고립화 와 저조한 투표율 -안정된 공동체 기반 결여 -다인종. 다문화 영향

자료: 김동근,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대구: 정림사, 2005)와 김진희, “미국적 예외주



의, 혹은 ‘좀바르트식 질문’에 대한 재고찰”, 『미국학 논집』 36-2, 2004.의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한 것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존의 예외주의에 대한 이론들은 크게 고전적 해석과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기존의 이론에 대한 재해석으로 정리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론들 중에 지금의 시대에 가장 적실성 있는 이론은 재해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해석의 경우도 여전히 미국예외주의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미국예외주의 제약요인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 1) 정치·경제적 요인

한나라의 정치문화는 그 나라 국민들이 정치제도나 정치적 권위에 대해 인식하는 태도와 경향성을 의미한다. 정치문화는 사회의 환경으로부터 연유하기도 하지만, 한 사회의 사회적 환경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정치문화에 대한 검토와 정치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사상에 대한 고찰은 미국인들이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척도이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나 미국 정치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미국의 예외성을 인정하며, 미국이 유럽이라는 뿌리에서 나왔지만 유럽과는 다른 독특한 정치사를 경험해 왔다는 점을 전제하거나 그것을 결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정치학에서 주류전통으로 내려왔으며, 보수주의자들의 주장하는 애국적 성격을 강하게 띤 소위 ‘합의 이론’의 관점과 상당한 부분이 일치한다.<sup>4)</sup> 이 둘은 비록 자유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이 서구와 성격이 다른 특수성을 주장하는데는 또 다른 배경이 있다. 서구 문명은 서서히 고대에서 근대로 이행되어 왔지만 미국은 ‘혁명의 시대’에 신대륙으로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유럽이 경험한 ‘고대’와 ‘근대’가 불가피하게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러한 이유로 두 시대가 융합된 복합적 문명이 나타

4) J. Higham, *History, Professional Scholarship in America* (Baltimore, Hopkins University Press, 1965) p. 125. 합의 이론이란, 미국은 그 뿌리인 유럽과 달리 봉건 잔재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으며, 자유를 지향하는 미국의 정치와 사회는 역사적으로 단일한, 그리고 합의된 이념(그것이 자유주의든, 아니면 공화주의든)을 구현해 왔고, 그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계급 대립이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별로 없는 독특한 나라라는 인식 태도를 통칭하는 것이다.

났다. 즉 고대 공화주의와 근대 자유주의가 청교도주의라는 시민종교의 굴레 안에서 융합하게 됨으로써 서구와는 다른 색깔의 독특한 특수성을 띤 미국적 세계관을 형성했고 이것이 미국 정치를 지배해 온 ‘미국 정치 문명’으로 고착되었다(김동근 2005, 56-57). 서유럽 문명권의 국가가 피를 나눈 역사적 민족과 그 집단적 기억이 교차되면서 형성된 민족 국가인 데 반해서 미국은 그 역순을 밟은 나라인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은 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기억보다는 국가의 설계 과정을 지배한 이념이 정치적 주체로 대접받게 되고 또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독립혁명과 미합중국의 설계를 관장한 정치적 담론과 이데올로기들은 단순한 역사적 장신구가 아니라 공인된 미국의 정신으로서 언제나 ‘현재의 미국’에 존재하면서 정치적 응집력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다(권기준 2005, 58).

이러한 미국 정치를 지배하는 ‘세계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미국 정치 연구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미국 정치의 토대를 밝혀야만 미국의 정치적 행위와 그 담론을 에워싸고 있는 ‘사상적 틀’을 볼 수 있고, 그러한 틀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국예외주의의 본질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러한 정치적 요인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1) 정치사상적 요인

미국의 예외주의에 있어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보수주의, 두 번째 건국 이래 꾸준히 미국인의 삶의 판단기준이 되어온 실용주의,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와 더불어 오랜 시간동안 미국의 사회주의의 발전을 막아온 대중주의이다.

성장기의 미국은 자유의 나라였다. 미국의 근세의 세계사에서 개혁의 속도가 빨랐던 것은 두 가지 역사적인 조건 때문이다. 하나는 유럽에서와 같은 봉건적 전통과 그 제도적 잔재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부담에서 미리 해방된 상태에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이라는 정치체제가 처음부터 유럽적 상황에 반발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혁명적인 인적 구성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정치사상적 특징은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는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면서도 그 주도세력은 항상 온건한 중도우파나 중도좌파적 입장이었고, 그 중심에는 자유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양

한 이데올로기들을 융합시켜 왔던 것이다(김동근 2005, 56-57).

이러한 자유주의는 미국이 평등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사회주의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혹은 자연스럽게 융합하여 미국 정치에서 상당한 위치에 놓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정치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자유주의를 따로 이야기 할 수도 없지만 자유주의만을 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다. 특히 미국의 예외주의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만으로 이를 설명하기에는 난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국의 보수성을 이해하려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뿐만 아니라 청교도정신까지 모두 용해된 보다 큰 틀을 설정해야 한다. 말하자면 애초부터 미국을 보수화 시킨 포괄적인 이데올로기를 상정해야만 하는 것이다(김동근 2005, 178-180).

이러한 보수적 아메리카니즘은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이유는 인위적 평등과 급진적 개혁 이념을 완벽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주의적 특성 때문이다(Wiebe 1975, 5). 즉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평등의 요소가 자유주의를 억누르고 탄압한다고 미국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자연스레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역사는 평등의 종류와 정도를 둘러싼 대립을 축으로 해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 평등의 내용변화, 즉 평등주의의 급진화가 미국 정치의 중요한 변화 원인이 되었다(호프스테드 1976, 129-135). 그런데 정치 문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현상인,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공존하고 융합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갈등이야말로 사회주의와 같은 공동체 이데올로기와 융합하여 사회주의 정당의 등장을 부추기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적어도 유럽의 관점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한 상황일지라도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권력을 경계하려는’ 개인주의가 ‘국가 권력을 활용하려는’ 평등주의와 특별한 대립 없이 자연스럽게 연합하는 특이한 정치·문화적 전통이 지배해 왔다. 결국 유럽에서는 평등의 종류와 정도를 둘러싼 대립의 산물로써 등장했던 사회주의 정당이 미국에서는 자체적 융합의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적 보수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곧 사회주의가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요인을 생성시켰다.

‘미국적 보수주의’와 더불어 미국의 지배적인 ‘사상체계’ 혹은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사상 체계는 ‘미국적 실용주의’이다. 19세기 미국 애국주

의 역사학의 대부 벤크로프는 미국을 전 세계 문명이 융합된 결정판으로 인식했다 (Bancroft 2008, 24). 유럽의 각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연방제 원리와 사상적 관용의 정신을 모두 모아서 하나로 녹여 인류의 보편적 정치체제로 태어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녹아 있는 용광로 같은 미국에서는 독특한 생활양식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양식의 중심에는 짧은 역사로 인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론과 사상이 서있다.

미국에서 실용주의는 그 철학적 근거를 영국의 경험론에 두고, 현실적 근거를 미국의 생활양식에 둔 철학이라기보다는 사상이로서, 사상이라기보다는 생활양식으로 그 본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이보형 1986, 24). 미국의 철학은 처음 반카톨릭의 엄격한 퓨리티즘에서 강한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1870년대부터 퍼스, 제임스, 듀이 등에 의해 제창된 실용주의가 미국의 주류 철학으로 등장했다.<sup>5)</sup> 그 후 지금까지 다양한 사상이 출현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질·기계문명의 밑바탕에는 지금까지 ‘실용주의’가 그 토대가 되고 있다(이보형 1986, 13-19).

미국 역사 초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초기 이민자들은 강한 국기심과 목적의식,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척자라는 책임의식이 강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노력으로 후손들은 보다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선민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인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이란 부분에서는 최대한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였다. 즉, 이민은 생존이란 의미에서 극도로 실제적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인들은 그 이후의 역사적인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주요한 기본원리를 확고히 견지를 했지만, 그 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선택을 하였다. 그들은 정착과 건국의 과정에서 독립전쟁을 경험했고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남북전쟁을 비롯해서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언제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건국초기의 가치인 근면과 성실을 강조하는 청교도주의, 특히 프로테스탄트적인 교리에 따라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자본주의라는 틀을 끝까지 유지하였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지속성은 미국인들에게 경제적인 성공과 자신들의 사상에 대한 보다 강한 신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신

5) 퍼스와 제임스 그리고 듀이에 관해서는 존 듀이 저, 미국학연구소 역,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p. 330-336 참조.

들의 사상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공고하여 졌고, 그럴수록 미국은 보다 강성해져 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수단의 변화를 통하여 충분히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즉 미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성공의 이면에는 미국인들의 실용주의적 유연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독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지만 구체화하지 못했던 ‘실용주의’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고 결국 그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탱해온 사상적 토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 미국의 문화는 대중적인 것, 심리적인 것, 편리한 것으로 급속도로 정립되어 갔다. 이것은 동양의 정신문명과 매우 다른 화려한 물질문명으로 세계사를 통틀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미국에서 창조된 새로운 문화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인의 실용적 기질은 역사적으로 과격한 변혁을 제어하는 안전판으로도 작용해 왔다. 진보·혁신주의 시기와 뉴딜 시기 같이 사회 변혁의 물결이 강력한 시점에서든 그 개혁은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정치에 있어서 원칙이나 명분보다는 그 과정과 실리를 중요시 했다. 그래서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원칙을 근거하여 정치적인 대립은 있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극한 대립이 아닌 실리적인 타협을 통한 다수의 합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실용성’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속도와 정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실용성’은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내세운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유토피아’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냉담했던 이유였다. 물론 ‘미국적 보수주의’의 영향도 없지는 않지만, 이보다 더욱 강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미국인들의 실용주의였다. 실용성을 강조하는 미국인들에게 사회주의는 그들이 원하는 혹은 그 필요성을 느낄만한 그 무엇도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개인보다는 집단 혹은 조직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미국인들에게는 ‘사회주의’가 매력적이지 못했고, 충분히 ‘공화주의’적 평등의 개념으로도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미국의 정치사상을 개관해 보면, 건국 이래 개인주의와 대중주의가 병존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와 함께 대중주의는 미국인의 사상적 뿌리였다. 그것은 건국 이전의 개척 시대의 개척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들의 이데올로기였



다. 대중주의의 뿌리는 제퍼슨적·잭슨적 교리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공업화 경제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부채와 채권자로부터의 보다 큰 자유와 부에 대한 소농의 요구로서 시작하였다. 그것은 곧 미국의 노동운동의 토대를 발전시키고, 노동운동의 전개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 및 사회질서의 계속성과 적절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그러한 체제의 요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것은 자본주의의 대안을 강구하지 못하게 하였고 노동운동이 “사무적으로” 되게 하였으며, 대폭적인 사회변화의 토대로서 이바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고용주와 숙련노동자의 타협을 모색하였다.

사회주의가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중주의는 과거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보다 일반화된 의미에서 “옛 가치”를 흠모하고 생활이 보다 단순하고 좋았으며 보다 실현 가능했던 일부 옛 시절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박민영 2008, 284). 그것은 또한 미래 대한 계획이 적을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

대중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러한 차이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대중주의의 노동운동을 위한 오랜 투쟁은 사회주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대중적 기반을 얻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쇠퇴의 길로 빠트리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대중주의의 핵심에 있는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의 가치와 물질주의의 형태를 거부하면서, 경쟁적 자유주의를 파괴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본다. 반면 대중주의는 미국의 기본적인 신념과 유리되지 않고도 급진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그것의 매력은 매우 강렬하였고, 실제로 토착 미국인들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대중주의는 미국적인 급진 이데올로기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다. 대중주의는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서 잠재적으로 놓여 있다. 정부의 정책에 속았다거나 미국적 사회질서를 반대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우선 대중주의로 전향하기 쉽다. 대중주의가 미국의 소외된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 놓은 나머지 사회주의로 나아갈 길을 차단해 버렸다(김동근 2005, 66-69).

## (2) 정치체제적 요인

미국에서 국가를 불신하는 경향은 이미 건국 초기 식민지시대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종교적·정치적으로 “부당한 국가의 억압”을 피해서 이주했던 그들에게 국

가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악적인 존재였다. 식민지 개척을 위한 한 세기동안에도 여전히 영국은 종교적인 탄압과 더불어 미국인들에게 많은 관세와 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다. 그 이후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하여 무너지는 왕권을 보면서 미국 땅에 건너온 이민자들의 뇌리에는 국가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지면 ‘시민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불신이 싹텄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감성은 국가건설 시기에 특히 입법부가 행정적 역량과 군통솔권을 장악한다면 크롬웰의 독재와 같은 경우를 재현할까봐 우려하였다. 그들은 국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일지라도 의회에 너무 큰 권력이 부여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꼈다. 이에 따라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의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분리시켰다. 그 결과 그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국가 수립의 중요한 초석으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권력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정책 결정의 경로를 까다롭게 해 놓음으로써 정치적 권력이 한 집단이나 조직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미국 건국초기의 국가 건설자들은 이상과 같은 그들의 정치적 경험 위에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사상을 수용하면서 절묘하게 권력의 분할 체제를 완성시켰다(김형인 2001, 137).

미국의 정치체제 역시도 그들의 정치문화와 함께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독특한 면이 있다. 국가를 불신하면서도 정치제도와 헌법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옹호적이다. 국가라는 거대한 틀은 불신하면서도 그 틀을 유지하는 작은 틀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다. 결국 헌법과 정치제도가 국가라는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영국과는 다른 정치제도를 채택하였다. 영국과 서구의 정치체제 대부분이 의원내각제와 다당제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그것은 연방제를 기반으로 한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특징을 보인다. 다른 유수의 국가들과는 달리 ‘선거인단’이란 특이한 제도를 도입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중적 선거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그들 나름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신뢰의 정도도 상당히 높다.

루이스 하츠가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에서 설명했듯이, 미국은 중세적 전통과 권위관념이 없는 신대륙의 토양에서 새로운 자유주의를 발달시킨 국가였다. 그래서 유럽이 경험한 중세적인 굴레로부터 자유로웠던 미국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제한정부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다(손병인 2001, 44). 그렇다면 미국의 독특한 정치체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제도적 존재가 사회주의가 등장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 ① 헌법과 연방제

미국 입헌제도의 특징으로는 연방우위의 연방주의, 공화정제도,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칙, 법의 지배 등을 들 수 있다. 연방제도는 법률에 의해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간의 권력을 분리하는 하나의 정부형태를 말한다. 각각의 정부는 서로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며 직접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한다(서정갑 1994, 89).

헌법에서 구상된 정부의 형태는 정치적 타협과 강력한 정부를 두려워하는 미국인들의 인식으로부터 만들어진 산물이다. 헌법에서 나타난 국가권력과 권한의 분산은 '크고 종합적인' 사안들은 중앙정부에 넘기고 주와 관련된 '지역적인 특정한' 관심사는 주들에게 남겨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점차 영향력이 증가되어 감에 따라 중앙정부 그 자체의 규모도 커져 갔고 동시에 정부 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져 갔다. 어느 의미에서 연방주의는 권력의 자의성을 혐오하고 다양성과 이질성 속에서 조화를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사고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연방제는 중앙정부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구성정부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권력의 자의성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 결국 미국인들은 자유와 연방주의를 동일시했던 것이다. 또한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연방주의 관념은 중앙정부와 주(州)정부 간의 상호 기능적 공유성을 강조하고, 양 정부 상호간에 행사되는 정치적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실적 관념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관념은 중앙정부와 주(州)정부의 상호관계를 사회경제력 뿐만 아니라 정당과 선거제도 같은 중요한 정치적 요인에 따라서 반응하는 지속적인 변화의 관계로서 인식하고 있다(서정갑 1994, 73).

중세를 경험하지 않은 미국의 경우, 유럽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지방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의 집중화와 이의 구현체인 국가의 발달이 미약했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강하였다. 국가라는 집중된 권력에 대한 미국인들의 거부감은 통치자와 피치지간의 간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수반했다. 그러한 이유로 1787년 연방정부의 창

설이후에도 정치권력은 폭정의 방지를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정부기관과 주(州)정부 등 다양한 수준의 정부에 분할되어 있었다. 어떠한 특권적 세력도 통치자와 피치자 간에 방해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건국이념은,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굴절 없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의 반영을 위해 평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의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정치참여의 보편성과 평등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한계를 보이는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많은 미국인들은 더더욱 헌법에 대해서 맹신하는 아이러니를 보인다(잔다 1997, 93-94).

건국과 더불어 논의가 시작된 헌법과 연방제도는 ‘권력의 형태’에 대한 논의였다. 중앙집권은 효율성, 일관성, 획일성이라는 가치들과 연결되고 지방분권은 반응성, 다양성, 특수성이라는 가치들과 동일시된다고 단편적으로 가정했을 경우 미국은 두 가치의 조화를 꾀하였다(서정갑 1994, 287-289). 그러나 헌법의 창시자들이 의도하였던 ‘정치권력의 분립’이라는 측면은 결국 강력한 양당에 의해서 ‘헌법과 연방제’로 합리화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요인들이 결국 사회주의를 구조적으로 배제시켰다.

## ② 선거제도

미국의 정치제도는 헌법과 연방주의에 영향을 받아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와 상·하원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특징으로 선거인단제와 소선거구제를 들 수 있다.<sup>6)</sup>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법은 제3당의 발전이나 소수당 대통령의 선출을 막아, 양당제를 발전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주(州)내에서 승자독점제도는 선거인단선거에서 과반수 요건과 결합할 때는 제3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충분한 득표를 아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 제3당의 후보자에게는 제약이 ‘주어져’ 있어서 제3당은 자신의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선거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어느 후보와 타협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느 한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승자독점의 대통령선거와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인하여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뽑을 수 없고, 선거가 끝나면 승리

6) Lucius Wildering, Jr, *The Electoral College* (Boston, Beacon Press, 1964), pp. 19-20. 김동근 (1993), p. 72 재인용. 미국의 대통령 선출방법으로 선거인단제도를 채택한 것은 건국 당시의 상황에서 기인한다. 즉 당시에는 정보의 결여, 지리적으로 먼 거리, 불충분한 통신기관, 그리고 교육의 저조 등으로 인하여 정보와 통찰력을 갖춘 ‘소수의 중간선거인’에 의한 선출방법이 직선제에 따른 부패와 혼란 및 우민(愚民)정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는 완전히 이긴 쪽의 독점방식이 제3의, 제4의 정당이 제도권 내에 진입하기 어려운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려면, 50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총 5백38표(상원 100명, 하원 435명, 워싱턴 D.C 3명) 중 과반수인 27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표수(票數)는 ‘승자독점’ 제도 때문에 1위 투표자가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표를 몰아 가지려면 그 주(州)안에서 일반투표에서 최고 득표자 1인만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되어 있다.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통령 선거인단제도는 제3당으로서는 대통령을 당선시킬 만큼 충분한 수의 주들을 석권하는 일은 고사하고 어느 주에서도 대통령 선거인단 표를 몰아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3당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립셋이 지적한 것처럼 전국적 이슈가 핵심적 사안이 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당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전국적인 진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Lipset 2006, 116).

또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 군소 정당은 유권자의 충분한 득표를 받기도 역시 쉽지 않다.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다수대표제는 양당구도의 표몰이와 결합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제3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양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게끔 조장한다. 굳이 ‘듀베르제의 법칙’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런 심리적 효과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차태서 2007, 20-21). 그래서 미국의 선거제도는 제3당이 발돋움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애물이 된다. 사실상 강력한 기성 양당제의 존재, 승자독점제의 선거인단제도는 사회주의 정당의 제도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없었던 정치세력은 그 존재가치가 소멸될 수밖에 없었다(Hillquit 1910, 358-365).

한편, 토크빌은 미국의 정당제도의 특징으로서, 미국에는 유럽식의 추상적 원리의 이데올로기적 강령을 가진 세계관(世界觀)적 ‘대(大)정당’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Tocqueville 1948, 175-176). 유럽의 내각책임제 하(下)에서는 의회가 행정수반을 선출한다. 또 이러한 제도를 택한 일부 국가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여 그 경우 유권자가 투표한 한 표는 보다 평등하게 반영된다. 따라서 노동계 소수정당들은 의회 내에서 때로는 제휴하기도 하고 또 소수당을 목표로 정치력을 길러 내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출이고, 승자독



점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사회주의 정당들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원이 상대적으로 소수임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선거에서 민주·공화 양당을 맞설 수가 없다(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83, 28-29).

### ③ 양당제

미국의 기성 정당체계인 양당중심의 정치제도는 사회주의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적인 이슈를 넘어서 사회주의적인 정책까지도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서 내놓으면서 사회주의적인 세력을 흡수하여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정당이 나타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미국이 정당체제하에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거나 혹은 사회주의세력이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Schlesinger, Jr 1993, 43).

미국의 정당은 미국의 정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당의 정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구성기능만 수행해 왔다. 즉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회변화가 있어 왔지만 그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았고, 그 대신 사회변화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가지 요구가 쏟아져 나올 때, 이를 받아들이며 그 요구를 조정하는데 힘을 기울였다.<sup>7)</sup> 이러한 정치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하여 결성된 정당이 뿌리를 내릴 틈은 지극히 비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Chambers 1967, 239-241).

미국 정당정치 역사는 본질적으로 정권을 교대로 통제해 온 두 정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연방, 주, 지방의 공직선거는 모두 양당제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특이한 선거제도의 영향이 컸다(Chambers 1967, 46-47). 이러한 양당제의 고착은 미국 노동자에게 새로운 정당을 선택하기 보다는 양대 정당과의 타협을 통하여 선거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즉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미국인들의 전통은 노동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만들었고 선거제도의 한계를 인지한 노동자들은 결국 양당과의 협상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sup>8)</sup>

7) 미국의 정권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윤용희, 『현대 미국대통령 선거론』(대구: 도서출판 청림, 2002), 참조.

8) 주용중, 『미국정치 현장파일』(서울: 나남출판사, 1999), p. 149. 정치학자 윌리엄 헤셀타인이 일찍이 지적했듯이 미국처럼 이익집단이 다양하고 지역적 차이와 수많은 인종, 경제적 차이가 있는 나라에서 제3당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양당이 거의 2세기 동안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특이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쾨바르트는 이것을 그들의 ‘군거성(群居性 : gregariousness)’이라고 불렀다(Sombart 1976, 40). 따라서 대(大)정당은 계속 강력해지며 그럼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독점은 보장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大)정당이기 때문이 이런 독점을 누리고, 이런 독점을 누리기 때문에 대(大)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제도적 요인이 기성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오랫동안 정권을 교대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大)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타 선거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불어 각 주(州)내에서 새로운 정당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기는 매우 힘들며 비용이 많이 들도록 제도적 안전판을 마련해 놓았다. 그 결과 제3당이 성장하는 데 제한이나 규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는 물음에는 “물론이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 투표법에서는 새 정당이 그 당의 대통령 입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투표 등록자 8만 9천명의 지지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후보등록을 하는 데 양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3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법률이 있다. 이는 주요 정당의 후보만이 등록 가능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이런식의 제 3당의 출현자체를 막아버리는 선거 제도는 굳이 사회주의정당이 아니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그 어떤 정당이 나타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경제적 요인

미국 경제의 특징으로는 풍부한 자원과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도적 보상, 충분한 노동력과 광활한 영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자본주의가 보급되고 적응하기에 적합했다. 사실상 미국의 경제체제의 토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본으로 하면서도 경제적 발전을 이룬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측면까지도 포용하는 수정자본주의 및 복지주의정책을 병행하여 왔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체제를 살펴보자면 미국 자본주의체제의 특성을 먼저 살펴본 후에 그것의 변용인 수정자본주의 및 복지주의정책이 미국 경제를 큰 위기 없이 유지해 왔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미국 경제체제의

---

나라에서는 다당제가 생겼어도 벌써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21세기가 도래했음에도 양당에 대한 환상을 아직 벗어버리지 못하고 양당에 의존하고 있다.

수정 내지 변형이 사회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정당의 활성화를 예방하고 오히려 그 운동의 기반이 될 대부분의 대중들을 흡수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공

미국 자본주의사회의 기본 틀은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이며, 정치적으로는 대의제라고 정의했을 경우,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 특히 가치구조와 행위구조는 본질적으로 경쟁구조이며 따라서 자본주의의 ‘기본성향’은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송복 1991, 106-110).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가 생리적으로 많은 병리현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체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수용탄력성과 그 이데올로기를 담는 특정체제로서의 수정탄력성이라 한다면, 다른 하나는 체제위협에 대한 부단한 위기의식과 그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긴장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단편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체제로서의 자본주의가 가지는 내재적 특징뿐만 아니라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융합으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상 자본주의적 흐름은 자유방임주의와 그것의 수정이 반복되는 과정 즉, 경제성장에 역점을 둔 정책 혹은 자유주의적 정책이 계속되고 나서는 일정한 간격(주기성)으로 ‘복지’가 초점이 되는 변화를 반복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는 다른 이데올로기를 물리치거나 때로는 병행하기도 하면서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독립혁명 이후의 미국경제의 굉장한 발전은 여러 가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의 결합에 기인하였는데,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자본주의의 발전을 기다리는 미(未)개척지의 존재와 충분한 노동력의 공급이었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자본은 없지만 자유롭게 토지를 개척함으로써 독립된 농민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실상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안전성은 그것이 제공한 물질적 혜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산을 확대하여 무산자에게 빵을 나눠 준 결과의 산물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은 사회분열과 갈등을 막는 전통적이고 효율적인 완충 역할을 한 것이다(송복 1991, 106-110). 물질지향적이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적 인간’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학교와 같은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본적 제도들의 정당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기존 체제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경향성은 새로운 정치적 흐름의 등장을 반기지 않는다(Sombart 1976, 8).

그렇지만 자본주의는 언제나 불평등을 양산해 내고 그러한 불평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을 반항에 이르게 하는 것은 빈곤 그 자체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빈곤은 절망과 박탈로 인한 의식적 자괴감을 가지게 한다. 사회주의와 같은 급진주의가 그 세력을 얻게 되는 때는 민중들이, 특히 노동자 계급이 계급차이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인식하면서부터 가능하다. 미국과 같이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그러한 상승의 결과물이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느끼면서 상대적인 만족감을 가질 경우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

엥겔스는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제1단계는…독립 정당과 같은 노동자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에도 유럽적 잣대를 사용하여 그렇게 예상하였다(Lens 1982, 177). 미국의 좌파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조직운동과의 연합을 굳히거나 그 지배에 접근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였다. 그것은 좌파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미국 사회가 유럽의 나라들보다 좌파에 대항해서 훨씬 더 큰 보수주의적 복원력(復原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발전은 이 나라의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방해받아 왔다. 이 요인들은 노동자들 가운데서 뿌리 부르주아(petit-bourgeois)적 환상을 길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자본주의체제의 틀 안에서 그들의 경제적·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제약한 또 하나의 요인은 경제체제와 이에 기반을 두어 세계경제의 선두주자로서 계속되어 온 호황(好況)이었다. 래드 2세는 “미국경제는 다른 어떤 경쟁 경제체제보다 생산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출발해서 1세기 이상이나 꾸준히 인상적인 성과를 기록했다…1840년 이후 미국의 경제는 실제로 연 약 1.6%의 비율로 성장해 왔는데 이것은 물가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1인당소득이 그만큼 성장했음을 뜻한다.”고 기록하고 있다(Ladd, Jr 1972, 49). 미국의 노동자들은 유럽의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경우 높은 소득을 보장받아 왔다.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중간계층이 국민의 다수를 구성한다면 그들은 현상유지를 원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 안정은 정치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쾰바르트를 비롯하여 미국의 사회주의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사회주의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②자본가의 증가와 노동자계급의 지위 향상

유럽에서는 귀족정치와 중간계급간의 날카로운 갈등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래서 그 곳에서는 급진적 계급의식사상이 노동계급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왕정(王廷)이나 귀족정(貴族政)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혁명적 사상이나 투쟁을 경험할 필요도 없었다. 이는 미국의 중간계급인 중산층이 미국 사회에서 주도세력으로 점차 성장할 수 있게 한 동력이기도 했다. 또한 산업화시기를 지나면서 이룩한 경제성장은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계급은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유럽의 노동자는 봉건제도를 거쳐 시민사회로 들어오면서 참정권을 얻기 위해서는 억압적인 봉건제도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도적 제약에 직면해 있는 것만으로도 유럽 노동자들은 계급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개인보다는 계급집단으로서의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단결과 계급의식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유럽의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할만한 경제적·정치적 기회를 부여받았다. 미국의 노동자들은 개인주의적 자유경쟁이라는 바탕 위에서 개척정신이 발달하게 되었고 노동자간에는 계급의식이라는 연대감이 절실하지 못하여 유럽과 같은 '노동자계급'이라는 특정계층을 생각할 수 없었다.

미국 노동자에 있어서 '자유'와 '평등'은 유럽의 계급의식에서처럼 공허하거나 막연한 이상(理想)은 아니었다. 결국 중산층으로 쉽게 편입할 수 있었던 미국의 노동자는 자본주의를 그들이 붕괴시켜야 할 적(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수호자로 인식하였다. 결과적으로 쏘바르트(Sombart)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점차 "부르주아화"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Sombart 1976, 8-9).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보다 큰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 사회 자체가 이들의 주장을 흡수해 버리는 대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미국에서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산업혁명에 앞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계급의식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빈약했고,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일찍이 획득함으로써 그들은 프롤레타리아가 갖는 피해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존재해왔다(Howe 1983, 266).

마르크스는 1852년에 이미 미국의 계급구조의 유연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Marx 1969, 225). 그는 미국에 계급들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것들은 고정되지 않았으며 끊임없는 주민의 유입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계급 간에 서로 이동성이



많다고 논하였다. 이렇게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양당정치를 비롯한 정치체도를 사회주의 발전의 저해 요소라는 관점을 결합시켜보면, 미국의 사회당은 양당구조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선거에서 이기려고 애썼던 정치적 약자였다. 물론 제도적인 제한으로 그 한계성은 인정하더라도, 그들 나름의 독자노선인 순수한 사회주의 강령은 중산층이 되어버린 노동자계급에게 매력 있는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결국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사회당의 존재이유는 사라진 것이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노동자계급이 기층세력으로 등장한 사실은 사회주의적 이념이 건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③복지자본주의의 확산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은 사회주의가 추구하려는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나 임금을 전적으로 통제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허용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으로서는 아마 복지정책의 최고 절정기였던 '뉴딜시기' 만큼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시기는 없을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역사상 최초로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수정주의를 채택하는 일대모험을 감행한 루즈벨트의 뉴딜은 보수·진보 양(兩)진영에 상반되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당면한 국내외적인 위기를 꾸준히 타계함으로써 이후 미국의 복지정책의 근간을 마련한 모델이 되었다.

냉전체제가 끝난 오늘날 미국은 정치적으로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복지제도만큼은 거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불만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은 유럽의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해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복지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역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미국적 가치기준에 의하면 국가가 개입한 '소득의 재분배'는 급진적인 방법일 수 있어서 미국인들에게 이는 거부 대상이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미국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극명해진다. 즉, 미국이 추구하는 복지정책이란 파이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파이의 크기를 키워 절대적인 양을 빈민층에게 보다 많이 제공하여 최저생계 그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에 있어서 '복지

'란 개념은 유럽에서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인식된다. 말하자면 유럽에서는 자본주의의 한계와 그 폐단으로 인하여 등장한 문제들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단순히 빈곤과 실업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할 대안을 모색한다(전창환 2001, 321-322).

한편,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자유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순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수정을 의미한다. '수정자본주의'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것은 경제적 안정과 빈부격차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고전적 자본주의가 소득의 분배에 무관심한 반면,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국가는 최소한의 소득 차이를 보다 완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미국 정부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독점자본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비록 그들의 시책 내용은 사회주의자들의 요구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했지만 루즈벨트와 월슨 같은 집권자들은 진보주의를 내세워 지지기반을 다지면서 그 정책을 적극 실시하였다. 또한 1930년대에 와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수정의 문을 연 뉴딜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한 신진보주의 정책이었다. 물론 이러한 진보적인 정책 역시, 미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즉 파이를 키워서 더 많은 소득을 노동자계급을 포함해서 빈곤층에게 보장해주려는 노력이었음에도 이전의 상황과 비교했을 경우 사회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된 것처럼 보였다(김동근 1993, 119).

미국에서 자본주의체제의 개혁적 시도들은 사회주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사회주의적 사회운동을 제약하는 가장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될 수 있었다. 마르크스의 하부구조결정론에 의하면 한 사회의 체제를 변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경제부문이 되므로, 이 경제부문에 있어서의 갖가지 모순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수정을 통한 변혁을 모색한다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의 세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 2) 사회적 요인

유럽의 경우 사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주적인 정치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는 운동에 자신이 소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사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한 줌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비평가로서 혹은 개혁가로서 미국 정치의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하우는 『반대의 25년 : 미국의 전통』의 서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주의자의 이러한 위치는 하나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즉 미국의 사회주의자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비판과 반성에 대하여 늘 불안에 떨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평가한다(Howe 1979, 8).

초기에 사회주의자들은 다양하고 지방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고, 양대 정당에게 약간은 위협적인 세력도 되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가 그들은 점점 더 보수 양당과 동종(同種)으로 되어 갔다. 미국이 제2차 대전에 개입한 때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같은 성질인 민주사회주의적 평화주의자들로 변모했고, 아주 소수만 남게 되었다. 당원의 견해가 만장일치를 이룬 ‘순수한’ 당은 어떤 것도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정치에 있어서 격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동질적인 당은 다당제의 내각제 하에서는 활성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선거 후에 타협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사회주의 운동 단체 중 정당과 경쟁적 조직이 되기도 하고 그 토대가 되기도 하는 노동조직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단체들은 그 경직성 때문에 모두가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용주의적 노선을 견지한 노총-노조회의(AFL-CIO)만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김동근 1993, 174).

미국 예외주의에 추가적인 설명요인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의 내적 갈등과 그 결과로 표출된 사회주의 정당과의 괴리 현상, 경제적 부문에 편향된 노동운동, 이익갈등구조의 다양성과 이익대표체계의 불평등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주의 정당이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정치노선과 운영의 문제

미국 노동운동의 지도자는 대부분이 지식인이 아닌 노동자 중에서 나왔다. 노총의 창설자로 40년간 위원장직을 맡았던 고퍼즈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노동자였다. 이와 같이 노동자 출신 지도자에 의해 지도된 미국 노동운동은 높은 수준의 철학도 없었고, 장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미숙했다. 다만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 왔을 뿐이었다(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83, 30-31). 그래서 미국에서의 노동운동은 대부분이 단편적인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에만 집착하

게 되었다(Shannon 1955, 3).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는 진보주의적 사조에 힘입은 사회주의 운동이 뿌리를 내리고 미국 정치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이데올로기 정당이 등장했다. 미국의 사회주의로서는 정당운동이나 노동운동의 비교적 초창기라 할 수 있는 당시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이론적 미숙과 주도권 다툼 등으로 인해서 미국 정치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셈이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깊은 이론을 연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출신이 아닌 노동자 출신이었다는 점이 큰 원인이었다. 그들은 피상적인 노선 차이 때문에 이합집산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마침내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치명적인 사건인 사회당과 공산당으로의 대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즉 사회당은 그 내부의 분파적 갈등과 사회당의 지지기반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과의 노선갈등으로 인하여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집권세력과 대립한 것이 아닌, '사회당 對 공산당' 혹은 '사회당 對 노동조합'의 대결구도를 보여 주었다. 게다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심취한 지식인들은 노동자를 사회변혁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계몽의 대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에 있어서 그 간극은 언제나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내적 갈등만으로도 그들은 제도권 내에서 정치 세력화하는데 실패 할 수밖에 없었다.

## (2) 노동운동의 경제적 조합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사회당 또는 노동당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는 사회당이 존재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자는 두 가지 분야에서 시민권을 행사한다. 첫째, 노동자는 일차적으로 경제행위를 담당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주장한다.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조직화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함으로써 임금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꾀하여 왔다. 조직화의 형태는 시대 및 국가에 따라 규모나 수준은 다르지만 노동자들은 언제나 자신에 유리한 조건을 위해 조직화를 추구하였다. 간단히 말해 경제적 합리성은 노동시장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요구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노동시장은 그 고유한 특성상 국가권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국가제도에 의해 규제

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노동시장 외에 정치적 영역으로의 진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정치적 영역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립셋 1982, 193-198).

선진 산업민주주의 노동운동사를 보면 노동시장과 정치적 영역의 민주화는 국가별 편차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은 단순화 지지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라 지지집단의 이익을 정의하고 제한함으로써 정치의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계급에게 정당이 중요한 이유는 정당이 장기적으로 노조를 위시한 노동조직과 더불어 노동계급에게 그들의 집단이익이 무엇인지를 시사해주며 또 선택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어느 방향에서의 조직화가 먼저 시작되었든, 결국에는 두 가지 민주화가 모두 달성되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강명세 2000, 34-35).

유럽의 경우 노동의 조직화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정치 영역으로 진출하는 경로를 밟았다. 노동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진출 또는 정당체제와의 연계는 보편적이다. 노동과 정당의 결합은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는 현상이다(강명세 2000, 34-35).

그러나 미국의 노동운동은 이념의 다양성과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경제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sup>9)</sup>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서구의 노동운동과는 달리 사회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노동당의 건립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계급의식에 기반을 둔 조합주의가 아닌, 직업의식에 기반을 둔 '경제적 조합주의'로 평가된다. 경제적 조합주의란 현존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틀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본가와 협의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및 기타 작업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이념적 입장이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운동은 노조원들만의 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김현희 1997, 2). 그래서 미국의 노동운동은 구조적으로 목표를 경제부문에 집중하는 비정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의 성격을 띤 노조가 정치과정에 적극적인 참가를 조장하고 지지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러한 강력한 노동자계급이 생기지 않았다. 그 원인은 미국의 기성 정당체제가 노동계급에게 개방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개방성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당파적 활동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도록

9) 권기준, "미국 사회주의 정당의 구조적 배제요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98.



만들었고, 노동운동이 정당운동으로 전이(轉移)되는 것을 제한하여 기성 정당체제 내에 흡수한 것이다. 그래서 양당이 지향하는 정당형태는 포괄정당 혹은 인중정당(catch-all party)을 표방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노동계급을 흡수해 왔다. 물론 미국적 정치사상과 정치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개방적 정당체제는 미국 노동운동 내부에 있어서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분리는 곧 사회주의가 정치적으로 세력 확산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 (3) 이익갈등구조의 다양성과 이익대표체제의 불평등성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제3당은 단일 쟁점이나 일련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결성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3당들은 대통령직은 감히 바라보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정치, 사회적 관심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정당을 추구한다(미국해외공보처 1944, 388).

결국 '미국에서의 제3당'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정당으로써의 기능보다는 단일한 쟁점을 여론화시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을 일으키려는 '시민단체(NGO)'의 기능과 흡사하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3당 운동'<sup>10)</sup>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제3당 운동 역시 별다른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이익집단이 명분상 사회내의 다양한 이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는 특정한 사적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소위 '특별이익(special interest)' 혹은 '조직화된 이익(organized interest)'이라고 불리는 사적 이익집단이 정부와 시민 간에, 통치자와 피치자간에 새로운 특권세력으로 등장하여 정책결정과정을 왜곡시키는데 있다. 일반시민의 참여배제는 결국 이들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생산한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익갈등구조가 존재함에도 독점적 이익대표체제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회적 공익과 사회적 소수세력의 이익반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손병권 2001, 100-101).

10) 제3당 운동에 관해서는 하워드 진 저, 조선혜 역, 『미국민중저항사』 (서울 : 일월서각, 1986) 참조.

## 제6장 결 론

어느 사회나 그 사회만이 독특한 역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점에서 모두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정치에 있어서 미국정치는 그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 같은 수준의 예외성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구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혁명을 통해 태어나기 위해, 그리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되기 위해 예외주의적 신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재생산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은 타자와 다르게 우월하다고 믿는 하나의 신조, 혹은 정신적 전통으로 굳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미국적 예외주의는 미국이 이념적 갈등의 정치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질적 이념에 근거한 사회이며, 정치투쟁도 동질적 이념의 실현방법을 둘러싸고 일어난다고 보는 '합의 패러다임'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합의주의적 시각은 자유주의에 고착되어 오직 자유주의만이 타당하고 다른 사조는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자유주의로 변질되었다. 결국 자유주의에서 배태된 미국적 가치와 상충하는 가치, 문화, 사고와 이념은 '비미국적인 것'으로 배척되었다.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서 1906년 쯔바르트는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쯔바르트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 예외주의적인 현상은 크게 여섯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인하였다. 그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노동자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호의를 갖고 있다. 둘째, 노동자가 미국의 정부체제를 신뢰하며 강력한 시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한다. 셋째, 정치적 양당 체제에서 새로운 정당을 발전시키기 어렵다. 넷째, 미국 자본주의가 노동계층에 가져다주는 물질적 풍요가 그들로 하여금 과격한 사상을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섯째, 사회적 신분과 지위 향상의 기회가 미국 노동자들에게는 많다. 여섯째, 미개척지의 존재가 미국 노동자가 투쟁적으로 되는 것을 저해한다.

이러한 쯔바르트의 주장에 대해서 헌팅턴은 또 다른 시각에서 미국예외주의를 설명한다. 헌팅턴은 미국의 예외주의를 논함에 있어서 '미국적 신조'라는 용어로서 미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예외성, 우월성, 특수성을 의미하는 정치사상이자 국가정체성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헌팅턴은 미국의 신조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이론과 사상에 집합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미국적 신조는 크게 두 가지에서 기원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근본법의 중세적 이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입헌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인의 정체적 세계관에 도덕주의, 천년왕국주의, 개인주의를 부여했던 17세기의 프로테스탄티즘이다.

헌팅턴은 18세기 말 혹은 19세기 초 이후 미국에는 어떤 근본적인 정치적 가치와 이념이 존재해 왔으며, 그것들은 “미국의 신조”로 간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조는 미국사회의 대부분 구성원들에 의해서 폭넓게 지지되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수 수정되었지만 신조의 핵심적인 요소는 200년 동안 상대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적 신조’는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수행중인 것이다. 헌팅턴은 이러한 신조가 미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학자의 미국예외주의에 대한 고전적 시각에 대해서 이후 비판을 행하는 학자들과 그것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다. 비판을 행하였던 대표적인 학자로는 포너와 월렌츠를 들 수 있다. 포너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존재하였고, 또 미국의 노동운동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의 정치사상 저변에 깔린 자유주의적 요소와 합의사학적인 요소들이 이러한 비현실적인 주장, 즉 미국 예외주의의 고전적 가설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반박한다.

포너와 유사한 논지에서 월렌츠는 미국 노동자들이 지녔던 급진주의적 유산을 강조한다. 특히 월렌츠는 아메리카 혁명기와 그 직후 대두한 ‘숙련공 공화주의’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숙련공 공화주의를 쾨바르트와 하츠를 필두로 한 고전적 해석을 행한 학자들의 부정했던 ‘계급에 기반한 이데올로기’를 증명하는 사례로서 제시한다. 그는 미국적 가치를 ‘단일한 부르주아 자유주의’로 규정했던 과거의 관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흔히 단일한 성격으로 이해되었던 미국적 가치는 다각적 특성과 가능성을 지녔고, 특정한 역사적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의 원천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과 달리 새넌과 립셋은 기존의 고전적 해석이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대적인 영향으로 인한 내재적 요인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새넌은 사회주의정당들의 또 다른 취약성은 조직노동자들을 자신의 노선 안으로 포용하지 못했고, 그들이 빈번히 대중과 의사교류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민의 다수는 마르크스주의적 전문용어를 이해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하여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당을 이끄는 사람들 또한 이에 대해서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무능한 사람들의 당요직에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새넨은 이러한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정당들의 실패는 원천적으로 그 자신의 결점 때문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그들의 실패는 거의 변화할 수 없거나 변화한 것이 없었던 미국사회의 기본적인 전통과 상황에 보다 더 기인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외적 결과로서 첫째, 사회주의적인 것이든 아니든 간에, 제 3당의 발전은 무엇이든 방해하는 여러 형태의 미국 정치체제를 들었다. 둘째, 미국에서는 그 외의 서방국가들보다 계급의식의 상당히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셋째, 그는 미국인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혼동해 왔고, 일원적인 소비에트 국가체제 때문에 위축되어 왔다는 사실을 들었다. 넷째, 미국인들이 실리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문제의 해결은 빠를수록 좋다는 실용주의적 견해를 들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의 이상논리적인 많은 부분이 매력적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새넨의 이러한 주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학자는 립셋이다. 립셋은 미국의 예외주의, 즉 사회주의의 부재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한다. 첫째, 신분제도에 따라 정치를 구조화하는 봉건적 전통의 계급 관계 부재이다. 둘째, 사회주의의 대용물로서 미국주의 그리고 지배적인 공공철학으로서의 자유주의 전통이다. 셋째, 미국 프로테스탄트의 종파주의적 과거와 혁명적 가치로부터 파생된 개인주의와 반국가주의 가치에 대한 강조이다. 이는 강력한 집단주의적 국가나 복지 국가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넷째, 생활수준, 특히 노동자 계층이 영위하는 생활수준의 꾸준한 향상이 미친 영향 - 쯔바르트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는 구운 쇠고기와 애플파이 앞에서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 - 이다. 다섯째, 주변화 된 집단의 정치적 고립화와 낮은 투표율이다. 여섯째, 생산성이 증가하고 교육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 상승의 기회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일곱째, 계급의식 형성의 방해 요인으로서 지리적 이동 성향 때문에 안정된 공동체적 기반이 결여 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민족·다인종·다문화적 이주민 사회 형성에 따른 결과이다. 립셋은 이러한 고전적 설명들이 분명히 예외주의를 설명하는 주요한 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인 해석들만으로 예외주의의 본질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미국 내의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외주의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립셋이 주장하는 정치적

요인으로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저 얻은 선물로서의 투표권이다. 둘째, 행정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만 부여되고 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연합적인 양당 구도로 전개되도록 만든 헌정 및 선거체제이다. 셋째, 대체로 대중운동 그리고 제3의 정당 형태로 명백하게 표출되는 만연된 불만을 흡수하거나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연합적인 야당체제의 유연성이다. 마지막은 급진적 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미국의 사회주의운동 역사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19세기 후반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시작하였다.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정당은 노동자의 요구와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적 수단이라는 동일성을 갖지만, 정치투쟁의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갖는다. 그러한 이유로 노동운동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정치영역으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 미국 사회주의운동 또한 이러한 주장과 같이 노동운동에서 시작하여 정당운동으로 전이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노동운동의 정당운동으로 전이하여 순조롭게 성장하여 나아간 반면, 미국의 노동운동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전이과정 이후의 노동운동 형태 또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미국의 풍요로운 경제적인 요인과 노동자들의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노동운동으로서의 본 모습을 보이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정당운동이 경우도 사회당이 창설 후 공산당과의 분열과 지지세력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1900년대, 1930년대, 1960년대에 각각 절정에 달했지만 또한 30년을 주기로 쇠퇴하였다.

사회주의 운동이 이러한 주기로 쇠퇴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요인이다. 봉건제의 부재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수주의 체계모니 장악은 미국적 예외주의의 첫 요인으로 꼽힌다. 많은 학자들은 미국이 봉건제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20세기 미국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에는 상속받은 귀족과 수탈당한 프롤레타리아가 없었고, 따라서 특권층은 자산가에 대항하여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중에서도 하츠는 미국인은 본래 평등하게 태어났고, 따라서 정치민주주의나 사회적 평등을 성취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 결과로 계급 이데올로기나 계급 조직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한 여기에 정치체제적인 요인을 더 들 수 있다. 먼저, '미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인으로 손꼽히는 보통선거권의



확산이다. 이러한 선거권의 확산은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계급의 정치 의식화를 방해한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미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통해 미국적 예외주의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연방주의를 들 수 있다. 연방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힘은 과편화되었고, 경제·사회 변화의 결정적 도구로 국민국가를 상징하는 시도 자체가 무산되었다. 또한 미국의 국가구조 및 선거의 특성은 제3당, 특히 계급정당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둘째, 경제적인 요인이다. 미국 ‘노동자들의 다양성’과 ‘경제적 풍요’는 미국적 예외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한가지다. 두 가지 요인 모두 계급 보다는 개인으로서의 노동자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미국의 다인종 국가라는 점은 노동자들이 단결을 약화시켰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을 방해하였다. 이에 더해 경제적 풍요와 신분상승의 기회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계급으로 인식할 여지를 차단했다. 즉 경제적인 지위 상승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민족·인종·문화적 이질성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계급의식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한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단결된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수용하거나 혹은 그들의 민족·인종적 공동체를 통하여 정치·경제적 이해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사회적인 요인이다. 미국 노동운동의 지도자는 대부분 지식인이 아닌 노동자 중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노동자 출신 지도자에 의해 지도된 미국 노동운동은 높은 수준의 철학도, 장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미숙했다. 다만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해 왔을 뿐이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노동운동은 대부분이 단편적인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자의 미숙함은 미국 내의 사회주의 정당들의 내적 갈등을 불러 일으켰으며 결국 사회당은 공산당과의 분열로 인하여 그 힘이 쇠퇴하였다. 또 다른 요인은 미국 노동운동의 경제적 조합주의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미국의 노동운동은 이념의 다양성과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경제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구의 노동운동과는 달리 사회주의 철학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노동당의 건립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계급의식에 기반을 둔 조합주의가 아닌, 직업의식에 기반을 둔 ‘경제적 조합주의’로 평가된다. 경제적 조합주의란 현존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틀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본가와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노

동시간 및 기타 작업조건의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추구하는 이념적 입장이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운동은 노조원들만의 경제적 이익증대를 위한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마지막 사회적 요인은 이익갈등구조의 다양성과 이익대표체계의 불평등성이다. 미국에서의 이익갈등구조는 상당히 다양하게 표출되며, 이익을 규합하여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추구하려는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에 대한 명확한 이분법적 구분이 통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수세력은 '특별이익'을 대변하는 특권세력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익대표체계는 불평등하게 유지됨에도 불만의 목소리는 의외로 크지 않다. 이는 사회주의 정당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소수세력의 이익집약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회주의 정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터전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수많은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예외주의는 고전적 해석의 주장하는 역사적인 요인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고전적 해석의 주장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지만 그것만으로는 일면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로 끝나게 된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 내의 정치적인 현실 특히 정치체제적인 영향이 더 크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와 선거제도로 인하여 양당제의 고착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양당제의 고착은 제3당의 출현을 매우 어렵게 하였으며 실제적으로 3당의 정치적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좌파의 반우파적 활동에 내재한 근원적인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미국의 좌파는 우파에 대항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이는 양차대전의 영향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우파의 방해와 탄압, 그리고 좌파의 내부분열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직접적 저해요인은 바로 이러한 좌파의 내부적인 한계성에 기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침체일로를 걸어 온 것은 봉건제의 부재와 자유주의적 전통이라는 역사적 유산 이상으로 대통령제와 연방헌법, 선거제도와 양당제 고착 등의 정치체제적 요인과 사회주의 진영의 내부 분열, 좌파에 대한 우파의 정책적 공약과 정치적 탄압 등 사회주의 내부적 요인 및 정치권력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 강명세, 2000, “한국에는 왜 노동정당은 존재하지 못하는가?”,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 고병웅, 2000, “미국 사회주의 부재론:20세기 전환기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미국 :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계레 심포지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83, 『미국노동운동사』, 서울 : 무역출판사.
- 권기준, 2005, “미국 사회주의 정당의 구조적 배제요인.”,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 권용립, 1991, 『미국:보수적 정치문명의 사상과 역사』, 서울: 역사비평사.
- 김동근, 1991, “미국 사회주의운동의 전개과정과 정치 사상적 특징”. 『來山 琴種友教授 華甲 紀念論文集』.
- 김동근, 1993, “미국 사회주의운동의 제약요인”,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 김동근, 2005,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대구: 정립사.
- 김봉중, 2000, 『미국은 과연 특별한가?』, 서울: 소나무.
- 김성찬, 1995, “미국 노동운동 및 양대정당과의 관계를 통해 본 인민당의 성쇠”,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 김진희, 1999, “미국 노동사의 위기와 해결의 모색”, 『미국사연구』 10집.
- 김진희, 2004, “미국적 예외주의, 혹은 ‘쥘바르트식 질문’에 대한 재고찰”, 『미국학 논집』 36-2.
- 김형인, 2001, “미국 사회주의의 좌절: 미국의 토착적 평등주의와 개인주의”, 『미국사 연구 제』 14집.
- 노암 촘스키 저, 김보경 역, 1996,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서울: 한울.
- 데이비드 맥라렐 저, 안택원 역, 1986, 『마르크스주의논쟁사』, 서울: 인간사랑.
- 도로시 로스 저, 백창재, 정병기 역, 2008, 『미국사회과학의 기원 I』, 경기: 나남.
- 도로시 로스 저, 백창재, 정병기 역, 2008, 『미국사회과학의 기원 II』, 경기: 나남.
- 도서출판 인간편집실, 1985, 『간추린 한국노동운동사』, 서울: 인간.
- 러셀 프리드먼 저, 김기현 역, 2008, 『그들은 자유를 위해 버스를 타지 않았다』, 경기: 책으로 여는 세상.
- 레닌 저, 남상일 역, 1988, 『제국주의론』, 서울 : 백산서당.

- 리처드 O. 보이어 저, 이태섭 역, 1996, 『알려지지 않은 미국 노동운동 이야기』, 서울: 책갈피.
- 리처드 호프스테드 저, 이준란 역, 1976, 『미국의 정치적 전통 上』, 서울: 탐구당.
- 마크 스타인 저, 현승희 역, 2009, 『벼랑위에 선 미국』, 경기: 인간사랑.
- 박민영. 2008. 『이즘』. 서울: 청년사.
- 박창규, 1996, “노동운동의 정당운동으로의 전이과정”,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창재, 2003, “미국 외교 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국가전략 9월 1호.
- 벤 우드워드 외 저, 박무성 역, 1981, 『미국사 新論: 정치·경제의 비교사적 연구』, 서울: 법문사.
- 새뮤얼 헌팅턴 저, 장원석 역, 1999, 『미국정치론- 부조화의 패러다임』, 서울: 오름.
- 새뮤얼 헌팅턴 저, 형선호 역, 2004,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경기: 김영사.
- 서정갑, 1994, 『미국정치의 과정과 정책』, 이인호 편, “미국 연방주의의 발전”, 서울: 나남출판사.
- 세미무어 마틴 립셋 저, 이종수 역, 1982, 『미국사의 구조』, 서울: 한길사
- 세이무어 마틴 립셋 저. 문지영외 역. 2006. 『미국 예외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손병권, 2001, “미국의 이익집단정치와 이익대표체계의 불평등성”,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44편 1호.
- 손호철, 2000, “현대 미국사회의 변동과 정당정치의 보수화: 보수화의 기원에 대한 재조명”, 국가전략 제8권 1호.
- 송복, 1991, “사회주의 이상과 그 실험”, 『이테올로기 재조명』, 서울 : 자유신문사.
- 아서 M. 슬레징어, Jr., 정상준 · 황혜성 공역, 1993, 『미국 역사의 순환』, 서울 : 을유 문화사.
- 알렉시스 토크빌 저, 박지동 역, 1983, 『미국의 민주주의』, 서울: 한길사.
- 양호민 외, 1981, 『공산주의비판』,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 어빙 하우 저, 김종심 역, 1983, 『미국의 사회주의』, 서울 : 민음사.
-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저, 송병헌 역, 2002,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 에릭포너, 2006, 『에릭포너의 역사란 무엇인가?』, 경기도, 알마.
- 에밀리 S. 로젠버그 저, 양홍석 역, 2003, 『미국의 팽창』, 경기: 동과서.
- 에버레트 칼 레트 Jr.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 1972, 『미국의 정당(Ⅰ)』, 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윌리엄 Z. 포스터 저, 동녘 역, 1988, 『세계사회주의운동사 I』, 서울: 동녘.
- 이경원, 2005, “왜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 『Emerde 새천년』.
- 이보행, 1986, 『미국인의 생활과 실용주의』, 서울: 정음사.
- 이삼성, 2001, 『세계와 미국』, 경기: 한길사.
- 이영범, 1992, 『美國勞動運動史』, 서울: 서원.
- 인천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 1990, 『노동자의 경제학』, 서울: 일빛.
- 유진 메카디 저, 황의방 역, 1980, 『미국 민주주의의 딜레마』, 서울: 현암사.
- 윤용희, 2002, 『현대 미국대통령 선거론』, 대구: 도서출판 청림.
- 전창환·조영철, 2001,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서울: 당대.
- 조해경, 2007, 『침략사상이 된 미국의 프런티어』, 서울: 법영사.
- 존 듀이 저, 미국학연구소 역, 1998,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주용중, 1999, 『미국정치 현장파일』, 서울: 나남출판사.
- 지아우딘 사다르, 메릴 윈 데이비스 공저, 장석봉 역, 2003, 『중요 바이러스, 미국의 나르시시즘』, 서울: 이제이북스.
- 차태서, 2007, 『은폐된 혁명: 아메리카 예외주의의 계보학적 분석』, 경기: 한국학술정보.
- 케네스 잔다·제프리 베리·제리 골드만 공저, 미국정치연구회 역, 1997, 『현대 미국 정치의 새로운 도전』, 서울: 한울아카데미.
- 프랭크 프레이델 & 알랜 브랭클리 공저, 박무성 역, 1985, 『미국현대사:1900-1981』, 서울: 대학문화사.
- 하워드 진 저, 조선혜 역, 1986, 『미국 민중 저항사 I』, 서울: 일월서각.
- 하워드 진 저, 조선혜 역, 1986, 『미국 민중 저항사 II』, 서울: 일월서각.
- 하워드 진·레베카 스테포프 공저, 김영진 역, 2008, 『하워드 진 살아 있는 미국역사』, 서울: 추수밭.

< 외국문헌 >

- Archer, Robin. 2007, *Why is there no labor party in the United Stat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ncroft, George. 2008,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om the Discovery of the American Continent.*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 Bell, Daniel. 2000, "The Failure of American Socialism: The Tension of Ethics and Politics", *The End of Ideology : On the Exhaustion of Political Ideas in the Fifties*, new revised ed.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ell, Daniel, 1976, "The End of America Exceptionalism" in Nathan Glazer and Irving Kristol, eds., *The American Commonwealth 1976* (New York: Basic Books).
- Brody, David. 1979, "The Old Labor History and the New; In Search of an American Working Class," *Labor History* 20 (Winter).
- Davis, Mark. 2000, *Prisoners of the American Dream: Politics & Economy in the History of the U. S. Working Class* (New York, W. W. Norton&Company).
- Dawley, Alan. 1988, "Farewell to 'American Exceptionalism.' A Comment," in Jean Heffer and Jeannie Rovet, eds., *Why is There No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Paris).
- Draper, Theodore. 1966, *The Roots of American Communism* (New York, Viking Press).
- Dubofsky, Melvyn. 1994, *The State and Labor in Modern America*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Foner, Eric. 1978, "Class, Ethnicity and Radicalism in the Gilded Age: The land League and Irish America." *Maxist perspectives* 2 (Summer).
- Foner, Eric. 2003. "Why Is There No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History Workshop Journal*.
- Forster, William Z. 1968, *History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Greenwood press, Publishers).
- Greene, Julia. 1991, "The Strike at the Ballot Box":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s Entrance into Election Politics, 1906-1909." *Labor History* 32 (Spring).
- Handlin, Oscar. 1964, *The First New Nation: The United States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 Hillquit, Morris. 1965, "Problems and Prospects of American Socialism": *History of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v2*, (New York, Funk & Wagnalls Co.).
- Hofstadter, Richard. 1973, *The America political Tradition, 25Th ed.*, (New York, Alfred Knopf).
- Howe, Irving. 1979, *Twenty-Five Years of Dissent* (New York, Methuen).
- Ladd Jr., Everett, Carll. 1970, *American Political Parties* (New York, Norton).

- Lipset, S. Martin. 1997, *American Exceptionalism: A Double-Edged Sword*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Lipset, S. Martin. Gary Marks, 2000, *It Didn't Happen here : Why Socialism Failed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W. W. Norton&Company).
- Marx, Karl. 1958, *Capital, I*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 Marx, Karl. and Engels, Frederick. 1969,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in *Selected Works in two volumes* (Moscow, Progress Publishers).
- Montgomery, David. 1981, *Fall of the House of Labor, Leon Fink, Workingmen's Democracy: The Knights of Labor and American Politics* (Urbana, Th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Montgomery, David. 1987, *The Fall of the House of Labor: The Workplace, the State, and American Labor Activism, 1865-192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lan, Mary. 1997, "Against Exceptionalisms," *American Historical Review* (June).
- Payne, Richard J., 1995, *The Clash with Distant Cultures: Values, Interests, and Force in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otter, David M. 1954, *People of Plenty: Economic Abundance and the American Charact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umpeter, Joseph A. 196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New York, Harper).
- Shannon, D. A. 1955, *The Socialist Party of America : A History* (New York, The Macmillan Co.).
- Sombart, Werner. 1976, *Why Is There No Socialism In the United States?* (White Plains, New York: International Arts & Science Press).
- Tocqueville, 1948,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Vol 2* (New York: Alfred A. Knopf).
- Wilentz, Sean. 1984, Against Exceptionalism: *Class Consciousness and the American Labor Movement, 1790-1940.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 Class History* (Fall).
- Zolberg, Aristide. 1986, "How Many Exceptionalisms?," Ira Katznelson and Aristide Zolberg, eds., *Working-Class Formation: Nineteenth-Century Pattern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rinceton).

< 기타 >

1) 인터넷

Monica crowley, 2009, " American exceptionalism..“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090729003787&subctg1=&subctg2> (검색일 2009년 7월 29일)

김수민, 2008, “미국민중몰락사”

<http://woodstocksm.tistory.com/368> (검색일 2009. 7. 31.)

이경원, 2000, “미국에서 왜 사회주의는 실패했는가?”

<http://blog.naver.com/liberalian?Redirect=Log&logNo=80011730360> (검색일 2009. 8. 13.)

정병기, 2007, “미국예외주의와 사회과학”

<http://jungbyungkee.net/think/Dorothy%20Ross.htm> (검색일 2009. 8. 13.)

김수민, 2009, “세계 최초의 노동당에서 뉴딜시대의 쇠퇴까지 - 오바마 취임 맞아 돌아본 미국 사회주의 정당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284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2843) (검색일 2009. 8. 15.)

신진련, 2009, “실용주의의 나라,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가 없는가?”

[http://www.sp.or.kr/sp2007/bbs/board.php?bo\\_table=5\\_1&wr\\_id=7646&page=13](http://www.sp.or.kr/sp2007/bbs/board.php?bo_table=5_1&wr_id=7646&page=13) (검색일 2009. 8. 15.)

양솔규, 2007, “에릭 the Red’을 위하여, ‘USA the Red’를 위하여”

<http://blog.aladdin.co.kr/dohwasun/1680935> (검색일 2009. 8. 15.)

세종연구소, 2004, “진보정당 생존을 위한 조건과 전략”

[http://www.sejong.org/pub\\_report/PUB\\_REPORT\\_DATA/krp2004-07.pdf](http://www.sejong.org/pub_report/PUB_REPORT_DATA/krp2004-07.pdf) (검색일 2009. 8. 16.)

백창재, 2003, “미국 외교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http://www.sejong.org/Pub\\_ns/PUB\\_NS\\_DATA/kns0901-05.pdf](http://www.sejong.org/Pub_ns/PUB_NS_DATA/kns0901-05.pdf) (검색일 2009. 8. 16.)

2) 신문 및 자료집

미국해외공보처, 『미국역사개관』 (서울 : 미공보원, 1944)

Wall Street Journal, *They Said They Didn't Want a Revolution*, (July 20, 2000)

Wall Street Journal, *It Didn't happen here*, (May 13, 2001)